



희망리포트

2016-06

---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사회를 위한,

# 2016 시민희망지수

- 시민희망인식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권기태 · 인은숙 · 유혜승







희망리포트

2016-06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사회를 위한,  
**2016 시민희망지수**  
- 시민희망인식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권기태 · 인은숙 · 유혜승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사회를 위한,  
**2016 시민희망지수**

- 시민희망인식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연구책임** 권기태 (소장권한대행/부소장 | kwonkt@makehope.org)  
인은숙 (지속가능발전팀 연구위원 | bada999@makehope.org)  
유혜승 (희망기획팀 연구위원 | hsyoo@makehope.org)

**공동연구** 안수정 (지역정책팀 연구원 | sooly@makehope.org)  
정환훈 (지속가능발전팀 연구원 | hydroj90@makehope.org)  
조현진 (시민사업팀 연구원 | heyjayzo@makehope.org)  
이은지 (전 지속가능발전팀 연구원)

# 목차

연구요약	9
프롤로그	26
I. 서론	28
1. 연구목적 및 배경	
2. 연구방법 및 과정	
1) 단계별 과정	
2) 일정별 연구진행 내용	
3) 희망지수 시민자문단 워크숍 개요	
4) 희망지수 시민자문단 및 자문위원	
II. 선행연구 검토	42
1. 희망의 정의	
1) 이론적 논의	
2) 본 연구에서의 정의	
2. 측정방법	
1) 희망에 대한 설문조사	
2) 설문문항 구조	
III. 2016 시민희망인식조사 결과	54
1. 조사개요	
1) 조사목적	

- 2) 조사설계
- 3) 조사내용
- 4) 응답자 특성

## 2. 개인 삶에서의 희망인식

59

- 1) '희망'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연상되는 단어
- 2) 꿈에 대한 태도
- 3) 분야별 삶의 만족도
- 4) 현재 삶의 만족도
- 5) 향후 삶의 희망인식
- 6) 희망적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7) 희망적 삶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
- 8) 시민참여활동 적극도
- 9) 이웃 주민과의 교류 적극도
- 10) 귀속계층 평가: 소속 사회계층

## 3. 우리 사회에서의 희망인식

80

- 1) 현 사회 인식
- 2) 향후 사회 희망인식
- 3) 희망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
- 4) [정치] 향후 정치 상황 전망
- 5) [정치] 향후 시민참여 수준 전망
- 6) [정치] 향후 정부(중앙 및 지방정부) 투명성·효율성·신뢰성 전망
- 7) [정치] 향후 남북관계 전망
- 8) [경제] 향후 경제 상황 전망
- 9) [경제] 향후 일자리의 질 전망
- 10) [경제] 향후 소득불평등 및 빈곤 전망
- 11) [경제] 향후 근무시간 전망
- 12) [사회] 향후 기술발전이 인간의 삶에 미칠 영향 전망



- 13) [사회] 향후 복지혜택 수준 전망
- 14) [사회] 향후 출산율 수준 전망
- 15) [사회] 향후 공교육의 중요성 전망
- 16) [사회] 향후 다양성 증시 전망
- 17) [사회] 향후 환경문제 개선 전망
- 18) [사회] 향후 전반적 사회여건 전망
- 19) 시민활동의 사회 기여도
- 20) 희망제작소에 대한 희망사항

4. 소결	103
-------	-----

IV. 결론: 우리시대 다시 희망찾기	110
----------------------	-----

에필로그	116
------	-----

부록	120
----	-----

- 1. 희망제작소 창립선언문
- 2. 시민희망인식조사 설문지

참고문헌	130
------	-----

## 표 목차

[표 1-1] 더 나은 삶과 사회를 위한 영역별 키워드	38
[표 1-2] 희망지수 시민자문단	40
[표 1-3] 자문위원	41
[표 2-1] 시민희망인식조사 조사내용	51
[표 2-2] 시민희망지수와 각 지수 연구에서 영역 구분 비교	53

[표 3-1] 시민희망인식조사 조사설계	56
[표 3-2] 시민희망인식조사 세부항목	57
[표 3-3] 시민희망인식조사 응답자 특성	58
[표 3-4] 희망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연상되는 단어	59
[표 3-5] 분야별 삶의 만족도	66
[표 3-6] 현 사회 인식	81
[표 3-7] 향후 정치 전망	88
[표 3-8] 연령에 따른 차이: 노오력의 세대 vs. 노력의 세대	106

## 그림 목차

[그림 1-1] 시민희망지수 연구 흐름도	33
[그림 1-2] 희망지수 시민자문단 워크숍 개요	37
[그림 3-1] ‘희망’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연상되는 단어	59
[그림 3-2] 꿈에 대한 희망	60
[그림 3-3] 꿈의 실현에 대한 희망	61
[그림 3-4] 꿈의 실현을 위한 노력 여부	62
[그림 3-5] 희망에 대한 소통 여부	63
[그림 3-6] 경제상태 만족도	64
[그림 3-7] 사회적 지위 만족도	65
[그림 3-8] 정서적 교류 만족도	66
[그림 3-9] 사회적 기여와 주위 평가 만족도	67
[그림 3-10]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삶에 대한 만족도	68
[그림 3-11] 현재 삶의 만족도	69
[그림 3-12] 향후 삶의 희망인식	70
[그림 3-13] 희망적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타고난 재능	71
[그림 3-14] 희망적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개인의 노력	72
[그림 3-15] 희망적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부모의 경제력과 인맥	73
[그림 3-16] 희망적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사회제도·정책	74

[그림 3-17] 희망적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우연·행운적 요소	75
[그림 3-18] 희망적 삶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	76
[그림 3-19] 시민참여활동 적극도	77
[그림 3-20] 이웃 주민과의 교류 적극도	78
[그림 3-21] 귀속계층 평가: 소속 사회계층	79
[그림 3-22] 사회적 갈등 vs. 협력	80
[그림 3-23] 자유와 민주주의 억압 vs. 자유와 민주주의 원칙 강화	81
[그림 3-24] 사회양극화 심화 vs. 사회양극화 해소	82
[그림 3-25] 불공정 경쟁 vs. 공정 경쟁	83
[그림 3-26] 향후 사회 희망인식	84
[그림 3-27] 희망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	85
[그림 3-28] [정치] 향후 정치 상황 전망	86
[그림 3-29] [정치] 향후 시민참여 수준 전망	87
[그림 3-30] [정치] 향후 정부 투명성·효율성·신뢰성 전망	88
[그림 3-31] [정치] 향후 남북관계 전망	89
[그림 3-32] [경제] 향후 경제 상황 전망	90
[그림 3-33] [경제] 향후 일자리의 질 전망	91
[그림 3-34] [경제] 향후 소득불평등 및 빈곤 전망	92
[그림 3-35] [경제] 향후 근무시간 전망	93
[그림 3-36] [사회] 향후 기술발전이 인간의 삶에 미칠 영향 전망	94
[그림 3-37] [사회] 향후 복지혜택 수준 전망	95
[그림 3-38] [사회] 향후 출산율 수준 전망	96
[그림 3-39] [사회] 향후 공교육의 중요성 전망	97
[그림 3-40] [사회] 향후 다양성 증시 전망	98
[그림 3-41] [사회] 환경문제 개선 전망	99
[그림 3-42] [사회] 향후 전반적 사회여건 전망	100
[그림 3-43] 시민활동의 사회기여도	101
[그림 3-44] 희망제작소에 대한 희망사항	102

# 연구요약

## 연구요약

### 왜 ‘시민희망지수’ 개발 연구를 했는가

- 희망제작소 창립 10주년 기획연구 - ‘시민희망지수’ 개발 연구는 2015년부터 ‘대한민국에 희망은 있는가’, ‘더 나은 삶과 사회를 위한 희망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여 시민과 함께 진행해 왔다. 시민들이 느끼고 생각하는 우리사회 희망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개발된 ‘시민희망지수’를 통해 시민들의 더 나은 삶과 사회에 대한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공통의 과제와 정책목표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 ‘희망’에 대해 오랜 시간 철학적으로 논의되어 왔지만, 사회적으로 ‘희망’은 그저 개인적 욕망 또는 바람 등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의 삶의 질과 연계될 것이라 믿고 추구했던 GDP로 대표되는 경제성장은 현실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지 못했고, 이에 세계적으로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을 포괄하는 지표 개발을 시도해왔다. 하지만 희망이란 현재를 진단하는 행복, 삶의 질과는 다소 다른 개념으로 ‘미래’라는 시간적 관점의 도입이 필요하다.
- 희망에 대한 개념 정의를 위해 김홍중(2015)의 꿈자본과 블로흐의 희망의 원리를 참조하였다. 꿈과 희망은 단순히 개인적 바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변화의 기반이 되는 행동과 실천을 구성하는 실질적 힘을 가진다. 따라서 희망을 더 나은 삶에 대한 꿈으로 관점을 확장하고, 본 연구에서는 ‘희망’을 “나 자신의 삶과 내가 속한

사회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힘과 변화에 대한 기대”로 정의한다. ‘시민희망인식조사’는 현재 주관적 삶의 질과 미래 삶이 더 나아질 것인가에 대한 인식측정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영역 구분	캐나다 웰빙지수	부탄 행복지수	호주 진보척도	삶의 질 (한국)	OECD
경제상태와 소속된 사회계층	생활수준	생활수준	경제	주거/교통, 소득/소비, 노동	주거/소득/일자리
사회	건강	보건	사회	건강	건강
사회(환경)	환경	생태계	환경	환경	환경
사회(교육)	교육	교육	사회	교육	교육
공동체 지역사회	공동체 활력	지역사회 생명력		사회통합, 가족	공동체
정치(시민참여)	민주적 참여	좋은 거버넌스			거버넌스
경제(근로시간)	여가와 문화 시간사용	문화 시간활용		문화/여가	일-삶 균형
삶의 만족		심리적 웰빙			삶의 만족
				안전	안전

### 어떻게 개발했는가

- 본 연구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1년 동안 진행되었다. 사전연구 단계로, 2015년 9월부터 연구 착수 및 연구방향 설정을 위한 탐색 과정이 있었다. 이 과정은 국내외 자료조사와 희망지수 시민자문단 워크숍, 전문가 자문회의, 연구진 워크숍 등의 방법을 통해 연구의 방향과 한계를 정리했다. 2016년부터는 사전연구의 여러 가지 시도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방법을 ‘시민인식조사’로 확정하고, 그에 맞춰 5단계의 연구과정을 설정하여 진행했다.
- 1단계로 일반적인 희망개념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유사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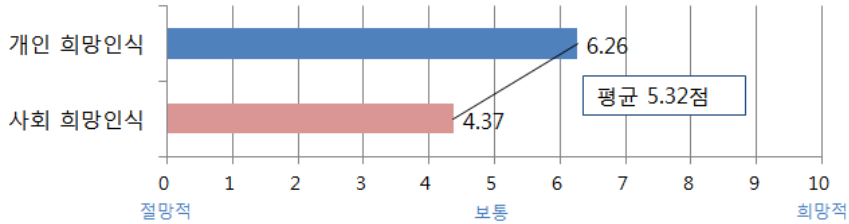
의 관련 지표와 지수 측정방법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를 토대로 전문가와 연구진의 집중토론을 거친 후, '희망지수 시민자문단' 워크숍 결과에 대한 연계지점을 고려하며 연구를 진행하였다. 2단계에서는 연구가설 및 조작적 개념 설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다양한 지표, 특히 '삶의 질 지표' 구성요소를 참고하고, '희망지수 시민자문단' 워크숍 결과로 도출된 각 영역별 키워드를 조사내용에 반영하였다. 3단계에서는 조사항목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해 구성된 설문문항 파일럿조사를 실시했다. 4단계에서는 최종 설문항목의 정교화를 진행했고, 지수 도출을 위한 구조를 확정지었다. 5단계에서는 설문조사를 실시, 본 연구의 최종목적인 '시민희망지수'를 도출하였다.

- 조사는 크게 세 영역으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개인적 삶에 대한 희망인식, 두 번째는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희망인식, 세 번째는 사회의 다양한 차원에 대한 희망인식이며 세부적인 측정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성/지역/연령별로 비례 할당 추출된 전국 15세 이상 남녀 1,000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2016년 9월 1일부터 6일까지 총 6일간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 어떤 결과들이 나왔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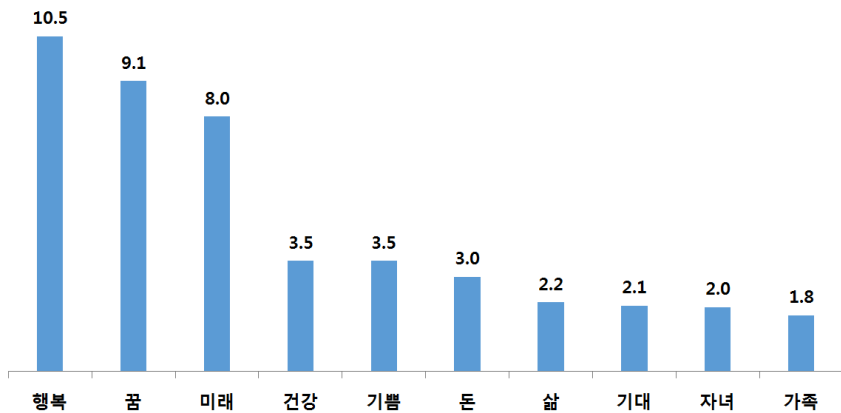
- 시민희망인식조사 결과, 개인들의 희망인식지수는 6.26점, 향후 우리 사회에 대한 희망인식지수는 4.37점으로 나왔다. 특히, 사회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는 3040세대의 희망인식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현 사회에 대해 양극화, 불공정, 사회갈등, 자유와 민주주의 억압 등 부정적 인식 경향이 강했다. 개인의 희망지수가 향후 우리 사회 희망인식지수보다 높게 나타나, 절망적으로 사회를 인식함에

도 불구하고 개인의 삶 속에 희망의 끈을 놓고 있지 않음을 시사했다. 개인 희망인식과 사회 희망인식을 합친 시민들의 희망인식은 평균 5.32점으로, 한국사회에 희망을 품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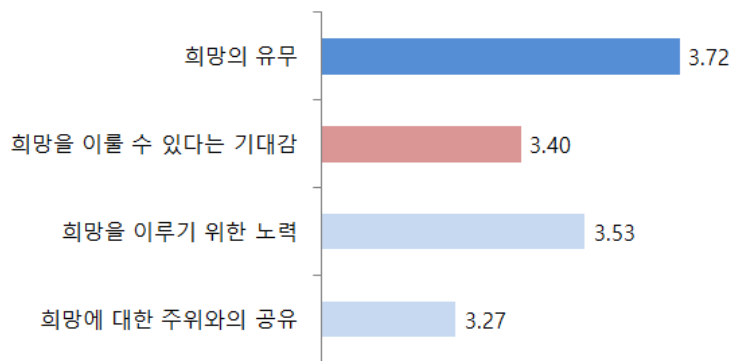
### 개인 삶에서의 희망인식

- 희망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연상되는 단어: 가장 많이 나온 응답은 ‘행복’, ‘꿈’, ‘미래’ 순으로, 10~30대는 ‘꿈’을, 40대 이상은 ‘행복’을 가장 많이 응답했다. 이는 젊은 세대는 미래에 대한 꿈으로 ‘희망’을 인식하고, 40대 이상 중장년층은 현재의 행복을 ‘희망’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희망과 행복의 상관관계는 인식도와 소득과 특히 연관된다.





○ **희망에 대한 태도 (5점 만점):** ‘희망이 있다’, ‘이룰 수 있다’, ‘노력한다’, ‘공유한다’ 모두 ‘보통’(3점) 이상으로, 비교적 긍정적 태도로 나타났다. ‘희망이 있다’(3.72점)와 ‘노력한다’(3.53점)에 비해 ‘이룰 수 있다’는 기대감(3.40점)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희망도 있고 노력도 하지만, 실제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은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다. 전반적으로 50대 이상이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40대 이하의 긍정 수준은 낮은 편이다. ‘희망의 유무’는 ‘30대’, ‘기대감’은 ‘15~19세’, ‘노력’은 ‘20대’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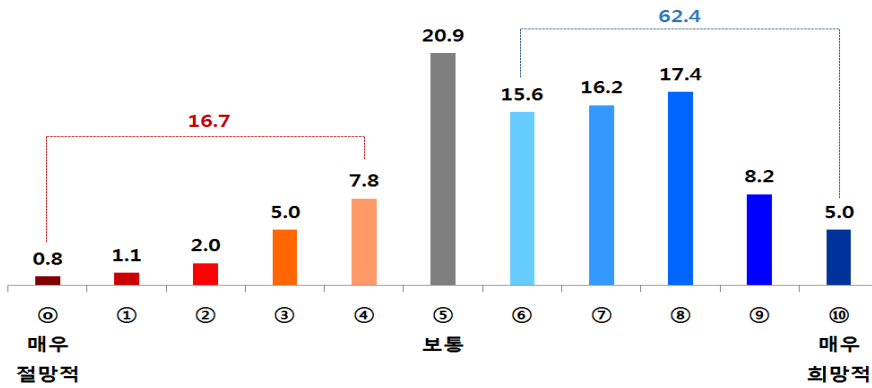
	사례수	희망의 유무	이룰 수 있다는 기대감	이루기 위한 노력	주위와의 공유	
		%	%	%	%	
<b>전 체</b>	1,000	3.72	3.40	3.53	3.27	
<b>연령대</b>	만 15 ~ 19 세	73	3.68	3.21	3.29	3.01
	만 20 ~ 29 세	150	3.67	3.37	3.22	3.21
	만 30 ~ 39 세	170	3.55	3.24	3.35	3.23
	만 40 ~ 49 세	197	3.64	3.29	3.45	3.07
	만 50 ~ 59 세	187	3.88	3.50	3.78	3.52
	만 60 세 이상	223	3.84	3.61	3.82	3.41

- **삶의 만족도 (5점 만점):** ‘경제상태’(2.79점)와 ‘사회적 지위’(2.93점)는 ‘불만족’이 우세한 반면, ‘가족·지인들과의 정서적 교류’(3.35점), ‘사회적 기여와 주위의 평가’(3.13점)는 ‘만족’이 우세했다. 전반적 만족도는 3.11점으로, ‘보통’(3점)이다. 특히, 50대 이상의 만족도가 높고 40대 이하는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만족도가 더 낮게 나타났다. 소득 수준에 따른 개인적 삶의 만족도 차이가 발생, 소득이 많은 계층일수록 만족도가 높았다.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정서적 측면의 만족도도 낮아져 소득에 따라 삶 전반의 만족도에 차이를 보인다.



전반적 삶의 만족도	사례 수	매우 불만족	비교적 불만족	보통	비교적 만족	매우 만족	종합평가		점수 5점	
		%	%	%	%	%	불만족	만족		
<b>전 체</b>	1,000	4.2	19.0	41.0	33.3	2.5	23.2	35.8	<b>3.11</b>	
<b>연령대</b>	만 15 ~ 19 세	73	9.6	23.3	26.0	37.0	4.1	32.9	41.1	3.03
	만 20 ~ 29 세	150	4.0	19.3	48.0	27.3	1.3	23.3	28.7	3.03
	만 30 ~ 39 세	170	2.4	21.2	51.8	22.4	2.4	23.5	24.7	3.01
	만 40 ~ 49 세	197	5.6	19.8	45.2	26.9	2.5	25.4	29.4	3.01
	만 50 ~ 59 세	187	3.2	17.1	38.0	38.5	3.2	20.3	41.7	3.21
	만 60 세 이상	223	3.6	16.6	31.8	45.7	2.2	20.2	48.0	3.26
<b>지역</b>	서울	195	3.1	23.1	43.6	28.7	1.5	26.2	30.3	3.03
	경기/인천	298	4.4	17.4	45.3	30.9	2.0	21.8	32.9	3.09
	대전/충청/세종	104	3.8	25.0	31.7	35.6	3.8	28.8	39.4	3.11
	광주/전라	103	4.9	19.4	35.0	37.9	2.9	24.3	40.8	3.15
	대구/부산/경상	255	4.3	16.5	39.6	36.1	3.5	20.8	39.6	3.18
	강원/제주	45	6.7	11.1	44.4	37.8	0.0	17.8	37.8	3.13

○ 개인 희망인식 (10점 만점): 보통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희망적'이라고 응답, 평균점수는 6.26점이다. 희망인식이 가장 낮은 층은 '3040세대', '수도권', '학생', '블루칼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현재의 만족도가 높은 5060세대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세대인 1020세대에서 높은 희망인식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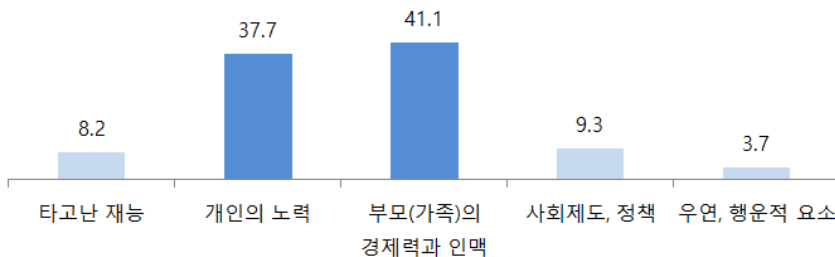


	사례 수	0	1	2	3	4	5	6	7	8	9	10	종합평가		10점	
		매우 절망적	1	2	3	4	보통	6	7	8	9	매우 희망적	절망적	희망적		
		%	%	%	%	%	%	%	%	%	%	%	%	%	%	
<b>전 체</b>	1,000	0.8	1.1	2.0	5.0	7.8	20.9	15.6	16.2	17.4	8.2	5.0	16.7	62.4	6.26	
<b>대 연령</b>	만 15 ~ 19 세	73	1.4	1.4	1.4	11.0	6.8	12.3	15.1	17.8	23.3	4.1	5.5	21.9	65.8	6.19
	만 20 ~ 29 세	150	0.7	0.0	3.3	4.0	10.0	18.7	22.0	15.3	10.0	8.0	8.0	18.0	63.3	6.23
	만 30 ~ 39 세	170	0.0	1.8	2.4	4.7	8.2	27.1	18.2	14.1	14.1	6.5	2.9	17.1	55.9	5.98
	만 40 ~ 49 세	197	1.5	1.0	2.5	5.6	8.1	23.9	15.7	17.8	13.7	5.1	5.1	18.8	57.4	5.99
	만 50 ~ 59 세	187	0.5	0.0	1.6	4.8	5.9	19.8	13.9	13.4	19.8	13.4	7.0	12.8	67.4	6.65
만 60 세 이상	223	0.9	2.2	0.9	3.6	7.6	18.8	10.8	18.8	24.2	9.4	2.7	15.2	65.9	6.41	
<b>지 역</b>	서울	195	0.0	1.5	2.1	8.2	9.2	22.1	14.9	15.4	13.3	7.2	6.2	21.0	56.9	6.07
	경기/인천	298	0.3	2.0	3.0	6.7	6.4	24.8	16.8	12.8	16.4	5.4	5.4	18.5	56.7	6.01
	대전/충청/세종	104	1.0	0.0	3.8	0.0	4.8	22.1	16.3	18.3	16.3	12.5	4.8	9.6	68.3	6.55
	광주/전라	103	1.0	1.0	1.0	7.8	5.8	15.5	13.6	17.5	19.4	13.6	3.9	16.5	68.0	6.48
	대구/부산/경상	255	2.0	0.4	0.4	2.0	10.2	17.3	14.9	19.2	20.8	8.6	4.3	14.9	67.8	6.45
강원/제주	45	0.0	0.0	2.2	2.2	8.9	20.0	17.8	17.8	20.0	6.7	4.4	13.3	66.7	6.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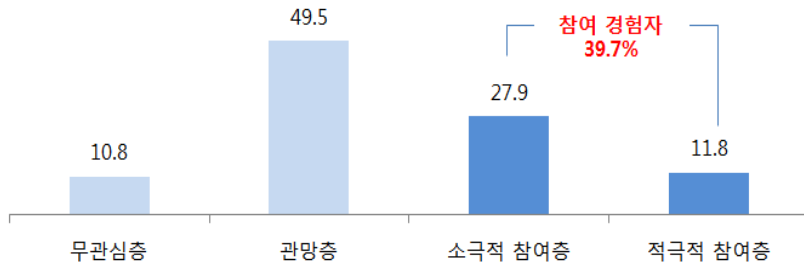
- **소득 · 삶의 만족도에 따른 삶의 희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희망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희망인식도 높았다. 삶의 만족도에 따라 개인 희망인식은 ‘절망적’에 가까운 4.40점에서 ‘매우 희망적’인 7.85점까지 더욱 벌어졌다.

	개인 희망 인식 (10점만점)	꿈을 이루겠다는 희망 정도 (5점만점)	꿈의 실현 가능성 정도 (5점만점)	꿈을 이루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 정도 (5점만점)	희망에 대한 주변과의 소통 정도 (5점만점)	
전 체	6.26	3.72	3.40	3.53	3.27	
월 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이하	5.61	3.55	3.16	3.35	3.05
	201~400만원	5.98	3.65	3.36	3.45	3.15
	401~600만원	6.42	3.77	3.45	3.61	3.40
	601만원 이상	7.05	3.91	3.58	3.71	3.50
삶 만족도	불만족	4.40	3.34	2.87	3.15	2.90
	보통	5.92	3.64	3.29	3.40	3.17
	만족	7.85	4.06	3.87	3.93	3.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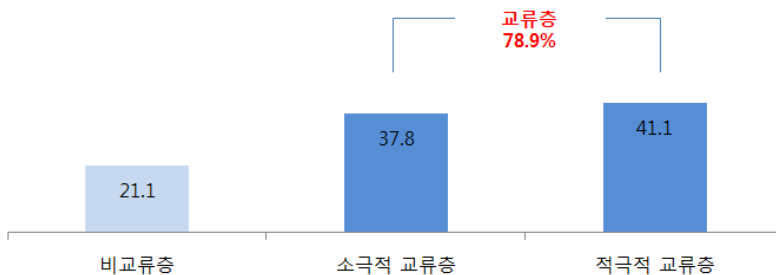
- **희망적인 삶을 사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부모(가족)의 경제력과 인맥’(41.1%), ‘개인의 노력’(37.7%)이 가장 중요하게 나타났다. 5060세대에서는 ‘개인의 노력’을, 1040세대에서는 ‘부모의 경제력과 인맥’을 가장 높게 보았다. 직장인과 학생층은 ‘부모’ 요소를 우선으로 꼽았으며, 이는 금수저사회에 대한 시민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노노력의 배신」의 시대에 사는 청년세대들과 왜 노력하지 않느냐고 청년세대를 몰아붙여온 기성세대들 간의 서로 다른 가치관과 시대관을 보여주는 듯한 모습을 나타내며, 세대통합이란 과제에 대해 여실히 증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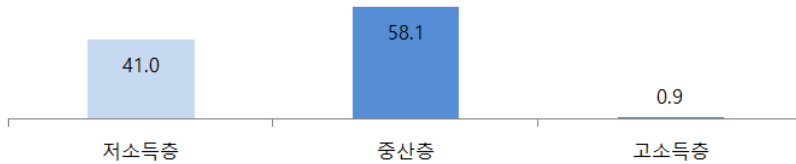
- **시민사회 참여활동 적극도:** 관망층(관심은 있지만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참여층(간헐적 27.9%+적극적 11.8%)은 39.7%에 해당했다. ‘적극적 참여층’은 집회, 공동체 활동, 정기적 모금, 후원 등의 활동을 하는 계층으로, 5060 고령층에서 더 높고, 지역 기반 활동에 적극적인 자영업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투표참여’에 적극적일수록 시민사회 참여활동도 높았다. 시민사회 참여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층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고, 개인과 사회에 대한 희망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웃과의 교류 정도:** ‘이웃과 교류하고 있다’는 응답은 78.9%로, ‘적극적 교류층’은 10명 중 4명꼴로 나타났다. 이웃과의 교류, 커뮤니티가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층은 여성, 주부, 자영업, 고령층, 비수도권 거주층이며, 시민사회 참여활동에 적극적일수록 이웃과의 교류도 적극적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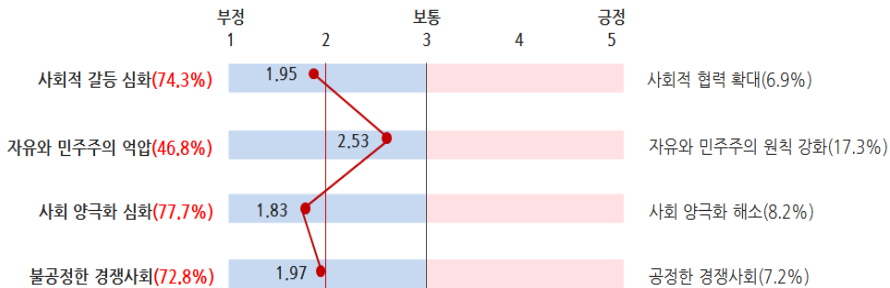


- **귀속계층 평가:** 중산층 58.1% > 저소득층 41.0%으로 지역별 인식 차이는 미미했다. 저소득층 비중이 높은 직업군은 ‘블루칼라’(60.5%)와 ‘자영업층’(45.8%)으로 나타났고,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3040세대에서 ‘저소득층’이라는 인식도 가장 높았다. 실제 중산층에 해당하는 소득 401~600만 원 계층에서도 10명 중 3명은 스스로를 ‘저소득층’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601만 원 이상 계층에서도 16.3%가 저소득층 인식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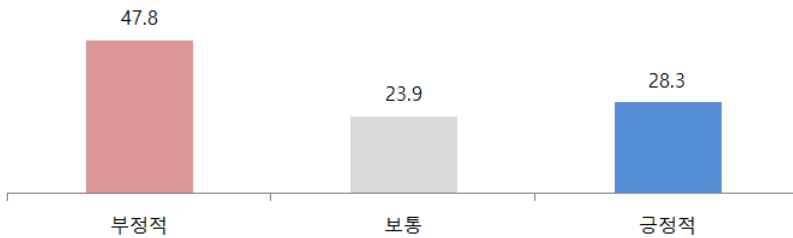


### 우리 사회에서의 희망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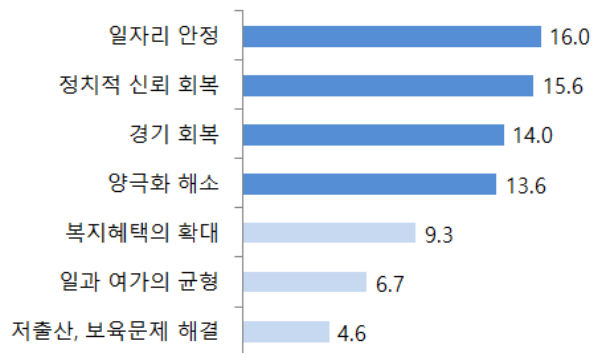
-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인식:** 우리 사회가 갈등과 억압, 양극화와 불공정한 사회로 가고 있다는 부정적 인식이 매우 크고 확고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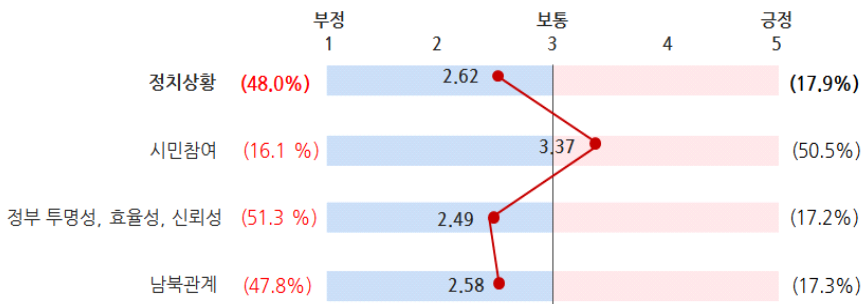
- **향후 우리 사회 희망인식 (10점 만점):** 우리 사회의 희망을 어둡게 인식(부정 47.8% > 긍정 28.3%)하고 있으며, 점수로는 4.37점으로 나타났다. 앞선 질문인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인식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 **희망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 필요한 요소:** ①시민참여의 확대 ②정치적 신뢰 회복 ③남북 화합 ④경기 회복 ⑤일자리 안정 ⑥양극화 해소 ⑦일과 여가 균형 ⑧복지혜택의 확대 ⑨저출산, 보육 문제 해결 ⑩사교육문제 해결 ⑪사회적 다양성 ⑫깨끗하고 살기 좋은 환경 ⑬성평등 ⑭세대공감(세대통합) ⑮기타의 14가지 보기 문항(중복응답) 중 가장 많이 답한 것은, '일자리 안정'(16.0%), '정치적 신뢰 회복'(15.6%), '경기 회복'(14.0%), '양극화 해소'(13.6%)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해결(일자리, 경기, 양극화)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정치에 대한 요구가 크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 **향후 우리 사회의 전망 - 정치:** '향후 5~6년간 우리나라의 정치상황'은 5점 만점에 2.62점으로, 부정적 전망이 더 크게 나타났다 ('나빠질 것' 48.0%, '나아질 것' 17.9%). '시민참여'(3.37점)는 긍정적 전망이, '정부투명성, 효율성, 신뢰성'(2.49점)과 '남북관계'(2.58점)는 부정적 전망이 높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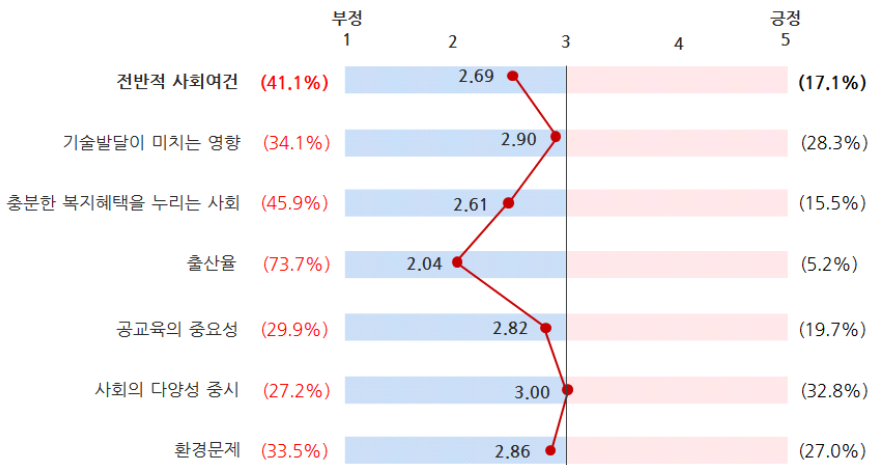


- **향후 우리 사회의 전망 - 경제:** '향후 5~6년간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5점 만점에 2.65점으로, 부정적 전망이 더 크게 나타났다 ('나빠질 것' 45.4%, '나아질 것' 16.8%). '소득불평등 및 빈곤'이 가장 부정적(악화될 것 65.4%, 개선될 것 8.8%)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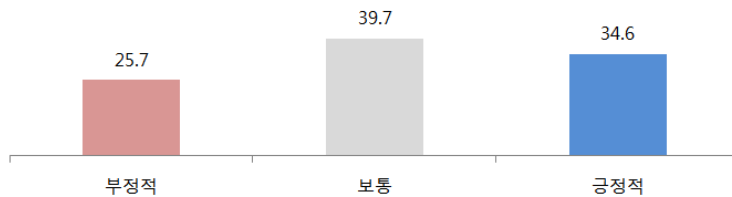




- **향후 우리 사회의 전망 - 사회:** ‘향후 5~6년간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사회여건’은 5점 만점에 2.69점으로, 부정적 전망이 더 크게 나타났다(‘나빠질 것’ 41.1%, ‘나아질 것’ 17.1%). 우리 사회와 관련한 7가지 질문 중 ‘사회 다양성 중시’를 제외한 분야에서 모두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출산율, 복지 등 사회 전반에 대해 비관적 전망을 가지고 있다.



- **시민단체와 시민사회활동가들의 기여:** 시민단체와 시민사회활동가들의 활동이 희망이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특히, ‘시민운동에 대한 긍정 평가층’에서 우리 사회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높고 사회 희망인식도 더 높았다.



- 이념에 따른 사회 인식: 진보는 우리 사회에 대해 비판적 인식이 강하고, 사회 희망인식도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념 성향에 따른 개인 희망인식의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향후 정치 전망 중 '정치일반'과 '시민참여 수준'에 대한 전망에서는 이념 차이가 없으나, '정부투명성 강화', '향후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에서는 이념 성향에 따른 응답차이가 나타났다.

정치적 이념 성향		개인 희망인식 (10점)	사회 희망인식 (10점)	사회적 갈등/협력 (5점)	자유-민주 주의억압 (5점)	사회양극화 심화/해소 (5점)	경쟁불공정 /공정 (5점)
	진보	6.21	3.74	2.48	2.17	1.64	1.71
	중도	6.15	4.46	2.84	2.57	1.89	2.02
	보수	6.61	5.05	3.02	2.97	1.94	2.21

정치적 이념 성향		향후 정치 상황 전망	향후 시민참여 수준 전망	정부투명성/ 효율성/신뢰성 전망	향후 남북관계 전망
	진보	2.65	3.43	2.32	2.55
	중도	2.61	3.32	2.50	2.54
	보수	2.61	3.42	2.69	2.74
	진보-보수 격차	<b>-0.04</b>	<b>-0.01</b>	<b>0.37</b>	<b>0.19</b>

## ‘시민희망지수’가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 ‘시민희망지수’는 하나의 측정도구이다. 수치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삶과 시민의 ‘희망’에 대한 이야기이다. 한 개인의 희망과 사회의 희망은 분리될 수 없고, 우리시대의 희망은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본 연구의 결론이다.
- 2016년 11월, 대한민국 시민들의 희망은 결핍되어 가고 있다. 젊은 세대의 희망은 사라져가고, 저소득층은 삶과 희망이 동시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지지가 절실한 상황이다. 우리는 그간 희망제작소의 연구를 바탕으로, 본 시민희망인식 조사의 결과로부터 우리시대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희망의 주체가 되어야 할 30~40대들에게 희망을 묻고 충전하도록 해야 하고, 둘째, 청년과 청소년들이 지역과 국가의 일에 당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구조적 토대를 마련해야 하며, 셋째, 지역에서 공동체를 통한 연대와 협력 위에 희망을 배양해야 한다.
- 지방자치 민선 5기, 6기 마을과 동네에서 참여를 기반으로 공동체가 형성되고 연대를 통해 공통의 문제를 발굴, 해결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역과 농촌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서 이러한 로컬단위의 움직임은 국가정책을 선도할 정도로 지역혁신 사례가 되었다. 기존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다양한 시도로 마을만들기와 사회적경제, 마을기업, 소상공인들의 연대, 작은 단위의 공유경제, 주민참여, 주민자치, 마을민주주의가 실험되고 지역혁신의 자양분이 되고 있다. 도시에서도 아파트공동체 운동을 통해 이웃과 교류하면서 작고 소소한 모임들이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공동체들이 지역과 마을을 기반으로 살아난다면 개인의 희망 결핍 상태는 고립되거나 무너지지 않고 치유될 수 있다. 희망은 공동체를 통한 연대와 협력 위에서 이어질 때 비로소 변화의 에너지원이 된다.

- 희망은 1%가 아닌 99%를 위한 것이다. 굶을 대로 굶어있던 부정 부패라는 종기가 극적으로 터진 지금이야말로 시행착오와 오류, 자기성찰과 토론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한국에 뿌리내리게 하는 희망의 연대가 필요하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모순적이고 비상식적인 것에 대한 질문들을 인식하는 일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사회철학이 갖춰지게 하는 희망에 대한 연대는 바로 현실과 미래에 대한 대응이 된다.
- 지속가능한 자치와 민주주의를 향해, 고령화사회와 불평등사회를 극복하는 새로운 대안과 새로운 사회동력 발굴이 될 수 있는 실천적 대안을 시민과 함께 실험하고 그러한 연구 성과를 어떻게 늘리고 강화시킬지 고민해야 한다. 그것이 지금 이 전환의 시대에 요구되는 우리 공동의 희망 패러다임이다. 지속불가능한 사회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로 변화할 때 한국사회에서 잊혀졌던 가치가 복원되고 과거의 구조적 문제점이 치유될 수 있다.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개인과 이웃의 삶을 재구성하기 위해 희망의 연대로 대안적인 사례를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시민이 힘이고 희망인 것이다. 시민이 만들고 구축하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모아져야 한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갈 내일의 시작과 같다. 희망은 결코 늦은 법이 없다.

# 프롤로그

## 우리 지금, 희망합니까?

“희망은 밝고 환한 양초 불빛처럼 우리 인생의 행로를 장식하고 용기를 준다. 밤의 어둠이 짙을수록 그 빛은 더욱 밝다.”\_올리버 골드스미스

2016년 대한민국은 희망보다는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다. 경제성장 동력이 멈췄고, 청년실업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도 보이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양극화는 심화되어 ‘불평등’은 사회적 질환이 된지 오래다. 어찌면 굵고 굵아 터지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는 ‘희망’보다는 ‘절망’을 이야기하기 쉽다.

‘시민희망지수’를 발표한다고 하니 ‘때’를 잘못 잡은 것 아니냐는 냉소적 반응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이 그 때일 수도 있다. 굵고 굵아 터져버린 상처 부위와 통감을 문진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떤지?’, ‘앞으로, 어떨 것 같은지?’ 시민에게 ‘희망’의 안녕을 물어야 한다.

“우리가 과연 ‘우리 안의 희망’에 대해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요소와 근거로 희망하는가?”, “한국은 왜 살기 어려운 나라인가?”, “희망을 갖기 위한 실천적 행동이 뒤따르고 있는가?”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희망제작소는 연구를 시작하였다.

그 여정은 꼬박 1년이 걸렸다. ‘희망’이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을 측정하고 그 지수를 개발한다는 것에 대한 혼란스러움으로 내부적 논의과정이 길어졌다. 게다가 선행연구가 거의 없다는 점도 이 연구의 어려움과 한계로 작용했다. 전문가들 또한 개념과 측정방법에 대해 바라보는 관점이 모두 제각각이었다. 그 어려움과 한계를 극복하게 한 것은 ‘희망지수 시민자문단’들의 관심과 참여였다. 그리고 한 전문가의 “희망제작소라서 그런 연구가 가능하니

과감히 도전해보기를 추천한다. 희망제작소에서 물꼬를 터주면 이후 학문적 정교화 및 후속연구는 우리들이 해보겠다”는 격려와 응원의 이야기였다.

도저히 잡히지 않는 실체를 찾아 돈키호테의 희망처럼 호기롭게 연구를 시작했다. 이후 연구진은 애초의 ‘희망지수’ 개발에서 ‘시민희망지수’ 개발로 생각을 정리하는 ‘이름표’를 붙이면서 연구범위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었다. 학문적 · 이론적 검토를 토대로 시민이 느끼고 말하는 우리시대 개인의 삶과 사회에 대한 희망인식을 알아보는 방향으로 연구의 방향을 잡았다. 측정방법 또한 계량가능한 것들의 폭압에서 자유로워져 복잡하지 않게 설계했다. 일단 이렇게 연구팀의 희망경로를 잡고 ‘시작’을 했다. 시민들과 함께 했고, 시민들이 자신의 삶과 우리 사회를 진단했다. 이후 과정도 시민참여 방식으로 과제들을 기획하고 실행해 갈 것이다. 다시 한 번 희망지수 시민자문단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

희망제작소가 올해로 열 살이 되었다. 이 연구의 가장 든든한 지지는 시민과 함께하는 실천적 조직의 10년 역사와 활동결과를 통해 받았다. 창립 이래 줄곧 뜬구름을 잡아 땅위에 온갖 희망의 근거와 작동원리를 증명해온 ‘희망제작소’라는 “희망”을 만들어가는 시민들의 힘이다.

모쪼록 이 연구가 미흡하지만 ‘시민희망지수’의 원년을 알리는 물꼬로서 희망제작소의 의미있는 또 하나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후반부에 다다르자, ‘희망’을 이야기한다는 것과 ‘희망을 만든다’는 것이 결국 인간의 존엄성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된 연구팀은 큰 축복을 얻었다. 희망을 부르면, 희망은 우리에게 온다. 희망은 결코 늦은 법이 없다.

2016년 11월, 희망제작소

# 1. 서론

1. 연구목적 및 배경

2. 연구방법 및 과정



# I. 서론

## 1. 연구목적 및 배경

본 연구는 희망제작소 창립 10주년 기획연구로 진행되었다. 희망제작소는 10주년을 기념해 2015년부터 ‘대한민국에 희망은 있는가?’, ‘더 나은 삶과 사회를 위한 희망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여 시민과 함께 ‘희망지수’ 연구를 진행해 왔다.

초기연구단계에서는 ‘희망’이라는 개념이 지닌 복잡성과 주관성으로 인해 연구의 한계를 가졌다. ‘희망’이라는 하나의 우산 아래 개인의 주관이나 감정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모든 영역의 문제를 포괄하게 되어, 연구가 복잡해지고 감당하기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2016년부터는 ‘희망’이라는 개념적 정의가 측정가능하도록 조작화(operationalization)하는 작업을 토대로, ‘시민들의 희망 인식 측정’이라는 연구목표에 집중하여 진행했다.

한 사회가, 그리고 나의 삶이 ‘희망적’이라는 말은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희망’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나의 삶, 내가 속하는 공동체,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떤 길로 나아가야 좀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공동체, 나아가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성 · 관점 · 가치가 담겨있다. 또한 ‘희망’은 더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의 바탕을 이루는 요소로써 사회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자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희망이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어떤’ 희망인가를 질문하는 것이 개인적 · 사회적 중요성을 지니는 이유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사회는 희망이라는 단어가 허무하고 떠나면 것,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질 만큼 어둡고 불안하다. 특히, 현 청년세대는 한국사회를 두고 ‘희망이 없다’며 이를 자조적으로 비판하는 의미에서 ‘헬조선’ 내지는 ‘지옥불반도’라 부르고 있다.<sup>1)</sup> 희망 대신 절망을 이야기하는 이들 청년들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날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현실을 비꼬기도 하며, 한국 안에서는 ‘더 이상의 희망이 없다’면서 외국에서 받을 차별에도 불구하고 이민을 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산업화 시기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던 때 ‘개미처럼 일하고 허리띠 졸라매면’ 누구나 잘 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소박한 희망이 그나마 지배적이었던 사회적 분위기와 사뭇 대조적이다. 지난 몇 십 년간의 빠른 성장속도는 경제적 희망에 부푼 사회적 분위기를 마련하였으나, 이후 1997년 외환위기가 가져온 충격은 이에 대한 희망을 붕괴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최근 들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불평등 추세와 신자유주의적 불안의 심화는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낙관할 수 없게 하는 구조적 환경이 되고 있다. 이는 소득, 고용, 자산, 주거, 교육 등 다양한 차원에서 한국사회의 불평등이 2000년대 몇 차례의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악화되어온 데서 더욱 잘 드러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용 측면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기준으로 약 48%에 이르는 등 대단히 높은 수준이며,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소득불평등 역시 점점 악화되고 있으며, 1990년대 후반 이후로 높은 집값과 관련하여 자산 불평등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결과 희망을 꿈꾸었던 중산층은 무너졌고,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용불안과 노후불안 등 전반적으로 삶의 불안과 불확실성에 시달리고 있다. 신자유주의화에서 악화된 양극화는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것이 현 한국사회 절망의 구조적 맥락이다.

이처럼 희망의 급변을 경험한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희망하고 있는가? 희망은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는가? 한국사회가 마주한 이와 같은 좌절, 즉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이 줄어드는 현상과 자본주의적·신자유주의적 삶을 넘어서는 다른 삶의 가능성이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사회변화를 위한 간절한 바람이 개인적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좌절과 냉소로

---

1) 이때 ‘헬조선’은 한국의 옛 명칭인 조선에 지옥이란 뜻의 접두어 헬(Hell)을 붙인 합성어로, ‘지옥 같은 한국사회’라는 뜻이다. 헬조선 용어는 인터넷 사이트 ‘디시인사이드’의 역사갤러리에서 처음 사용된 신조어이다.

귀결되는 오늘날의 현상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현재 한국사회는 더 이상 희망을 주지 못하는 사회이며,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더 이상 꿈꾸지 못하는 사회인가?

이러한 비관적 질문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구조적 현실에서도 희망이 부재하고 절망과 냉소가 만연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비관적인 현실에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개선하고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회적 의지가 형성되고, 모두가 이러한 현실에 체념하거나 냉소하기보다는 다른 세상을 꿈꾸고 함께 행동할 수 있다면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희망이라는 개념을 통해 사람들이 가진 미래에 대한 관점이 실천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 역시 주목하고자 한다. 꿈꾸는 미래가 실현되리라는 지속적인 희망과 의지가 없다면, 사회혁신과 변화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꿈과 희망이 사람들의 실천을 이끌어내는 강력한 자원이 된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기대하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한지, 또한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희망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어느 영역에서 희망의 정도가 높은지(낮은지), 희망이 어떤 요인에 의해 결핍되어 가는지를 조사함으로써, 우리는 앞으로의 사회적 변화가 주관적 희망의 수준에서 어떻게 경험되고 구조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

이 연구는 '희망을 만듦(제작)'을 기치로 내건 희망제작소가 앞으로 한국사회 속에서 나아가야 할 '희망'의 의미와 방향을 찾고자 한다. 덧붙여 시민들이 느끼고 생각하는 우리 사회 희망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시민희망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더 나은 삶과 사회에 대한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공통의 과제와 정책목표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이다.<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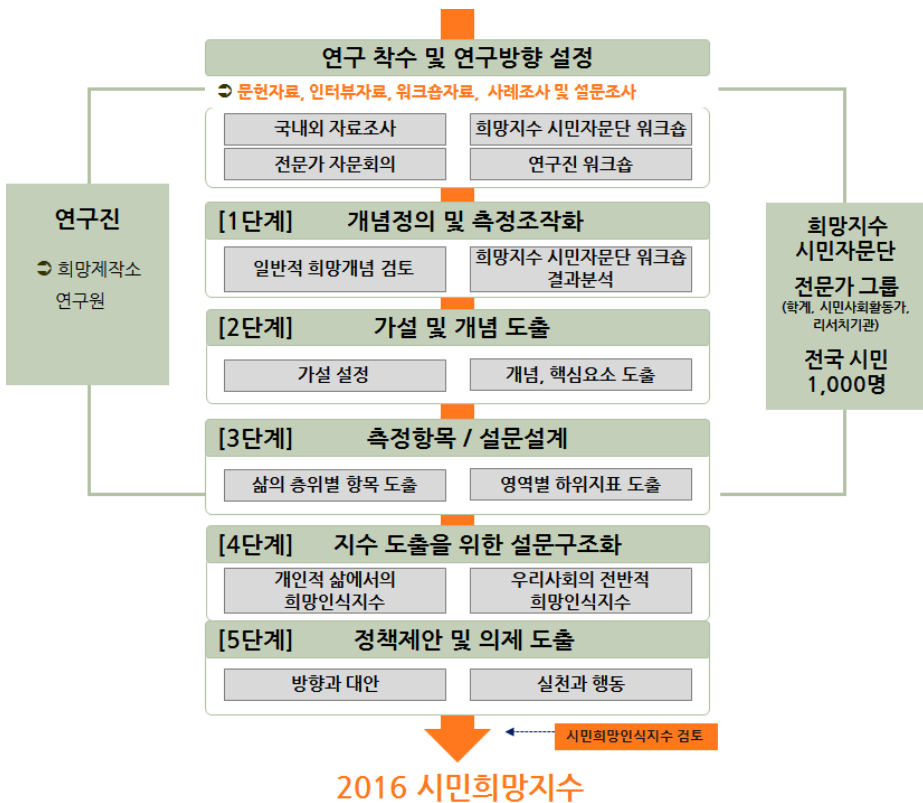
---

2) 후속연구로서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의 희망을 찾아내고 이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사회 중산층의 희망, 시민사회활동가의 희망, 청소년들이 꿈꾸는 희망, 청년들의 희망, 3040세대가 말하는 희망, 노인의 희망,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들이 말하는 희망, 비정규직 저소득 노동자의 희망 등 가능한 모든 집단들의 희망을 질문하고 살펴보는 일이 필요하다.

## 2. 연구방법 및 과정

### 1) 단계별 과정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단계별 과정을 통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1년 동안 진행되었다.



[그림 1-1] 시민희망지수 연구 흐름도

먼저 사전연구 단계로, 2015년 9월부터 연구 착수 및 연구방향 설정을 위한 탐색 과정이 있었다. 국내외 자료조사과 희망지수 시민자문단 워크숍, 전문가 자문회의, 연구진 워크숍 등의 과정을 거치며 연구의 방향과 한계 등을

정리할 수 있었다. 본격적인 연구단계로 들어간 2016년부터는 사전연구의 여러 가지 시도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방법을 ‘시민인식조사’로 확정하고, 그에 맞춰 5단계의 연구과정을 설정하여 진행하였다.

1단계로 일반적인 희망개념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유사개념의 관련 지표와 지수 측정방법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를 토대로 전문가와 연구진의 집중토론을 거친 후, ‘희망지수 시민자문단’ 워크숍 결과에 대한 연계지점을 고려하며 연구를 진행하였다. 문헌조사에서는 희망의 개념과 국내외 관련 연구의 동향, 그리고 분야별 접근방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희망’은 주로 신학, 철학, 사회학,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연구가 있지만, 희망측정에 대한 연구는 적다는 한계가 존재했다.

2단계에서는 연구가설 및 조작적 개념 설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 ● 2단계 연구가설

- ✓ 모든 차원(개인/가족/지역/한국사회)에서 희망의 정도는 낮게 나타날 것이다.
- ✓ 절망적이라면, 그 이유는 경제적인 조건이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이다.
- ✓ 영역별 희망의 정도에서 생활수준 및 경제의 희망은 가장 낮게 나타날 것이다.
- ✓ 연령이 낮을수록 희망의 정도는 낮아질 것이다.
- ✓ 여성보다 남성이 희망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다.
- ✓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희망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다.
- ✓ 정치활동과 사회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희망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다.

희망지수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회에서 우선해야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설정하는 것이 필요했다. 다양한 지표, 특히 ‘삶의 질 지표’의 구성

요소를 참고하고, ‘희망지수 시민자문단’ 워크숍에서 도출된 각 영역별 키워드를 조사내용에 반영하였다.

3단계에서는 조사해야 할 항목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해 구성된 설문문항을 전문가에게 자문받고 ‘희망지수 시민자문단’과 희망제작소 연구원을 대상으로 파일럿조사(pilot survey)를 실시하였다. 이 단계에서 ‘시민참여와 희망제작소가 힘써야 할 영역’에 대한 희망지수 시민자문단의 의견이 설문문항에 추가되고, 조사영역에 대한 층위와 영역이 정리되었다.

4단계에서는 최종 설문항목의 정교화를 진행하였고, 지수 도출을 위한 구조를 확정했다. 조사영역을 세 파트-‘개인적 삶에서의 희망인식’, ‘우리사회의 전반적 희망인식’, ‘우리사회의 다양한 차원에 대한 전망’-로 구성하여 측정항목(영역별 하위지표)을 배치하였다. 특히, ‘우리사회의 다양한 차원에 대한 전망’은 정치·경제·사회의 세 영역으로 구성, 재정리했다.

5단계에서는 설문조사를 실시, 본 연구의 최종목적인 ‘시민희망지수’를 도출하였다. 이를 검토하여 ‘더 나은 삶과 사회를 위한 희망’에 대한 정책제안 및 의제를 도출하였다.

이 연구결과물은 2016년 11월 21일, 시민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는 <2016 시민희망지수> 발표간담회 자리를 통해 공개발표 된다.

## 2) 일정별 연구진행 내용

### ● 2015년

2015.09	연구방향 설정
2015.10	시민참여 워크숍 기획, 연구진 워크숍 진행
2015.10.31.	‘희망지수 시민자문단’ 워크숍 진행
2015.11	분석틀 검토, 시민자문단 워크숍 결과 분석,

### 1차 범주 도출

2015.11.26. 전문가 자문회의, 연구방법 재검토

### ● 2016년

2016.03~04 개념 정의 및 측정조작화, 가설 및 개념 도출  
2016.05~07 전문가 자문 심층인터뷰  
2016.06~07 설문구성 재수정 보완, 조사기관 선정(원지코리아 컨설팅)  
2016.08 측정항목, 설문 설계, 조사일정 확정  
2016.08.17.~08.31. 파일럿 테스트 실시, 본조사지 수정 보완  
2016.09.01.~09.06. 본조사 실시  
2016.09~10 본조사 결과 분석, 연구팀 · 조사기관 워크숍  
2016.10~11 조사보고서 분석결과 해석, 연구보고서 작성  
2016.11.21. <2016 시민희망지수> 발표

### 3) '희망지수 시민자문단' 워크숍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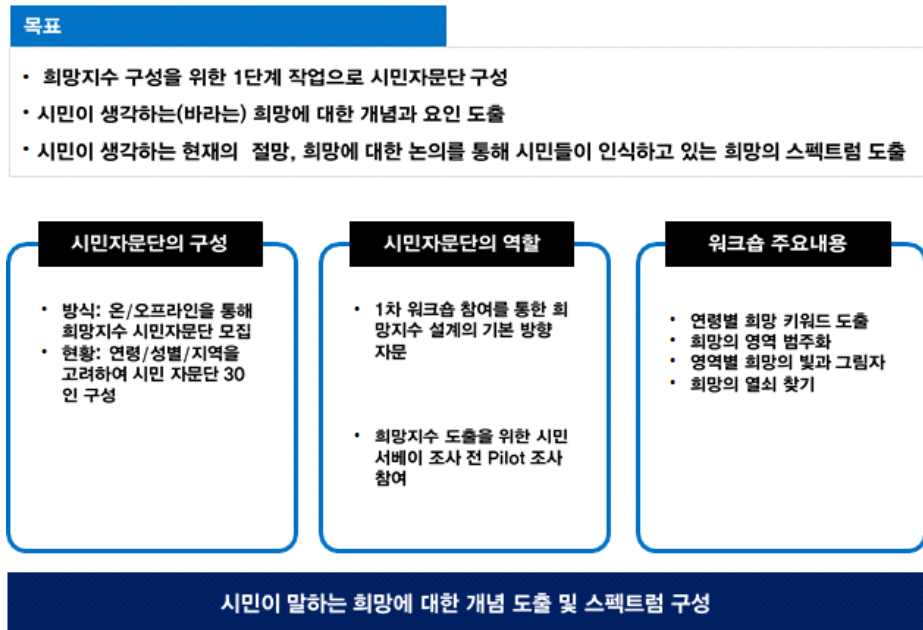
수많은 지수와 지표들이 우후죽순격으로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시민참여 기반 민간싱크탱크인 희망제작소가 개발한 '시민희망지수'는 시민참여형으로 출발했다는 데 그 의미와 차별성이 있다. '희망지수 시민자문단'을 구성하고 워크숍을 통해 영역별 키워드를 도출한 지점은 시민참여형 측정도구 개발의 한 사례가 될 수 있다. '시민희망지수'는 숙의방법론 중, 현실진단형 · 과제발굴형에 해당하는 시민참여 워크숍을 토대로, 전략적 특성에 따른 유형들과 교차 설계를 통해 숙의의 과정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었다(유혜승, 2016).

'세상은 이런 곳이고 삶은 이런 것이어야 할 것 같다'는 열망을 담은 시민들의 깊은 생각들을 모은 '희망지수 시민자문단 워크숍(이하 워크숍)'의 개요를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 (1) 주요내용

워크숍은 시민의 관점을 담은 지수 개발을 위해, 2015년 10월 31일 진행되었다. 희망지수 시민자문단은 10대~60대 시민 30명으로 구성되었다.

# 당신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그림 1-2] 희망지수 시민자문단 워크숍 개요

희망제작소 홈페이지를 통해 자발적으로 신청한 인원 중 연령, 성별, 지역에 따라 선발하였다. 5시간 동안 진행된 워크숍은 오픈 스페이스 테크놀로지(O.S.T.) 기법<sup>3)</sup>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직접 사회적 희망에 대한 개념과 가치

3) 가장 효율적인 소통을 구현하는 개방형 집단토론 방법으로서 모든 참가자가 토론할 주제를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주제 가운데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다. 창조적이며 효율적인 결과 도출 (High Performance)을 위해 소규모 커뮤니티 방식으로 토론이 발전되며 다섯 명에서 2천 명 이상까지 다양한 형태로 참여가 가능하고 어떤 유형의 조직에도 적용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전문가 중심의 토론형태가 아니라 주제에 관



를 이야기하고, 희망지수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다.

워크숍은 시민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한국사회의 희망 키워드를 이야기 하는 시간으로 출발했다. “희망이 있는가?”라는 총론적인 질문에 이어 “그 희망은 무엇으로 구성될까?”라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시민자문단이 작성한 희망 키워드들을 먼저 연령별로 모으고, 그것을 각 주제와 영역별로 다시 모으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시민자문단은 어떤 것이 이뤄져야 내 삶, 또는 한국사회가 좀 더 나아질 것 같은 지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부터, 영역별 이슈까지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각 영역별 정리된 주요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이 키워드는 최종 시민희망 인식조사 문항 전반에 내용적으로 반영하였다.

[표 1-1] 시민희망인식조사 조사내용

더 나은 삶과 사회를 위한 각 영역별 핵심(희망)키워드	2016 시민희망인식조사 조사내용
<p>① 경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개선,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철폐, 좋은 일자리, 노동시간 단축, 상생공정경제, 자영업자 보호제도 마련, 일자리 확대, 대안경제, 기회의 평등 등</li> </ul> <p>② 정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표 잘하기, 정치참여 확대, 시민정치 의식 함양, 친일청산, 분단 극복, 지방분권 강화 등</li> </ul> <p>③ 사회문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숙한 시민의식, 다양성 인정, 참여, 응집력(협력), 문화적 성숙, 다양한 일상의 정치참여, 지역사회 커뮤니티 등</li> </ul>	<p>[정 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정치상황 전망</li> <li>• 시민들이 사회적 이슈에 참여하는 수준</li> <li>• 정부운영의 투명성, 효율성, 신뢰성 수준</li> <li>• 향후 남북한 관계 진전 수준</li> </ul> <p>[경 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경제상황 전망</li> <li>• 일자리의 질</li> <li>• 소득과 부의 불평등 및 빈곤</li> <li>• 근무시간</li> </ul> <p>[사 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의 발달이 삶에 미치는 영향</li> <li>• 복지혜택 수준</li> <li>• 출산율</li> <li>• 공교육(학교교육)의 중요성</li> </ul>

심 있는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가 가능한 것도 특징이다.

<p><b>④ 교육</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기회,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지원, 공교육 되살리기, 평생교육의 보편화, 교육 주체의 다양화, 대안교육의 확대, 쉽고 다양한 교육 등</li> </ul> <p><b>⑤ 복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제도 확대, 무상의료, 무상급식, 교복 구입비 지원, 공공임대주택 보급 확대, 노후 생활비 보장, 출산양육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 내 다양성 증시하는 수준</li> <li>• 환경문제 개선도</li> <li>• 향후 전반적인 사회여건 전망</li> <li>• 시민단체와 시민사회활동가들에 대한 신뢰도</li> <li>• 시민참여활동 적극도</li> <li>• 이웃주민과의 교류 수준</li> <li>• 소속된 사회계층</li> <li>• 현 사회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갈등</li> <li>-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li> <li>- 사회 양극화</li> <li>- 불공정한 경쟁</li> </ul> </li> <li>• 향후 사회 희망인식</li> <li>• 희망이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li> </ul>
--	---

## (2) 참가자 소감

이러한 시민참여형 측정도구 개발이 의미있는 과정이 되었다는 것은 아래와 같은 참가자 소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전문가 중심으로만 개발되는 측정도구는 시민의 삶과 생활과는 괴리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참여’와 ‘소통’을 통해 ‘대화’할 수 있도록 둘러앉은 자리를 마련하는 것에서 부터 대안을 찾을 수 있다.

“딱연하게 생각하고 내가 자문단 할 자격이 되나 했는데, 희망이 뭇지 개념을 알 수 있었던 시간이다. 감사한다.”(장한교 위원)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 및 상황들은 물론 각각 개인의 삶이 나아지기를 원하는데 사실 어떻게 바뀌는 게 나아지고 개선되는 건지 의견을 교환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다. 개인적으로 정리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의견 교환하다보니까 몰랐던 부분까지 알게 된 것도 있다. 희망 지수 잘 만드셔서 희망 내용들이 하나하나씩 실천되기를 바란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김준영 위원)

“우선은 이렇게 10대부터 60대까지 함께 모여 우리 생각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참 신선했다. 저는 자문단이라고 해서 막연하게 생각하고 왔는데 10대들이 자기 생각을 내놓는 걸 보고, 예쁘고,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요즘에는 세대불신이니 세대에 대한 여러 얘기들이 나오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세대가 같이 공감해서 함께 나갈 수 있고, 다만 소통의 기회가 없었을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희망을 다시 배우게 된다.”(박현숙 위원)

#### 4) 희망지수 시민자문단 및 자문위원

[표 1-2] 희망지수 시민자문단

연령	자문위원	희망이란	희망지수 개발에 대한 기대 혹은 하고 싶은 말
10대	김나현(여) 김지민(여) 박관웅(남) 임채원(여) 황용해(남)	삶의 변화 행복한 사회 아름다운 미래	저는 항상 희망제작소에서 만들고 주관하는 프로그램들이 단순한 시민단체의 행사가 아니라 정말 사회에 희망을 주고 사회혁신을 추진하는 아름다운 시민들의 자발적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20대	김도일(남) 노재환(남) 노혁수(남) 박성은(여) 이종은(여) 장석현(남) 정원희(여) 조형준(남)	간절함 실현하기 어려운 길 그림에도 해낼 수 있으리라 믿어야 하는 것 상대적 박탈감이 적고 각자성향에 맞게 미래를 꾸며나갈 수 있는 환경 사랑 빛 어둠 밝음 눈부심 고통 발견 눈물 고문 좌절 행복 내일 변화	힘들고 절망하는 이들을 단순히 위로하는 차원에 머물지 않고 진정한 희망을 함께 느끼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실행에 옮길 수 있게끔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30대	공용재(남) 김미화(여) 민천홍(남)	어린이들이 행복한 평화 화해 통일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거대담론이 아니라 지역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작은 것에서부터 사람들과 함께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박수진(여) 조준형(남) 황아미(여)	복지 안전망 자유 힘 미래 행복 꿈 목표 사람 세상	다양한 이야기들을 최대한 많이 찾아내고 그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고,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판을 깔고 여러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발견하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선한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것
40대	김준영(남) 곽성진(남) 마 진(남) 이현정(여) 정미영(여) 한종성(남)	사람 봉사자 NGO 교육 기부 학생 일부연론 책 배움 등 보이지 않는다 없다 사회보장 편안한 노후 생활임금 정치 선거 노동	희망찾기 프로젝트 그 발상 자체만으로도 희망을 본다. 절망만 할 것이 아니라 희망을 찾아야 한다. 희망적인 것들을 발굴해야 한다. 또한 널리 알려 아직은 좋은 사람들이 더 많고 세상은 살만한 곳이라는 것을 깨우쳐줘야 한다. 그래서 혼자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희망을 가지고 꿈을 꾸며 하루하루 웃으며 살 수 있도록 희망지수 개발에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 희망이 곳곳에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작은 씨앗이 되길
50대	공 현(남) 오정란(여) 이정규(남) 장한교(남)	함께 미래 계획 청소년 책임감 공동체성 배려	‘희망’이라는 단어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60대 이상	박현숙(여) 이경숙(여) 장두현(남)	청소년 밝고 건강함 인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유산 사회적 책임 인성 보편적 가장 기본적인 가치 소망 밝음 인생 도전	인생에 희망이 없으면 죽은 것이나 다를 없다. 희망은 절망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희망을 추구한 결과다

[표 1-3] 자문위원

<b>자문위원</b>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김형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홍중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유경희 (그리다협동조합 대표 · 녹색연합 상임대표)
임상렬 (협동조합 리콴 이사장)
정인환 (협성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 변호사)
한 준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자문위원명 가나다순.

## II. 선행연구 검토

1. 희망의 정의

2. 측정방법

## II. 선행연구 검토

### 1. 희망의 정의

#### 1) 이론적 논의

##### (1) 개인적 차원에서의 접근

희망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앞일에 대하여 어떤 기대를 가지고 바람', '앞으로 잘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정의<sup>4)</sup>된다. 개인의 막연한 믿음과 바람의 뜻으로 사용되던 '희망'의 개념을 과학적인 연구와 측정가능한 체계적인 개념으로 정립하고 연구에 본격적으로 활용하게된 것은 Snyder<sup>5)</sup>와 그의 동료들에 의한 연구 이후로써 비교적 최근이다. Snyder 등(1991)은 기존 학자들이 정의한 희망개념이 모호한 인상을 주며, 희망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희망을 측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희망의 인지적인 과정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희망이론을 제안하였다.

그들은 희망을 목표지향성으로 보고, 희망주도(hope agency)와 희망경로(hope pathways)의 합을 통해서 희망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즉, 희망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를 모색하고, 이러한 경로를 활동하기 위한 동기를 생성하는 목표지향적인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Snyder, 1994, 정미나·이창식, 2013:274에서 재인용).

##### (2) 사회역사적 맥락에서의 접근 필요성

21세기에 들어 지속가능성의 위기가 심화되고 다양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급속도로 악화되는 지구적 상황에서 한 사회의 미래에 대한 전망, 지속가능성

---

4) 국립국어원,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5) 릭 스나이더(Rick Snyder)는 미국 캔자스대학의 심리학자로 희망에 대하여 체계화를 시도함.

과 지속가능발전, 그리고 개인적 · 사회적 희망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관심은 우리 사회가 진보하고 더 나아질 것이라는 과거의 일반적 기대와 믿음이-약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테러, 기후변화 등의 환경적 재난, 그리고 점차 확대되고 있는 빈곤과 양극화 현상에 대해 비관적이기 쉬운 우리시대의 분위기와 깊게 연관되어 있다.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현재에서 어떤 만족과 행복을 느끼기보다는 이를 미래의 어느 시점으로 '유예'시키고 '연기'하고 있는 데에는, 이처럼 힘들어진 객관적 조건 속에서 삶의 대안과 다른 가능성을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지금의 시대적 어려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희망'이라는 개념 역시 이와 같은 사회역사적 맥락 속에 놓여 있다.

희망에 대한 이론적 · 학문적 논의가 지금에서야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은 물론 아니다. 이 개념은 오래전부터 신학과 철학에서 주로 논의되어 왔으며, 대표적으로 블로흐의 '희망의 원리'와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 가브리엘 마르셀의 '희망의 형이상학', 로터의 '사회적 희망' 등 많은 유명한 철학자들이 이미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김홍중, 2015:40).

### (3) 다양한 사회평가 지표 논의

오래전부터 이뤄져온 희망에 대한 철학적 논의와는 별개로, 현대 사회과학에서 희망이 한 사회를 평가하는 하나의 지표이자 잣대로서 주목받았던 적은 거의 없었다. 희망에 대한 오래된 철학이론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그저 개인적인 욕망이나 바람을 일컫는 일상적 용어로 사용되었을 뿐, 사회적 영향력을 강력하게 지니고 있지는 않았다.

구체적으로 그 역사를 살펴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회발전 정도를 측정하는 핵심지표는 'GDP'가 절대적인 위상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각 나라에서도 양적 경제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정책을 추구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성장이 자연스럽게 그 사회의 웰빙이나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것이라는 기대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음이 드러났다. GDP로 대표되는 경제규모의 확대라는 요소만으로 한 사회를 가늠하는 것은 불평등이나 빈곤, 환경오염과 같은



다양한 사회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며, 살아가는 데에 정말 필요한 실질적인 요소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와 같은 여러 경험을 바탕으로 단일한 경제지표를 넘어서 삶의 질과 한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모두 포괄하는 지표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시민의 삶의 질을 한 눈에 보여주는 지표로서 어떤 영역에서 삶의 질이 개선 또는 악화되었는지,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영역과 당면한 해결과제는 무엇인지를 제시하기 위해, 시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전체적인 삶의 질을 종합하여 우리가 처한 상태를 집약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시도가 많은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예로 2000년대 후반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에 의해 구성된 스티글리츠 위원회에서 사회발전 측정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여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을 모두 포괄하는 새로운 지표체계를 제안한 바 있다 (Stiglitz et al., 2009). 또한 OECD에서도 2011년, 50주년을 맞아 Better Life Initiative를 시작하면서 How's Life Index를 통해 삶의 질에 대한 광범위한 비교를 하기 시작했다. 이는 캐나다 웰빙지수, 부탄의 국민행복지수, 네덜란드의 삶의 질 지표, 일본의 생활개혁지수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때 삶의 질(quality of life)은 삶의 양(quantity of life)에 대비되는 뜻으로써 인간의 삶을 더욱 값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삶이 값지고 좋은 삶인가에 대한 규범적인 질문과 관련된다. 삶의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 요인들뿐만 아니라 주관적 느낌과 만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삶의 질을 질문하고, 행복한 삶, 좋은 삶이 무엇인지를 묻게 됨으로써 우리 사회는 복지, 행복, 만족감, 웰빙의 개인적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의 질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평등, 연대와 같은 공동체적 가치와 질, 특징 역시 핵심적인 사회지표로서 끌어들이 수 있었다(한준 외, 2011).

#### (4) '미래'라는 시간을 전망하는 지표

위와 같은 의미에서 행복, 삶의 질 등의 지표는 여전히 우리 사회를 진단하기 위한 주요한 방법 중 하나이지만, 한편으로 이들 지표는 '미래'라는 관점을 직접적으로 포함하지는 않는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사람들이 느끼는 자신과 사회에 대한 미래전망은, 현재 느끼는 행복과는 별개의 차원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희망적인 사람이 현재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행복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사회전반적인 분위기와 지배적인 담론에 따라서 희망적이라고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베이비붐세대는 젊은 세대에 비해 '노오력의 배신' 보다는 '노력의 결실'을 맞본 세대이다. 한국에서 객관적인 삶의 조건이 힘들고 빈곤한 사람일지라도 현재 고생해서 나중에 잘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 즉 자신에게 기회가 열려있다고 믿는다면 이 역시 희망적일 수 있다. 즉, 행복과 삶의 만족은 현재 또는 과거형이 될 수밖에 없는 반면, 희망은 미래의 행복에 대한 전망인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시민들의 자신의 삶과 사회에 대한 기대와 전망을 살펴보기 위해 '미래'라는 시간적 관점을 도입하고, '희망'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동안 국가미래지수(SOFI; State Of Future Index) 등 미래에 대한 전망을 측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이 역시 몇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SOFI의 미래예측 방법은, 사람들의 주관적 의식을 측정하거나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중대한 결함을 지닌다. 미래지수는 미래전망에 주로 객관적인 통계지표만으로 데이터를 의존했기 때문에 국제비교적 관점에서 살펴봤을 때, 한국의 미래가 매우 밝다고 결론 내리게 되어있다. 이는 2016년 현재 시민이 느끼는 주관적인 인식과 감정 등 한국 상황과 맞지 않는 측면이 존재한다.

#### (5) 현재와 미래의 연결고리

'희망'은 단순히 미래에 관련된 것만이 아니다. 미래에 대한 사람들의 주관

적 의식, 인지, 선호에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희망제작소의 ‘시민희망 인식조사’에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현재’의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주관적’ 웰빙의 측면과 자신의 상황이 ‘미래’에는 더 나아질 것인가에 관한 인식 측정을 포함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희망을 살펴보기 위해 각 개별 주체들의 고도로 주관적인 체험과 의식에 근거하는 희망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우리는 개념 정의를 위해 김홍중(2015)의 “꿈-자본” 개념과 블로흐의 『희망의 원리』를 주요하게 이론적으로 참조하고 활용했다.

먼저, 김홍중(2015)은 희망과 유사한 ‘꿈’이라는 개념을 이론화하면서, 우리가 희망과 꿈이라는 단어를 사회적 행위자들이 품고 있는 미래에 대한 세계관, 행동의 원리라는 의미로 더욱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김홍중에 의하면 ‘꿈’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상상적으로 투사된 자아상과 세계상, 은밀한 욕망이나 비원, 향후에 성취하기를 갈망하는 개인·가족·조직·국가의 이상적 상태, 문화적 판타지와 선망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 연구와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한 점은, 이런 꿈들을 경험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쉬운 과제가 아니며 또한 용어 자체가 정의적 명료함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리키는 현실이 불확실하다는 난점에도 불구하고, 꿈이 “사회적 리얼리티를 구성하는 힘”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꿈과 희망은 단순히 개인적인 바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변화의 기반이 되는 행동과 실천을 구성하는 실질적인 힘이 있다는 것이다.

희망에 내재된 의미구조와 희망이 사람들에게 발휘하는 심리, 사회, 문화, 정치적 효과에 주목해보면, 꿈과 희망은 개인의 행동과 실천에 방향과 의미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즉, 우리가 지금 무언가를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의 의미는 이 실천이 끝날 미래의 어떤 ‘희망적’ 상황을 준거로 구성되는 것이며, 이러한 현재와 미래의 차이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이때 희망은 성공의 개연성이 높은 사태들에 대해 품게 되는 낙관적 감정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희망은 자신을 부정하는 사건들(절망, 고통)을 딛고 넘어서는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자신의 구성요소로 갖는다(Crapanzano,

2003:15, 김홍중, 2015:42에서 재인용). 그래서 희망은 절망과 대립한다기보다는 절망적 체험의 한복판에서 의연하게 솟아나는 것에 가깝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낙관주의 없는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희망은 “그림에도 불구하고”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김홍중에 의하면, 희망이라는 감정은 행위자가 욕망하는 상태를 실현시키기 위한 실천들을 강화시키고 이를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블로흐의 희망 개념을 활용하여 연구진은 희망에 대한 관점을 “더 나은 삶에 대한 꿈”으로 확장하고자 한다. 이때의 꿈은, 무의식적 세계인 ‘밤꿈’이 아니라 ‘낮에 꾸는 꿈’이다(블로흐, 2004). 각자 꾸는 밤꿈과는 달리 낮꿈은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과 함께 꾸는 것이므로, 희망은 단순히 뭔가를 바라는 상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과 책임, 그리고 성찰을 동반하는 꿈을 의미한다.<sup>6)</sup>

## 2) 본 연구에서의 정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희망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희망’을 “나 자신의 삶과 내가 속한 사회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힘과 변화에 대한 기대”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렇게 희망을 정의했을 때 비로소 개인적 욕망을 넘어서는 희망의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1등만

---

6) 희망이 모순되고 어려운 과제인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희망은 '깨어있는 자들의 꿈' 즉 '낮에 꾸는 꿈'이기 때문이다. '밤꿈'은 잠을 자며 꾸는 무의식의 세계이지만 '낮꿈'은 철저한 의식의 세계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미래로 투영하는 '의식의 꿈'이 갖는 지난함이 여기에 있다. 현대 철학에서는 '희망의 원리'를 주창한 에른스트 블로흐가 낮꿈의 의미를 유토피아 사상과 연관 지었다. 낮꿈이란 '스스로 이루지 못하는 불가능성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낮꿈의 현상은-밤꿈의 정신분석학적 해석이 의도하는 성적이고 심리적인 차원을 넘어서-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차원으로 확장한다. 낮꿈은 자아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좀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하려는 사람들의 고결한 갈망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밤꿈은 각자 꾸지만, 낮꿈은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과 함께 꾸는 것이다. 가족의 희망, 나라의 희망 등이 그렇다. 공동체의 낮꿈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의식을 심어줄 수 있어서 힘을 더욱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낮꿈은 뭔가 바라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구체적인 실천과 책임 그리고 반성을 동반하는 어려운 꿈이다. 이것이 낮꿈의 양면성이다(김용석, 2005)

살아남고 아무도 행복할 수 없는 한국사회의 경쟁구조와 만연해 있는 욕망의 논리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희망은 단순히 '나'의 삶이 더 좋아지길 바라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 연구는 희망은 개인화되어서는 안 되며,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적 토대에 기반 해야만 한다는 관점에서 진행한다.

## 2. 측정 방법

### 1) 희망에 대한 설문조사

앞서 살펴본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희망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고자 한다. 조사설계를 위한 희망의 구성요소 및 정의를 재차 밝히면, 이 연구에서는 희망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희망을 “나 자신의 삶과 내가 속한 사회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힘과 변화에 대한 기대”로 명확하게 정의한다.

본 연구의 조사영역은 크게 세 개의 부문으로 구성된다. 개인적 삶에서의 희망인식 부문, 우리사회의 전반적 희망인식 부문, 우리사회의 다양한 차원에 대한 전망 부문이다. 이러한 세 부문은 현재 상태에 대한 태도, 정도, 인식과 미래에 대한 전망 인식 등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진다.

시민희망지수는 Part1 향후 삶의 희망인식(10점 척도)과 Part2 향후 사회 희망인식(10점 척도)을 통해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민희망인식조사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1] 시민희망인식조사 조사내용

조사영역		측정항목	
Part 1	개인적 삶에서의 희망인식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희망을 들었을 때, 연상되는 단어</li> <li>• 개인 삶의 희망에 대한 태도</li> <li>• 개인 삶의 각 부분별 만족도</li> <li>• 현재 삶의 만족도</li> <li>• 향후 삶의 희망인식</li> <li>• 희망적 삶을 사는데 영향을 미치는 부분별 영향도</li> <li>• 시민참여활동 적극도</li> <li>• 이웃주민과의 교류 수준</li> <li>• 소속된 사회계층</li> </ul>
		미래	
Part 2	우리사회의 전반적 희망인식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 사회에 대한 인식</li> <li>• 향후 사회 희망인식</li> <li>• 희망이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li> </ul>
		미래	
Part 3	우리사회의 다양한 차원에 대한 전망	미래	<p><b>[정 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정치상황 전망</li> <li>• 시민들이 사회적 이슈에 참여하는 수준</li> <li>• 정부운영의 투명성, 효율성, 신뢰성 수준</li> <li>• 향후 남북한 관계 진전 수준</li> </ul> <p><b>[경 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경제상황 전망</li> <li>• 일자리의 질</li> <li>• 소득과 부의 불평등 및 빈곤</li> <li>• 근무시간</li> </ul> <p><b>[사 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의 발달이 삶에 미치는 영향</li> <li>• 복지혜택 수준</li> <li>• 출산율</li> <li>• 공교육(학교교육)의 중요성</li> <li>• 사회 내 다양성 중시하는 수준</li> <li>• 환경문제 개선도</li> <li>• 향후 전반적인 사회여건 전망</li> <li>• 시민단체와 시민사회활동가들의 활동 기여도</li> </ul>

## 2) 설문문항 구조

한국사회라는 차원에서 희망에 다양하게 접근하기 위해 앞에서 살펴본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영역별로 다음과 같이 접근하고자 한다.

- ◎ 정치  
정치상황 전망, 참여수준, 정부운영 신뢰 수준, 남북관계 전망
- ◎ 경제  
경제상태, 소속된 사회계층, 경제상황 전망, 일자리 질, 사회양극화, 노동시간
- ◎ 사회  
기술의 발달이 삶에 미치는 영향, 복지혜택 수준, 출산율, 공교육 정상화, 다양성 존중, 환경문제, 기후변화, 사회전반적여건 전망, 민주주의, 불공정한 경쟁, 사회적 갈등
- ◎ 공동체 및 지역사회  
이웃과의 교류, 시민참여활동
- ◎ 시민사회  
시민단체와 시민사회활동가들의 활동에 대한 기대와 신뢰

이러한 영역별 구분은 기존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다양한 지수 연구를 참고했다(아래 목록 및 표 참조). 이 연구는 경제적 조건을 경제 상태와 소속된 사회계층으로 묶고, 또한 교육, 정치, 환경, 문화(여가), 공동체 영역을 모두 포괄하여 영역별 구성을 하고자 했다.

- 캐나다의 웰빙지수(CIW; Canadian Index of Wellbeing) :  
생활수준, 건강, 공동체 활력, 민주적 참여, 여가와 문화, 시간사용, 교육, 환경
- 부탄의 국민총행복지수(GNH) :  
심리적 웰빙, 시간활용, 지역사회생명력, 문화, 보건, 교육, 생태계, 생활

- 수준, 좋은 거버넌스
- 호주진보척도(MAP; Measures of Australia's Progress)<sup>7)</sup> :
    - 사회 - 건강, 교육과 훈련, 일, 범죄, 가족/지역사회/사회적 결속력, 민주주의/국정운영/시민권
    - 경제 - 국민소득, 국부, 세대별 경제적 안녕, 주택, 생산성
    - 환경 - 생물 다양성, 땅, 담수, 바다/하구 퇴적지, 대기, 폐기물
  - 한국 통계청 삶의 질 :
    - 주거/교통, 소득/소비, 노동, 건강, 교육, 사회통합, 가족, 문화/여가, 안전, 환경
  - OECD How's Life :
    - 삶의 만족, 주거/소득/일자리, 건강, 교육, 공동체, 일-삶 균형, 거버넌스, 안전, 환경

[표 2-2] 시민희망지수와 각 지수 연구에서 영역 구분 비교

본 연구의 영역 구분	캐나다 웰빙지수	부탄 행복지수	호주 진보척도	삶의 질 (한국)	OECD
경제상태와 소속 사회계층	생활수준	생활수준	경제	주거/교통, 소득/소비, 노동	주거/소득/일자리
사회	건강	보건	사회	건강	건강
사회(환경)	환경	생태계	환경	환경	환경
사회(교육)	교육	교육	사회	교육	교육
공동체 지역사회	공동체 활력	지역사회 생명력		사회통합, 가족	공동체
정치(시민참여)	민주적 참여	좋은거버넌스			거버넌스
경제(근로시간)	여가와 문화	문화		문화/여가	일-삶 균형
	시간사용	시간활용			
삶의 만족		심리적 웰빙			삶의 만족
				안전	안전

한준 외(2011)에서 재구성.

7) 호주진보척도는 진보(progress)의 최종적 의미와 정의를 내리는 주체가 호주 통계청이 아닌, 호주 국민이라는 열린 입장임. 진보가 호주의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삶의 영역 간 복잡한 상호작용을 강조함. 이러한 입장은 '시민희망지수' 개발에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해줄 것으로 보임.



### III. 2016

## 시민희망인식조사 결과

1. 조사개요
2. 개인 삶에서의 희망인식
3. 우리 사회에서의 희망인식

### III. 2016 시민희망인식조사 결과

#### 1. 조사개요

##### 1) 조사목적

본 조사는 현재 시민들이 개인적 삶에서 느끼는 희망과 사회 전반에서 느끼는 희망을 알아보고 더불어 사회의 다양한 차원에 대한 전망을 조사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사회 속 '희망'의 의미와 방향을 찾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 2) 조사설계

시민희망인식조사 설계는 다음과 같다.

[표 3-1] 시민희망인식조사 조사설계

구 분	조사 설계
조사대상	전국 15세 이상 남녀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조사(Email 조사)
표본크기	총 1,000 샘플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pm 3.1\%p$
조사일자	2016년 9월 1일(목) ~ 6일(화), 총 6일 간
표본추출	성/지역/연령별 비례 할당 추출
수행기관	(주)원지코리아컨설팅

##### 3) 조사내용

본 조사는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개인적 삶에 대한 희망인식, 두 번째는 우리사회에 대한 전반적 희망인식, 세 번째는 사

회의 다양한 차원에 대한 희망인식이다. 세부 측정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3-2] 시민희망인식조사 세부항목

조사영역	측정항목
Part 1 개인적 삶에서의 희망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희망을 들었을 때, 연상되는 단어</li> <li>• 개인 삶의 희망에 대한 태도</li> <li>• 개인 삶의 각 부분별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상태, 사회적 지위</li> <li>- 가족/지인들과의 정서적 교류</li> <li>- 사회적 기여와 주위의 평가</li> <li>-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삶</li> </ul> </li> <li>• 현재 삶의 만족도</li> <li>• 향후 삶의 희망인식</li> <li>• 희망적 삶을 사는데 영향을 미치는 부분별 영향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고난 재능</li> <li>- 개인의 노력</li> <li>- 부모(가족)의 경제력과 인맥</li> <li>- 사회제도, 정책</li> <li>- 우연, 행운적 요소</li> </ul> </li> <li>• 시민참여활동 적극도</li> <li>• 이웃주민과의 교류 수준</li> <li>• 소속된 사회계층</li> </ul>
Part 2 우리사회의 전반적 희망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 사회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갈등</li> <li>-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li> <li>- 사회 양극화</li> <li>- 불공정한 경쟁</li> </ul> </li> <li>• 향후 사회 희망인식</li> <li>• 희망이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li> </ul>
Part 3 우리사회의 다양한 차원에 대한 전망	<p><b>[정 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정치상황 전망</li> <li>• 시민들이 사회적 이슈에 참여하는 수준</li> <li>• 정부운영의 투명성, 효율성, 신뢰성 수준</li> <li>• 향후 남북한 관계 진전 수준</li> </ul> <p><b>[경 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경제상황 전망</li> <li>• 일자리의 질</li> <li>• 소득과 부의 불평등 및 빈곤</li> <li>• 근무시간</li> </ul> <p><b>[사 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의 발달이 삶에 미치는 영향</li> <li>• 복지혜택 수준</li> <li>• 출산율</li> <li>• 공교육(학교교육)의 중요성</li> <li>• 사회 내 다양성 중시하는 수준</li> <li>• 환경문제 개선도</li> <li>• 향후 전반적인 사회여건 전망</li> <li>• 시민단체와 시민사회활동가들의 활동 기여도</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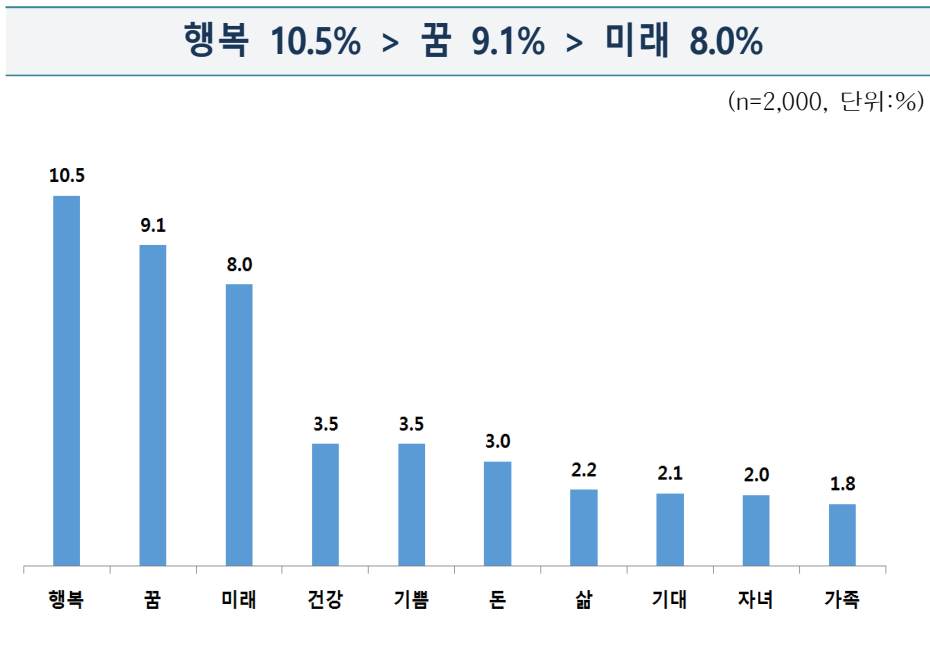
#### 4) 응답자 특성

[표 3-3] 시민희망인식조사 응답자 특성

구 분		사례수 (명)	비율 (%)
전 체		1,000	100.0
성별	남성	499	49.9
	여성	501	50.1
연령대	만 15 ~ 19 세	73	7.3
	만 20 ~ 29 세	150	15.0
	만 30 ~ 39 세	170	17.0
	만 40 ~ 49 세	197	19.7
	만 50 ~ 59 세	187	18.7
	만 60 세 이상	223	22.3
지역	서울	195	19.5
	경기/인천	298	29.8
	대전/충청/세종	104	10.4
	광주/전라	103	10.3
	대구/부산/경상	255	25.5
	강원/제주	45	4.5
직업	화이트칼라	466	46.6
	블루칼라	43	4.3
	주부	166	16.6
	학생	124	12.4
	자영업/무직/기타	201	20.1
개인 희망인식	부정적	167	16.7
	보통	209	20.9
	긍정적	624	62.4
사회 희망인식	부정적	478	47.8
	보통	239	23.9
	긍정적	283	28.3
학력	고졸 이하	251	25.1
	전문대/대학 졸업	624	62.4
	대학원 이상	125	12.5
투표 참여 빈도	빠짐없이 한다	649	64.9
	되도록 한다	245	24.5
	가끔한다/없다/투표권없음	106	10.6
정치적 이념성향	진보	286	28.6
	중도	520	52.0
	보수	194	19.4
월 평균 가구소득	200 만원 이하	151	15.1
	201 ~ 400 만원	378	37.8
	401 ~ 600 만원	269	26.9
	601 만원 이상	202	20.2

## 2. 개인 삶에서의 희망인식

### 1) '희망'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연상되는 단어



'희망'을 들었을 때 연상되는 단어로 가장 많이 나온 응답은 '행복'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꿈', '미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가장 많이 응답한 단어를 살펴보면, 10대에서 30대까지는 '꿈'을, 40대는 '행복'과 '미래'를, 50대 이상에서는 '행복'을 주로 응답했다. 각 단어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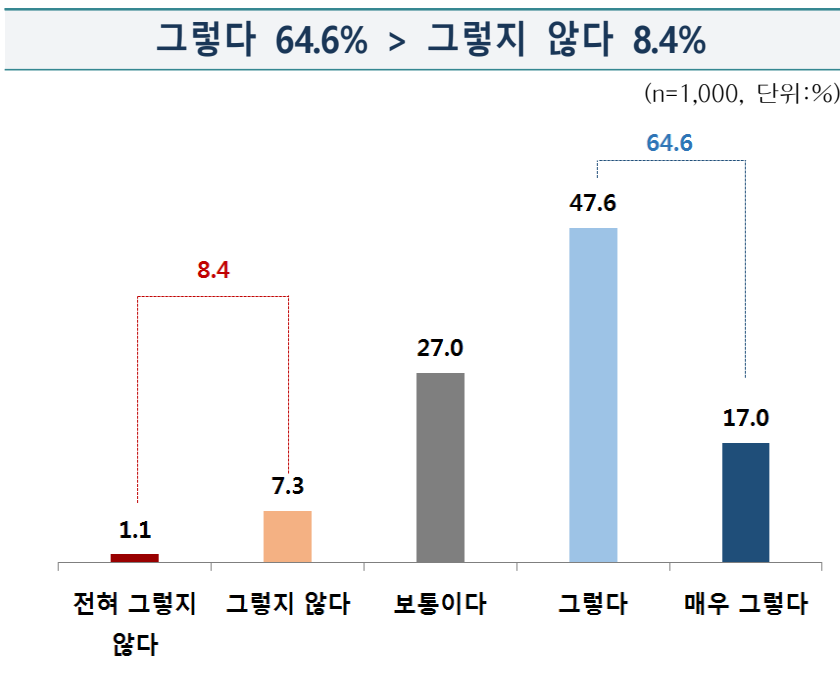
[표 3-4] 희망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연상되는 단어

긍정적 느낌 (행복, 꿈 등)	경제력 (돈, 로또 등)	사회생활 (직업, 성공 등)	사람 (여자친구, 사람이름 등)	건강 (건강, 젊음 등)	부정적 단어 (절망, 고문 등)	기타
47.0%	7.0%	5.4%	4.8%	4.0%	3.7%	28.1%

## 2) 꿈에 대한 태도

### (1) 꿈에 대한 희망

- 나는 내 꿈을 이루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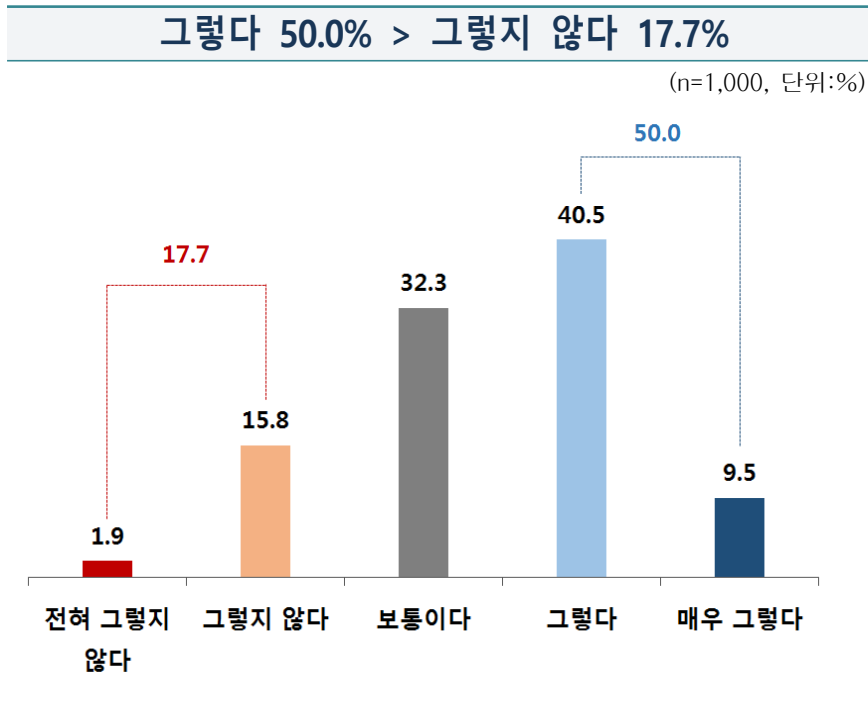


꿈을 이루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시민 10명 중 6명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10명 중 1명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긍정적 응답은 ‘개인 희망인식’과 ‘현재의 삶 만족도’가 높을수록, ‘개인의 노력’을 희망적인 삶을 사는데 큰 요소로 꼽은 사람일수록 높게 나타난다.

‘사회 희망인식’과 ‘정치상황 전망’, ‘경제상황 전망’, ‘전반적 사회여건 전망’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인식이 높은 층에서 희망이 있다는 응답이 높다. 소득별로 살펴보면, 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꿈을 이루겠다는 희망이 있다’고 응답했다.

## (2) 꿈의 실현에 대한 희망

- 나는 희망하는 꿈 상당수를 실제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희망하는 꿈 상당수를 실제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시민 10명 중 5명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10명 중 2명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소득이 낮을수록, 현재의 삶 만족도가 낮을수록 부정적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앞의 '희망을 갖고 있다'는 응답에 비해 '꿈의 실현 가능성'의 긍정 응답이 14.6%p 줄어들었다. 특히, '부모의 경제력과 인맥'을 희망적인 삶을 사는데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보는 계층과, 정치상황 · 경제상황 · 전반적 사회여건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계층에서 크게 하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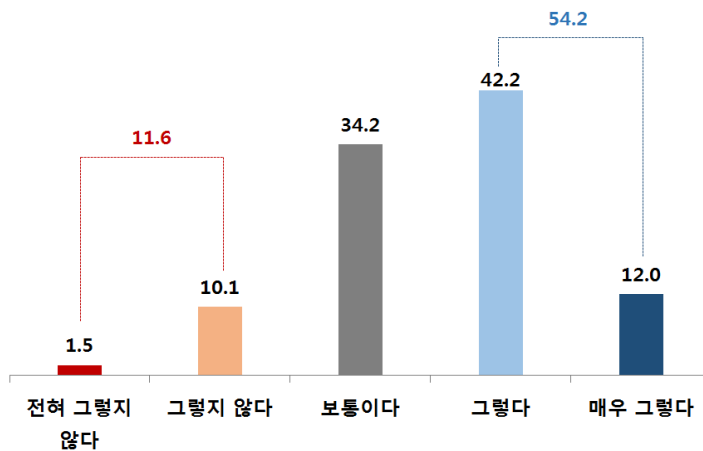


### (3) 꿈의 실현을 위한 노력 여부

- 나는 희망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렇다 54.2% > 그렇지 않다 11.6%**

(n=1,000,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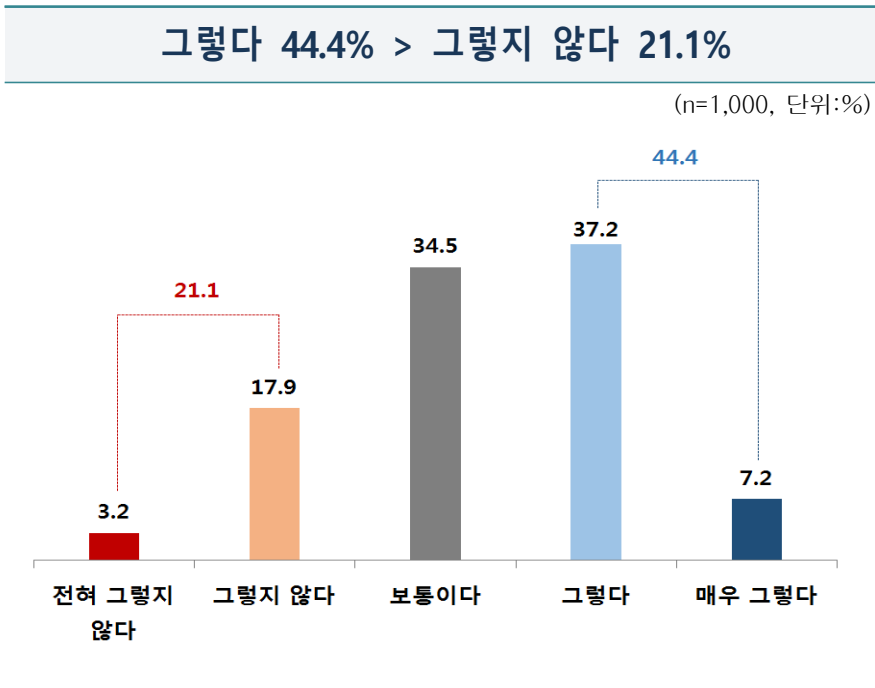
희망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응답자의 54.2%는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11.6%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그렇다'는 응답은 5060 고령층에서 특히 높고, 개인 희망인식과 사회 희망인식이 긍정적인 계층에서, 월 가구소득의 고소득 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희망적인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부모의 경제력과 인맥'으로 보는 계층은 '노력하고 있다'는 응답(41.4%)에 비해 '실현가능성'(32.1%) 인식이 더 낮게 나타났다.

#### (4) 희망에 대한 소통 여부

- 나는 내 희망에 대해서 가까운 사람들과 이야기를 자주 나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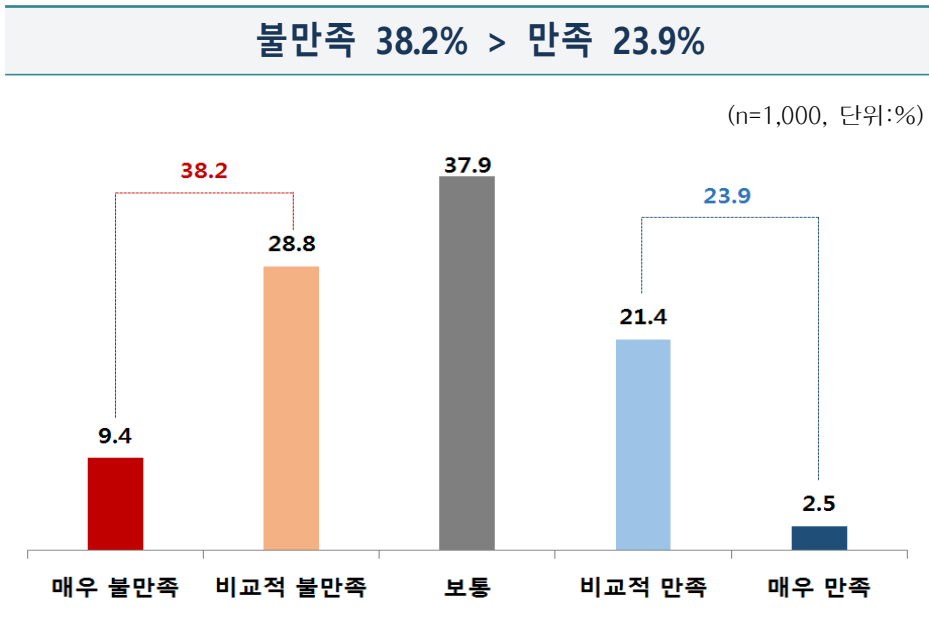
희망에 대해 가까운 사람들과 자주 이야기를 나누는가에 대한 물음에 ‘그렇다’라는 응답이 44.4%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에 비해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15~19세 계층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31.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청소년층에서의 희망에 대한 소통의 단절을 보여준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현재 삶 만족도가 높을수록 ‘소통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 3) 분야별 삶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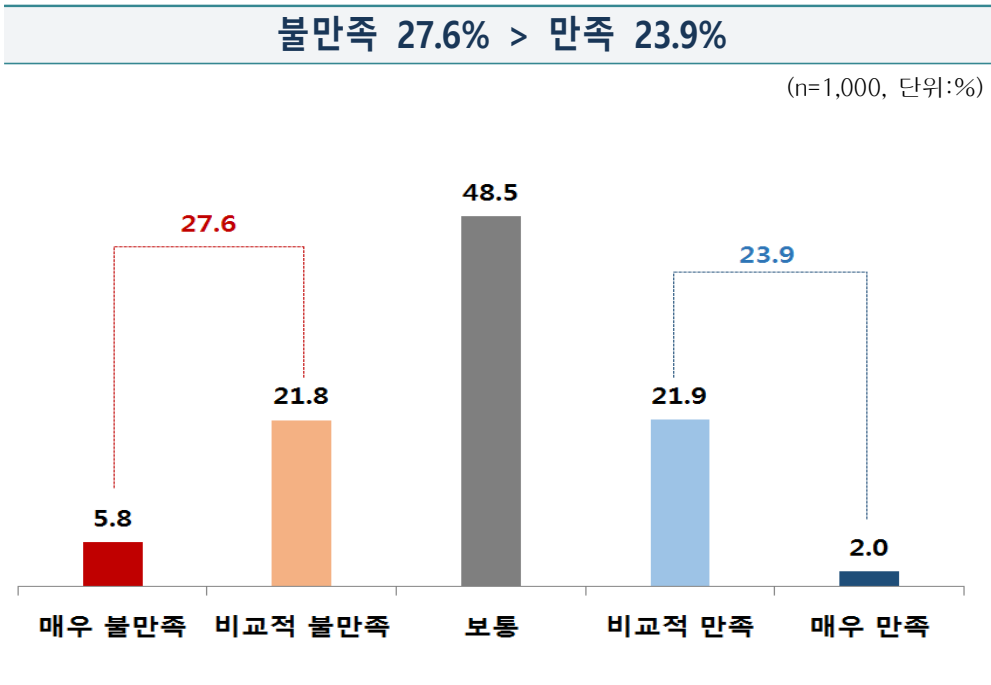
#### (1) 경제상태 만족도



현재 자신의 경제 상태에 '만족한다'는 의견은 23.9%에 그친 반면, '불만족한다'는 의견은 38.2%로 14%p 가량 더 높게 나타났다. 5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로는 경제 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2.79점으로 나타났다.

5점 만점으로 환산할 때, 서울·경기·인천 등의 수도권 지역의 만족도가 수도권 이외의 지역보다 낮게 나타나, 수도권 거주자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반영함을 알 수 있다. 소득별로는 고소득 계층일수록 경제적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 (2) 사회적 지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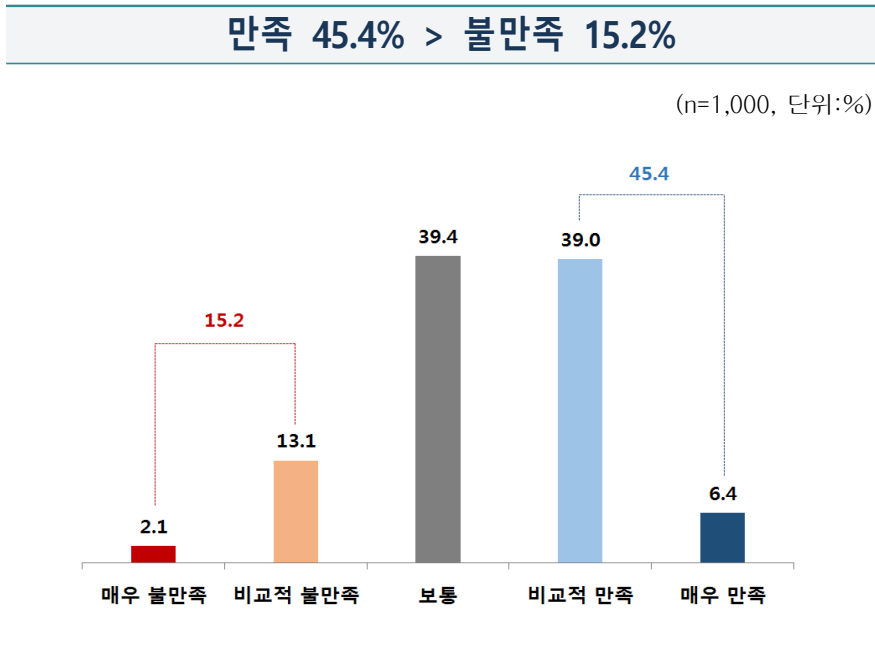


현재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만족하는가에 대해 '불만족한다'가 27.6%, '만족한다'가 23.9%로 불만족 의견이 다소 높다. 5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는 2.93 점이다.

경제 상태 만족도(2.79점)에 비해 사회적 지위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경제상태 만족도와 마찬가지로 수도권 지역의 만족도보다 비수도권 지역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아 사회적 지위에 대한 만족감 차이를 보인다.

'경제 상태 만족층'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70% 이상이 만족하나, '경제 상태 불만족층'은 6.8%만 사회적 지위에 만족한다.

(3) 정서적 교류 만족도 : 가족, 지인들과의 정서적 교류



가족, 지인들과의 정서적 교류에 대한 만족에 대해 45.4%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분야별 만족에 대한 질문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경제상태/사회적 지위’에 대한 만족도에 비해 ‘정서적 교류/사회적 기여/원하는 것을 이루는 삶’ 만족도는 소득수준에 따른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인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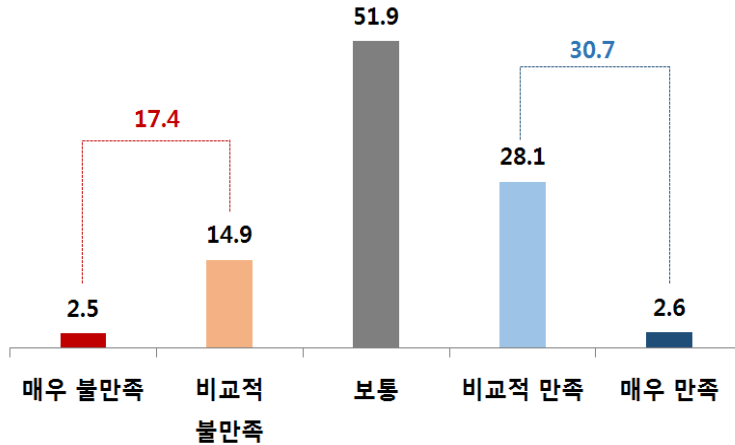
[표 3-5] 분야별 삶의 만족도 (5점 척도)

월 평균 가구 소득	경제상태 만족도	사회적 지위	정서적 교류	사회적 기여/평판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삶
200만 원 이하 (1)	2.48	2.48	3.02	2.86	2.75
201~400만 원	2.84	2.84	3.30	3.04	2.87
401~600만 원	3.02	3.02	3.40	3.22	3.10
601만 원 이상 (4)	3.28	3.28	3.59	3.41	3.28
격 차 (4)-(1)	0.8	0.8	<b>0.57</b>	<b>0.55</b>	<b>0.53</b>

(4) 사회적 기여와 주위 평가 만족도 : 사회적 기여와 주위의 평가

**만족 30.7% > 불만족 17.4%**

(n=1,000, 단위:%)



사회적 기여와 주위의 평가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의견이 불만족 의견보다 13.3%p 높아,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더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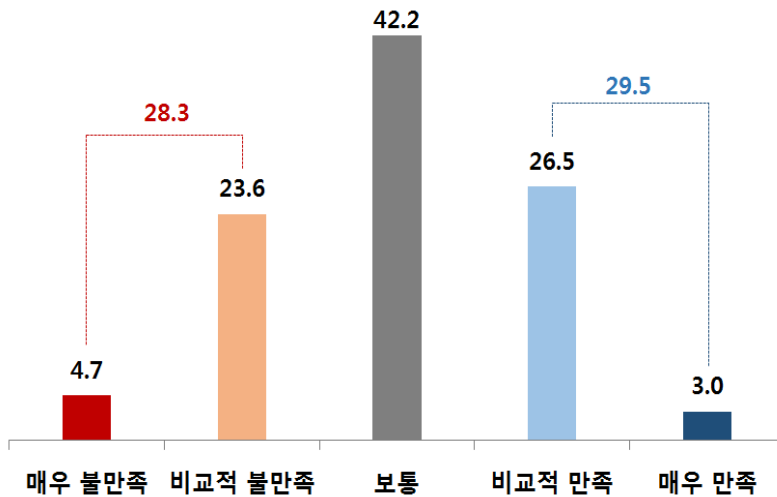
연령별로는 사회적 성취를 이룬 계층인 5060세대에서의 만족감이 그 이전 세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직업적으로는 화이트칼라와 주부층에서 만족감이 높은 반면, 블루칼라 계층에서는 사회적 기여와 평가에 대한 만족감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삶에 대한 만족도 :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삶

만족 29.5% > 불만족 28.3%

(n=1,000,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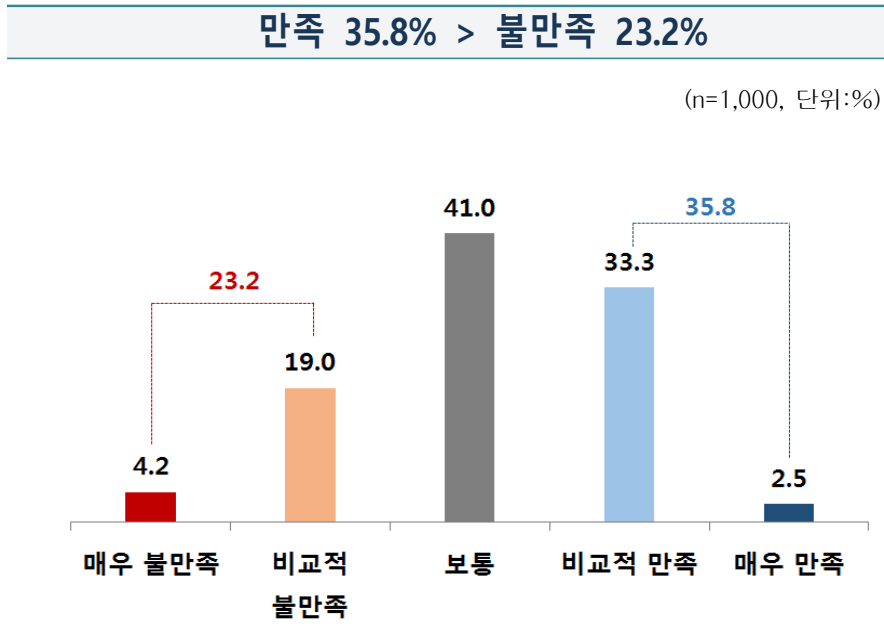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삶에 대해 28.3%의 응답자는 '불만족한다'고 답한 반면, 29.5%의 응답자는 '만족한다'고 답해 만족도 수준은 비등하게 나타났다. 5점 만점 환산 시, '보통'에 해당하는 점수(3.00점)이다.

연령별로는 5060 고령층에서의 만족도가 특히 높아, 이들 세대가 이후 세대에 비해 자신의 삶에 대해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삶을 살아온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직업별로는 직장인 계층(화이트칼라, 블루칼라)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삶이라고 보는 시각이 비교적 낮은 편이며, 자영업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 4) 현재 삶의 만족도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는 의견이 다소 높아, 5점 만점 환산 시, 평균점수는 3.11점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가 높은 5060세대와 그렇지 못한 이후 세대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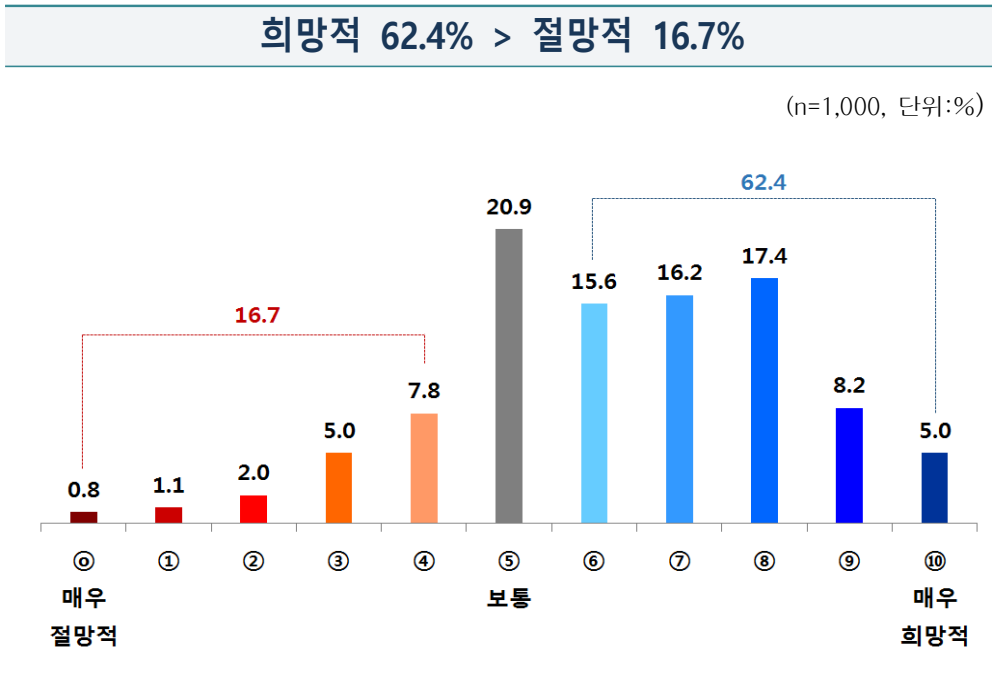
직업별로 살펴보면, 블루칼라 계층은 화이트칼라층 대비 만족도 수준이 떨어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수준이 높은 학생 계층도 만족도가 떨어진다.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삶' 만족도가 높은 자영업 계층은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도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대졸 계층(3.04점)과 수도권 거주층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기대수준이 높은 대졸/수도권층의 불만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 5) 향후 삶의 희망인식 (10점 척도)



미래의 삶이 얼마나 희망적일까에 대한 질문에 62.4%로 보통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희망적’이라고 응답한 반면, 16.7%의 응답자는 ‘절망적’이라고 응답해 전반적으로 자신의 삶을 희망적으로 보는 의견이 우세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개인 희망인식은 10점 만점 기준으로 6.26점으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현재의 삶 만족도가 낮은 수도권 거주층, 대졸층의 희망인식이 더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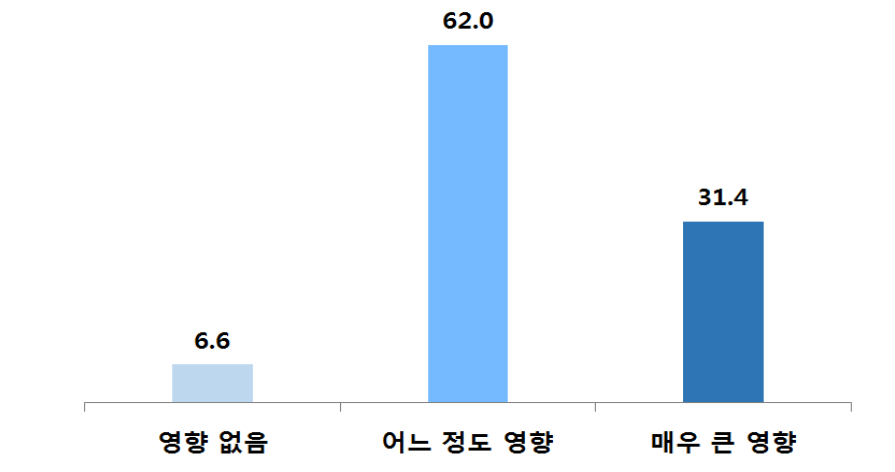
연령별로는, 현재의 만족도가 높은 5060세대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세대인 1020세대에서 높은 희망인식을 보인다. 반면, 사회·경제 활동의 중심이 되는 3040세대의 희망인식은 낮은 편이다.

## 6) 희망적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1) 타고난 재능

**매우 큰 영향 31.4% < 어느 정도 영향 62.0%**

(n=1,000, 단위:%)



‘타고난 재능’이 희망적 삶을 사는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의견은 31.4%로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보는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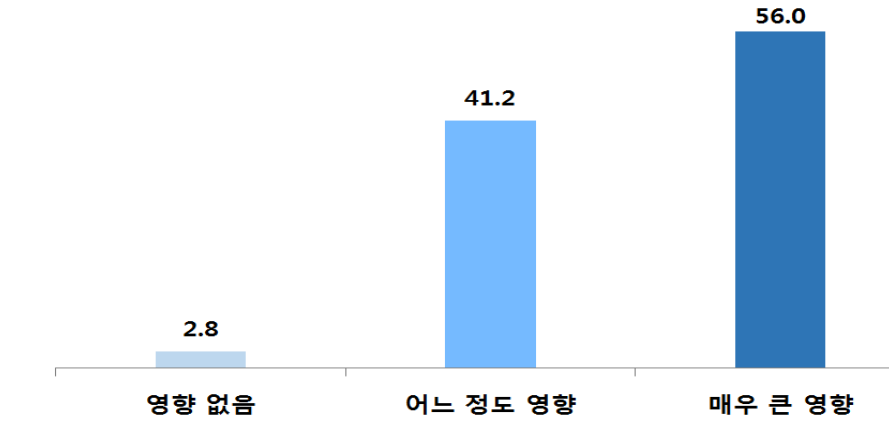
연령별로는 1020세대와 고졸 이하 계층에서 영향이 큰 편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 400만 원 이하 계층에서는 타고난 재능이 ‘매우 큰 영향’이라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401만 원 이상 고소득 계층에서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는 의견이 더욱 높다.

## (2) 개인의 노력

**매우 큰 영향 56.0% > 어느 정도 영향 41.2%**

(n=1,000, 단위:%)



‘개인의 노력’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매우 큰 영향’이라는 응답이 56.0%로 나타나, ‘노력’을 ‘희망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060세대의 고령층에서는 ‘개인의 노력’이 ‘매우 큰 영향’이라고 보는 시각이 더욱 높다. 그러나 30대 이하 계층에서는 ‘어느 정도 영향’이라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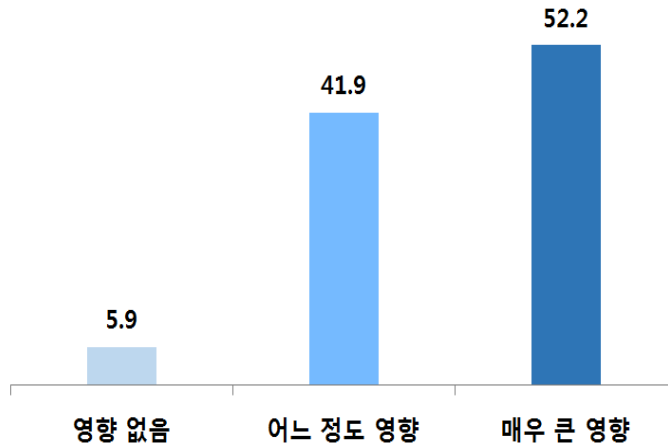
직업별로 자영업 계층에서는 노력에 대한 영향을 크게 보는 반면, 블루칼라 계층에서는 큰 영향이라고 보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소득 601만 원 이상 고소득 계층에서는 노력을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 응답이 64.4%로 특히 높아, 고소득층에서 개인의 노력에 따라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함을 알 수 있다.

### (3) 부모의 경제력과 인맥

**매우 큰 영향 52.2% > 어느 정도 영향 41.9%**

(n=1,000, 단위:%)



‘부모의 경제력과 인맥’이 희망적인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절반 이상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답해, 한국사회 ‘금수저 논쟁’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보여준다.

‘부모의 경제력 등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은 자녀세대에 해당하는 10~30대 계층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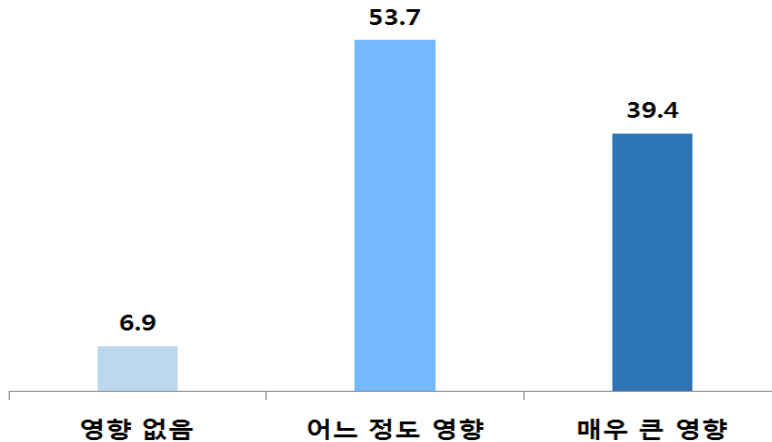
또한 이러한 인식은 직업적으로는 주부나 자영업 계층에 비해 화이트칼라, 블루칼라와 같은 직장인 계층에서 더욱 높게 나타났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영향이 크다’는 응답이 높은 것도 특징이다.

#### (4) 사회제도 · 정책

매우 큰 영향 39.4% < 어느 정도 영향 53.7%

(n=1,000, 단위:%)



‘사회제도와 정책’과 같은 사회적 요소가 희망적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39.4%가 ‘매우 큰 영향’이라고 답한 반면, 과반이 ‘어느 정도 영향’에 그친다고 답해 사회제도와 정책의 영향력을 크게 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0~30대 젊은 계층, 그 중에서도 특히 20대층에서 사회제도적 측면의 영향을 크게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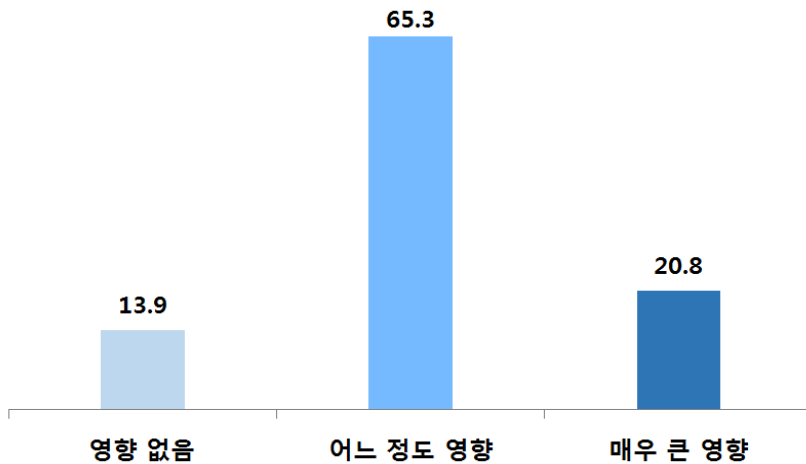
진보층에서는 사회제도적 측면이 크다고 인식하는 반면, 보수층에서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한편, 사회제도와 정책적 측면의 영향에 대해 가구소득에 따른 인식의 차이는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5) 우연 · 행운적 요소

매우 큰 영향 20.8% < 어느 정도 영향 65.3%

(n=1,000, 단위:%)



‘우연, 행운’과 같은 요소가 희망을 이루는 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은 20.8%인 반면, 65.3%가 ‘어느 정도 영향’에 그친다고 답해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상대적으로 10~20대 청년층은 우연 · 행운적 요소의 영향을 크게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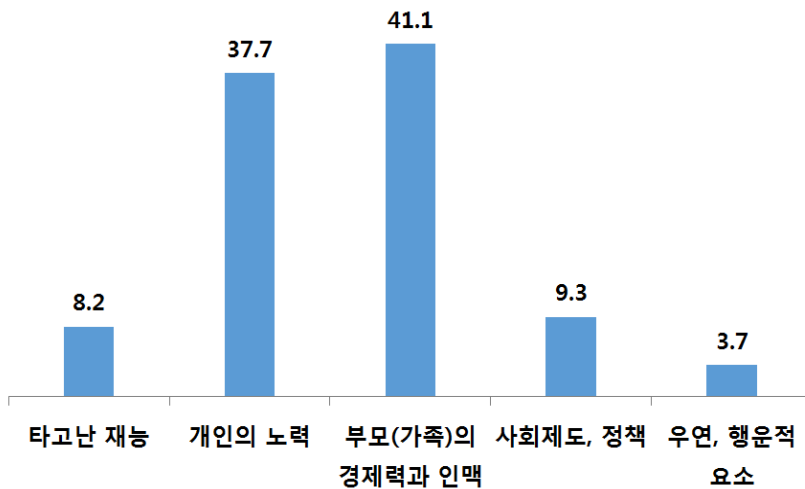
현재의 삶 만족도가 낮은 계층에서도 우연 · 행운적 요소의 영향력에 상대적으로 크게 응답했다.

한편, 가구소득의 차이에 따른 응답 격차는 나타나지 않는다.

7) 희망적 삶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

**부모(가족)의 경제력과 인맥 41.1% >  
개인의 노력 37.7%**

(n=1,000, 단위:%)



앞에서 질문한 5가지 요소 중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 고르도록 요청한 결과, ‘부모의 경제력 · 인맥’(41.1%, 이하 ‘부모’)과 ‘개인의 노력’(37.7%, 이하 ‘노력’)의 두 가지가 핵심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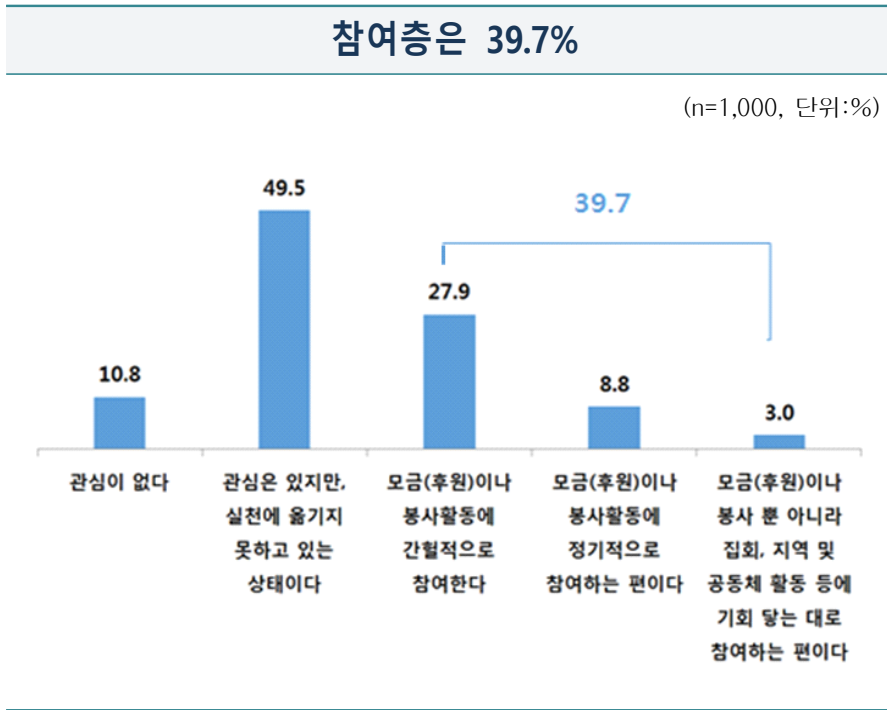
연령별로 ‘부모’ 요소는 10~40대에서, ‘노력’ 요소는 50~60대에서 더 영향이 크다고 나타나 연령별 인식차를 드러낸다.

직업별로는 ‘부모’ 요소는 직장인 계층에서, ‘노력’ 요소는 자영업 계층에서 더 높다. 서울 · 경기 · 인천과 같은 수도권 지역에서는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 ‘부모’ 요소를 더 크게 본다.

진보층에서는 ‘부모’ 요소를 더 크게 보는 반면, 보수층에서는 ‘노력’ 요소를 더 크게 응답해 이념별 인식차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현재의 삶 불만족층에서는 ‘부모’ 요소를 더욱 크게 보는 것으로 나타난다.

## 8) 시민참여활동 적극도



사회참여활동에 대해 ‘관심은 있지만,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관망층이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모금(후원)이나 봉사활동에 간헐적으로 참여’하는 간헐적 참여층은 27.9%, ‘모금(후원)이나 봉사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거나 ‘집회, 지역 및 공동체 활동 등에 기회 닿는 대로 참여하는 편’이라는 적극적 참여층은 11.8%로, 전체 참여층은 응답자의 40%에 달한다.

‘적극적 참여층’은 젊은 세대보다 5060 고령층에서 더 높고, 직장 중심인 화이트칼라보다 지역 기반 활동에 적극적인 자영업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5060 중장년층이 많이 포함된 보수층의 참여율도 진보층에 비해 높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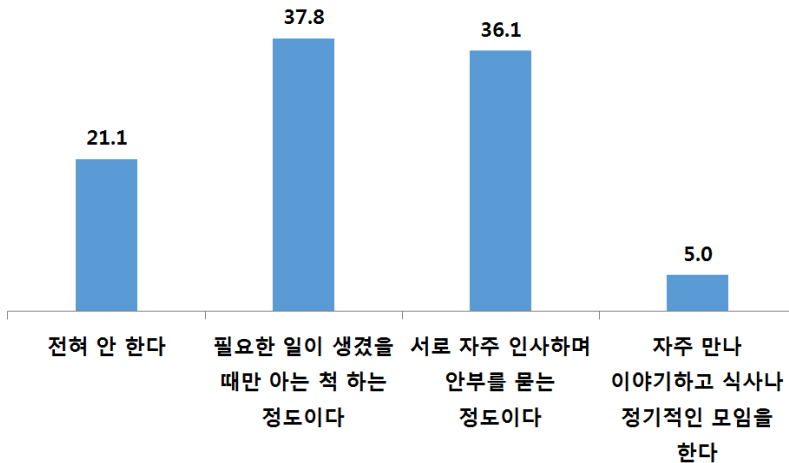
참여에 대한 잠재력이 높은 ‘간헐적 참여층’은 소득 201만 원~600만 원 이하의 중간층과 자영업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 9) 이웃 주민과의 교류 적극도

**필요한 일 있을 때만 아는 척 37.8% >  
서로 자주 인사하며 안부 묻음 36.1%**

(n=1,000,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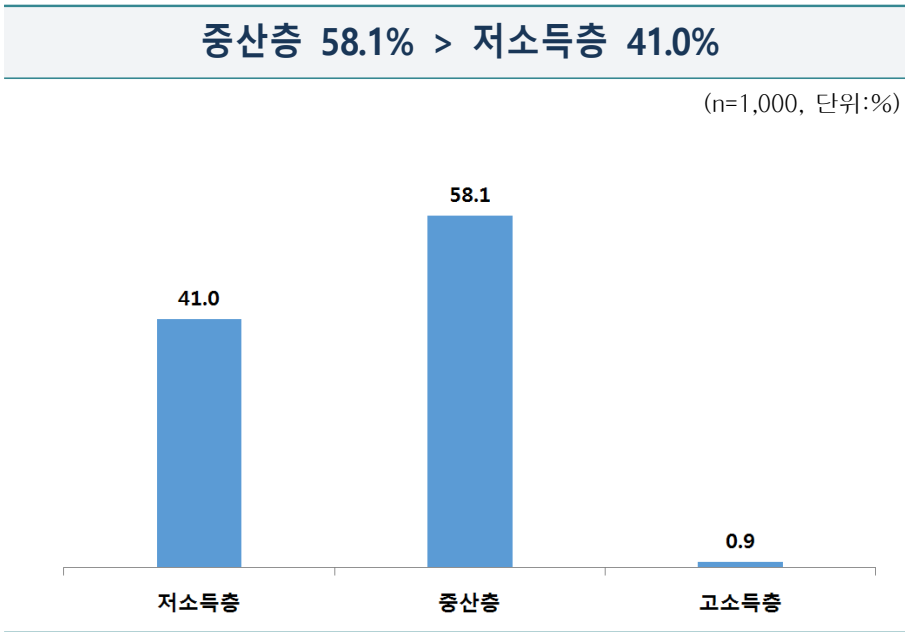


이웃 주민과의 교류에 얼마나 적극적인가에 대한 물음에 ‘필요한 일이 생겼을 때만 아는 척하는 정도’라고 응답한 소극적 교류층이 37.8% 가량이고, ‘서로 자주 인사하며 안부를 묻거나’, ‘자주 만나 이야기하고 식사나 정기적인 모임을 한다’는 적극적 교류층은 41.1%가량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류가 전혀 없는 무관심층은 21.1%이다.

‘적극적 교류층’은 자녀교육 등으로 인한 지역 내 커뮤니티가 많은 여성층과 장기거주로 지인 네트워크가 넓게 형성된 5060 고령층에서 높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이 수도권에 비해 적극적 교류층 비중이 높다.

반면, 전월세로 인한 이사가 잦은 20~40대, 수도권 거주층, 직장인층은 적극적 교류층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시민참여활동 참여층은 이웃과의 교류에 더 적극적이며, 특히 적극 참여층은 활발한 교류가 많다.

10) 귀속계층 평가 : 소속 사회계층



응답자의 58.1%는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응답한 반면, 10명 중 4명은 ‘저소득층’이라고 응답했다. 0.9%만이 ‘고소득층’이라고 응답했다.

실제 중산층에 해당하는 소득 401만 원~600만 원 계층에서도 10명 중 3명은 스스로를 ‘저소득층’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고소득층에 해당하는 601만 원 이상 계층에서도 16.3%가 ‘저소득층’ 인식을 가진다.

삶의 만족도에 따른 귀속계층 인식은 격차가 크다. 불만족층의 73.7%가 스스로를 ‘저소득층’으로, 만족층의 79.6%가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인식한다. 한편, 중산층 인식에 대한 지역차이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다.

- ※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이라는 용어 대신 ‘서민’이라는 용어를 쓸 경우, ‘서민’ 응답이 늘어나면서 ‘중산층’ 응답이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남.
- ☞ 귀속 계층에 대한 용어 사용에 따라 중산층 귀속 인식은 변화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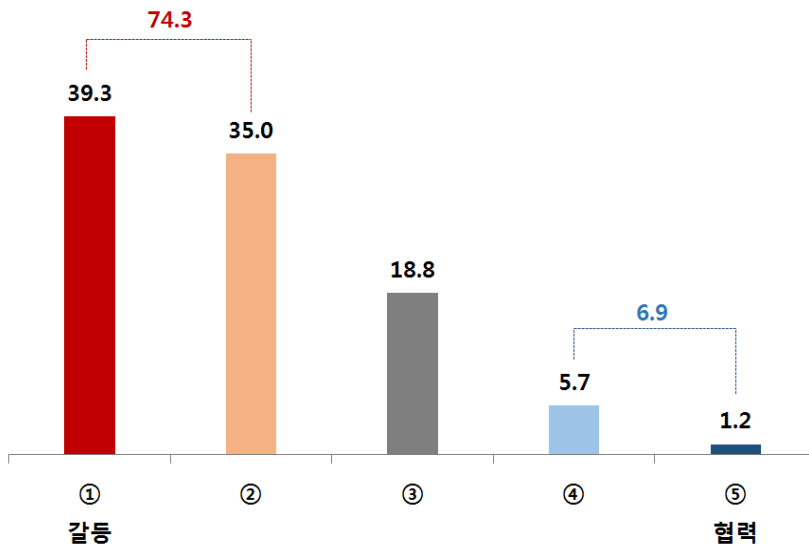
### 3. 우리사회에서의 희망인식

#### 1) 현 사회 인식

##### (1) 사회적 갈등 vs. 협력

**사회적 갈등심화 74.3% > 사회적 협력확대 6.9%**

(n=1,000,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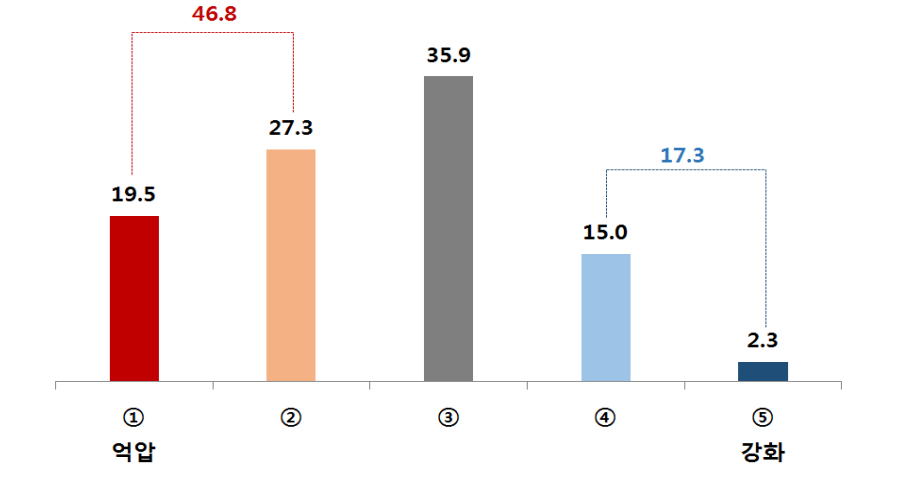
시민 10명 중 7명은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사회적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응답은 6.9%에 불과하다.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응답은 남성, 블루칼라, 개인 희망인식 부정층, 사회 희망인식 부정층, 진보층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2) 자유와 민주주의 억압 vs. 자유와 민주주의 원칙 강화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 억압 46.8% >  
자유와 민주주의 원칙 강화 17.3%**

(n=1,000, 단위:%)



‘자유와 민주주의가 억압받고 있다’는 의견이 46.8%로 ‘자유와 민주주의 원칙이 강화되고 있다’는 의견보다 높으나, 다른 진술에 비해서는 현 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4개의 진술 중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 억압’에 관한 질문은 나머지 질문들에 비해 이념계층에 따른 응답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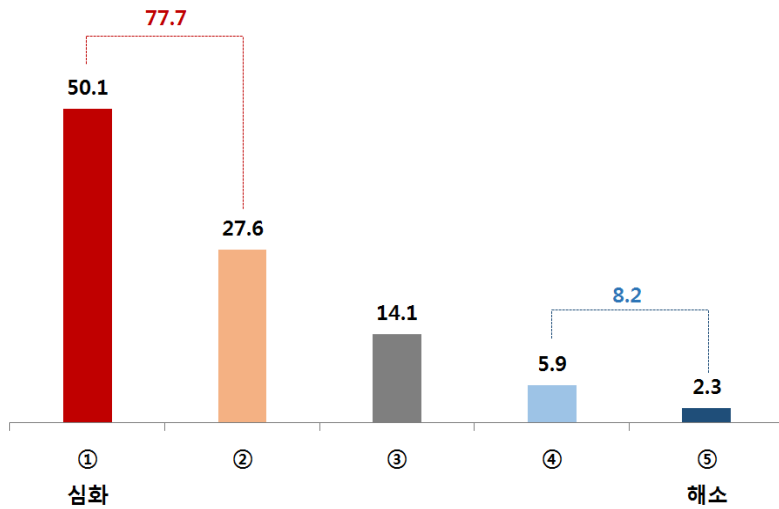
[표 3-6] 현 사회 인식 (1:부정, 3:보통, 5:긍정)

정치적 이념 성향	현 사회 인식 (1:부정, 3:보통, 5:긍정)				
	사회적 갈등/협력	자유·민주주의 억압/강화	사회양극화 심화/해소	경쟁 불공정/공정	
진보	2.48	2.17	1.64	1.71	
중도	2.84	2.57	1.89	2.02	
보수	3.02	2.97	1.94	2.21	
보수-진보 격차	0.54	0.80	0.30	0.50	

### (3) 사회양극화 심화 vs. 사회양극화 해소

사회 양극화 심화 77.7% > 사회 양극화 해소 8.2%

(n=1,000, 단위:%)



‘사회 양극화 심화’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이 77.7%로 4개 진술 중 가장 높게 응답돼 불평등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인식이 한국사회 전반에 팽배한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10대와 경제 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5060세대는 양극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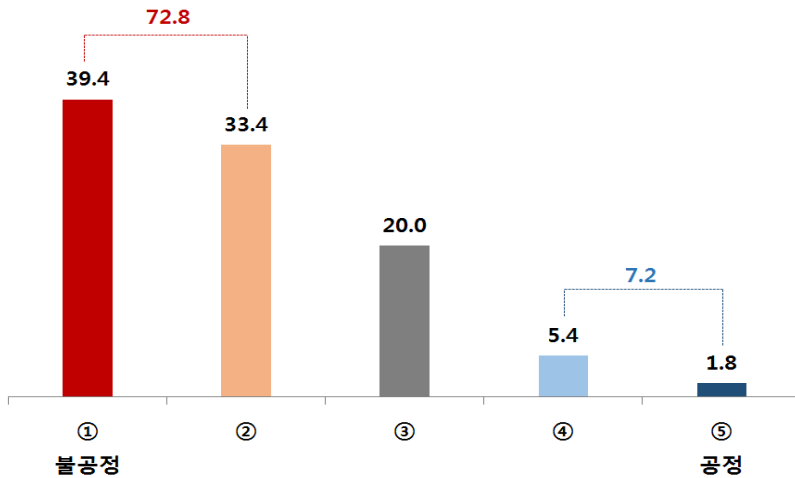
화이트칼라, 블루칼라와 같은 직장인 계층이 주부, 자영업 계층에 비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의 삶 만족도가 낮을수록, 개인 희망인식과 사회 희망인식이 낮을수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 (4) 불공정 경쟁 vs. 공정 경쟁

**불공정 경쟁 72.8% > 공정 경쟁 7.2%**

(n=1,000,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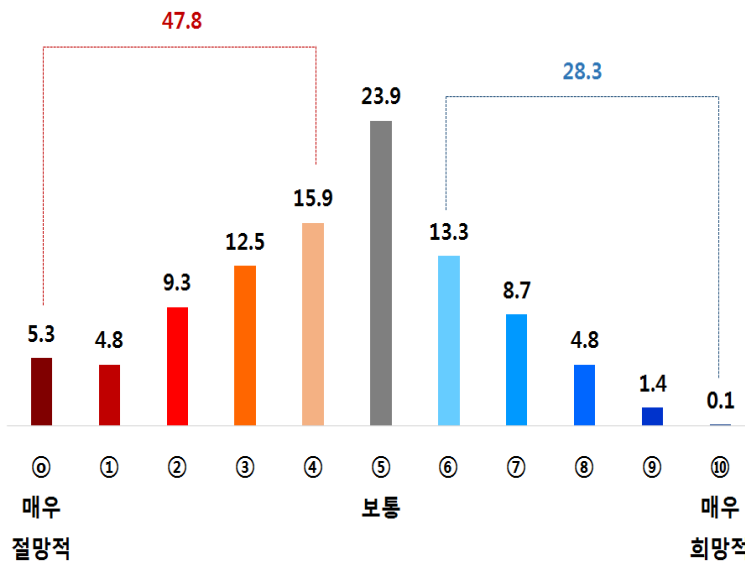
시민 10명 중 7명은 '불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라고 응답한 반면, 10명 중 단 1명만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라고 응답해 불공정한 경쟁에 대한 문제의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된 상황을 나타낸다.

불공정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의견은 희망의 중요한 요소를 '부모의 경제력', '사회제도, 정책'과 같이 사회적 요인에서 꼽는 응답층에서 특히 높다.

## 2) 향후 사회 희망인식 (10점 척도)

**절망적 47.8% > 희망적 28.3%**

(n=1,000, 단위:%)



‘우리사회가 얼마나 희망적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절망적’이라는 응답이 47.8%인 반면, ‘희망적’이라는 응답은 28.3%에 그쳐 10점 만점 척도로는 보통에 못 미치는 4.37점이다.

사회 희망인식이 개인 희망인식에 비해 더 낮아 개인과 사회를 분리해서 사회를 더욱 비관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인다(개인 6.26점 > 사회 4.37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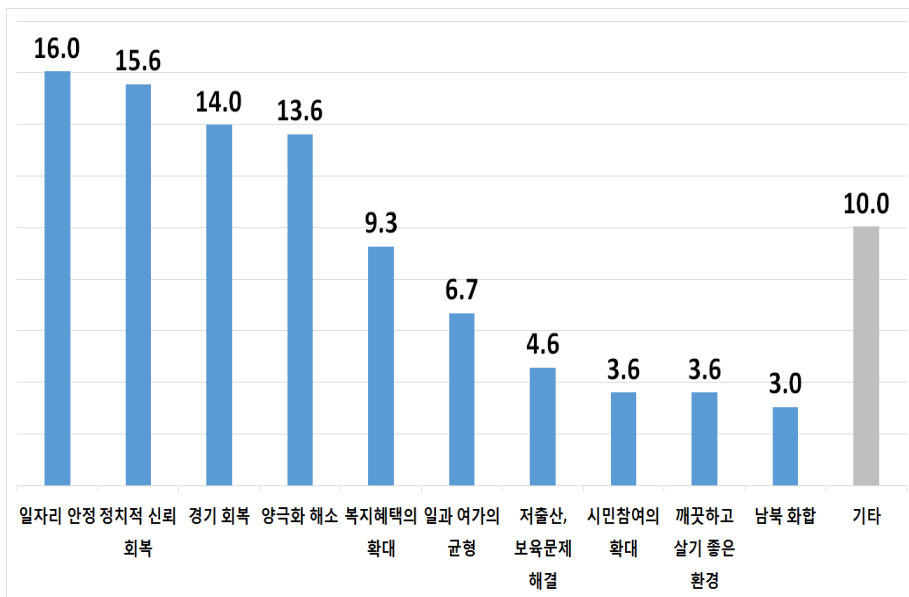
10~30대에서는 부정적 인식이 과반으로 더욱 높으나, 고령층으로 갈수록 긍정적 인식이 높아진다. 정치적 진보층은 비관적 인식이 높고, 보수층은 상대적으로 희망적 인식이 높다.

가구소득과 한국사회의 희망 사이에 큰 연관은 나타나지 않고, 이념적 틀에 따른 사회 희망인식에 차이가 나는 것이 특징이다.

### 3) 희망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

**일자리 안정 16.0% > 정치적 신뢰 회복 15.6%**  
**> 경기회복 14% > 양극화 해소 13.6%**

(n=2,891<sup>8</sup>), 단위:%)



시민들은 앞으로 희망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일자리 안정’, ‘정치적 신뢰 회복’, ‘경기 회복’, ‘양극화 해소’를 고루 응답했다.

‘일자리 안정’은 취업에 대한 걱정이 많은 1020세대와 자녀 취업의 고민이 많은 주부, 여성층과 가구소득 200만 원 이하 저소득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정치적 신뢰회복’은 5060 고령층에서 높고, ‘경기회복’은 50대에서 높다.

‘양극화 해소’는 40대, 정치적 진보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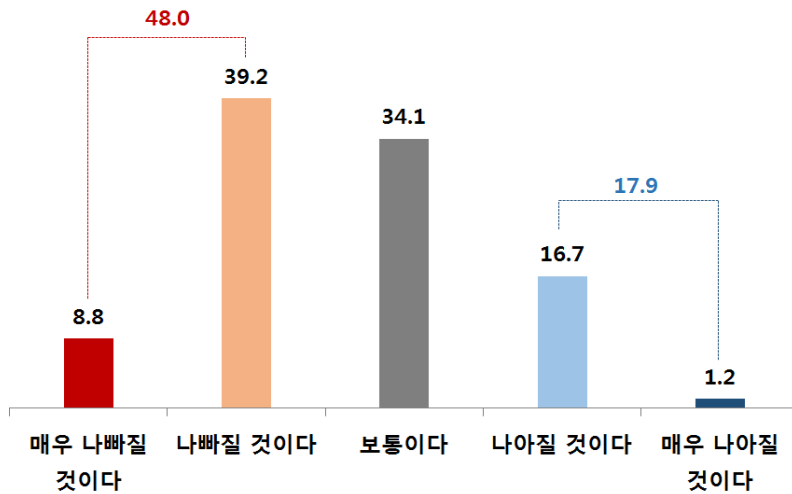
8) 다중응답.



#### 4) [정치] 향후 정치 상황 전망

**나빠질 것이다 48% > 나아질 것이다 17.9%**

(n=1,000,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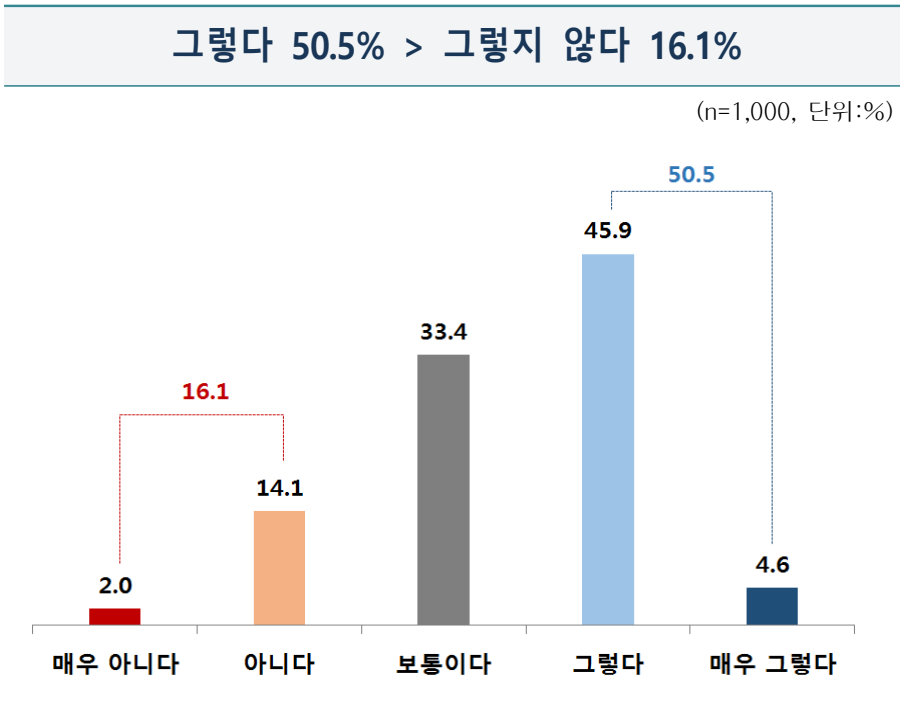
응답자의 48%는 향후 우리나라의 정치상황에 대해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17.9%는 ‘나아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높은 층은 10~30대 젊은층, 경제상황 부정적 예상층, 사회여건 부정적 예상층이다.

‘나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50~60대 고령층, 경제상황과 사회여건 긍정 예상층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한편, 진보, 보수층 모두 향후 정치상황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높다.

5) [정치] 향후 시민참여 수준 전망



향후 시민들이 사회적 이슈에 더욱 목소리를 내고 활발히 참여할 것으로 전망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라는 응답은 절반으로, 부정적 응답보다 세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시민참여 확산의 흐름에 대해 시민들은 시대적·사회적 흐름으로 이해하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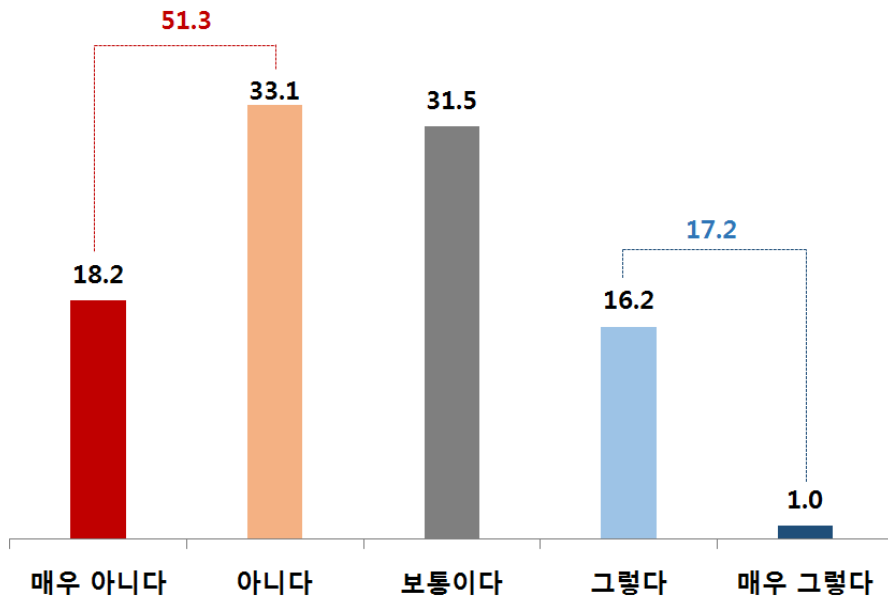
‘그렇다’라는 응답은 시민참여 활동에 적극적인 5060세대에서 높고, 화이트칼라, 블루칼라, 개인 희망인식 긍정층, 사회 희망인식 긍정층에서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시민참여에 대해서는 이념 성향에 따른 차이 없이 진보, 보수 모두 긍정적 인식이 높다.

6) [정치] 향후 정부(중앙 및 지방정부) 투명성 · 효율성 · 신뢰성 전망

아니다 51.3% > 그렇다 17.2%

(n=1,000, 단위:%)



향후 정부(중앙 및 지방정부)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 효율성, 신뢰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응답자 10명중 5명은 '아니다'라고 응답했다.

또한 '남북관계' 전망과 함께 '정부의 투명성' 전망은 진보-보수 간 인식의 격차가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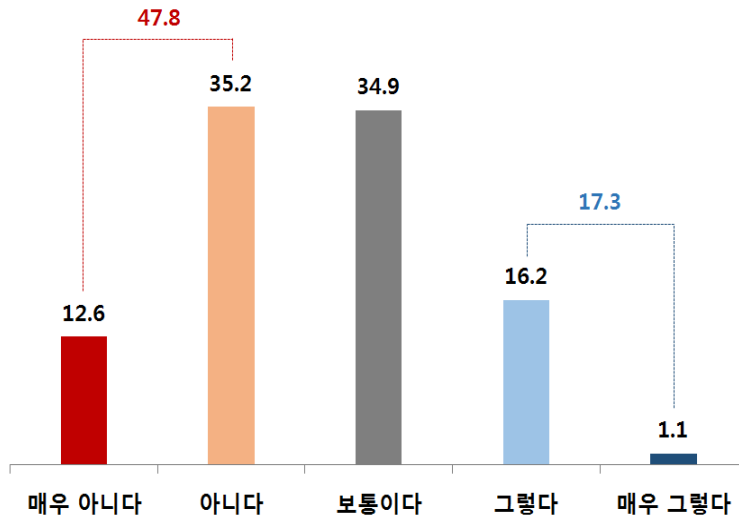
정치적 이념 성향	향후 정치 상황 전망				
		향후 정치 상황 전망	향후 시민참여 수준 전망	정부 투명성/효율성/신뢰성 전망	향후 남북관계 전망
	진보	2.65	3.43	2.32	2.55
	중도	2.61	3.32	2.50	2.54
보수	2.61	3.42	2.69	2.74	

[표 3-7] 향후 정치 전망 (1:부정, 3:보통, 5:긍정)

## 7) [정치] 향후 남북관계 전망

아니다 47.8% > 그렇다 17.3%

(n=1,000,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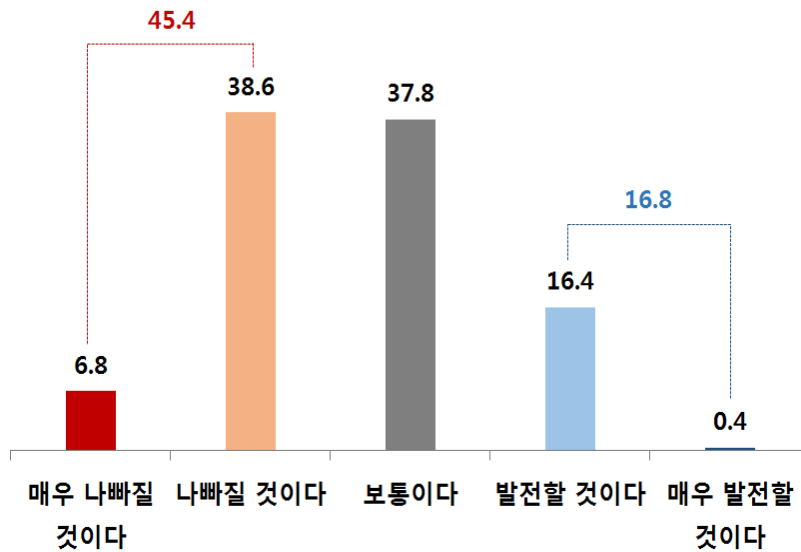
향후 남북한 관계가 진전될 것 같은지에 대해 '아니다'라는 응답이 47.8%로, 긍정적 응답 17.3%보다 우세하게 나타났다. '아니다'라는 응답은 10~30대 젊은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념적 성향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이 보수, 진보 모두 남북관계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보수층의 긍정적 인식이 높은 편이다.

8) [경제] 향후 경제 상황 전망

**나빠질 것이다 45.4% > 발전할 것이다 16.8%**

(n=1,000, 단위:%)



응답자의 45.4%가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에 대해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16.8%는 ‘발전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발전할 것’이라는 전망은 상대적으로 진보(14.7%)보다 보수(21.6%)층에서 높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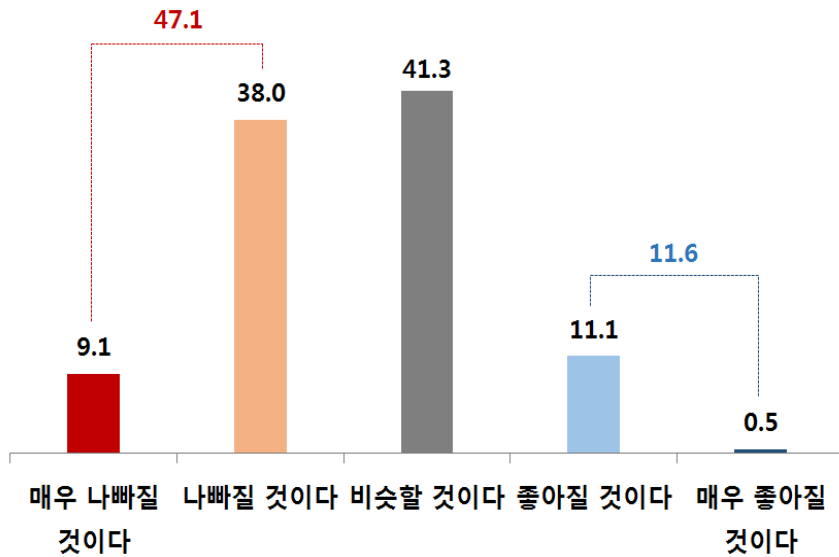
현재의 삶 만족도가 낮은 불만족 계층에서는 부정적 전망이 압도적이나, 만족 계층에서는 긍정적 전망과 부정적 전망이 엇갈린다.

한편, 가구소득에 따른 경제 전망 차이는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9) [경제] 향후 일자리의 질 전망

**나빠질 것이다 47.1% > 좋아질 것이다 11.6%**

(n=1,000,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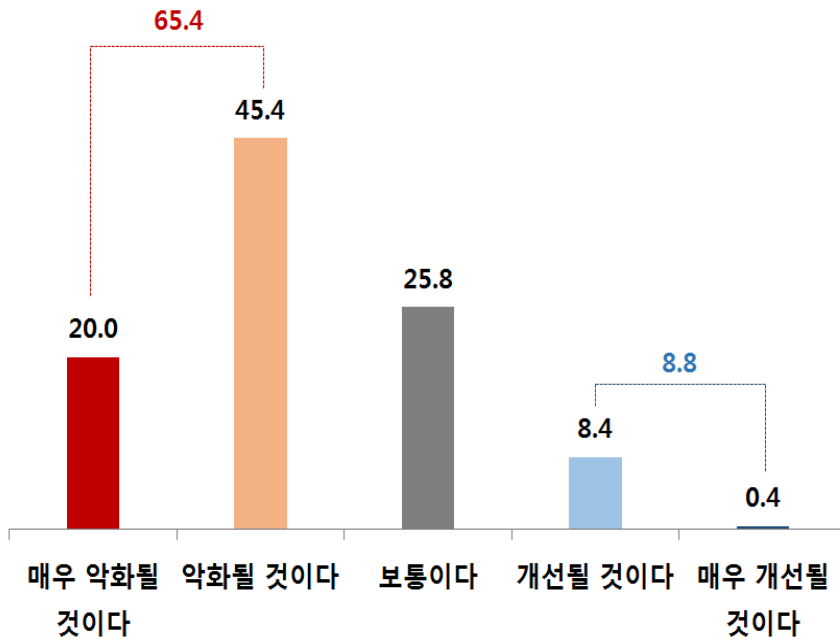
향후 일자리의 질이 지금보다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47.1%로 나타났다. 알파고와 같이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이 등장하게 되는 미래에는 경제 상황보다 일자리의 질에 대해 좀 더 어두울 것으로 보고 있다.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30대, 블루칼라, 개인 희망인식 부정층, 사회 희망인식 부정층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반면,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대부분의 계층에서 낮게 나타났다.

10) [경제] 향후 소득불평등 및 빈곤 전망

**악화될 것이다 65.4% > 개선될 것이다 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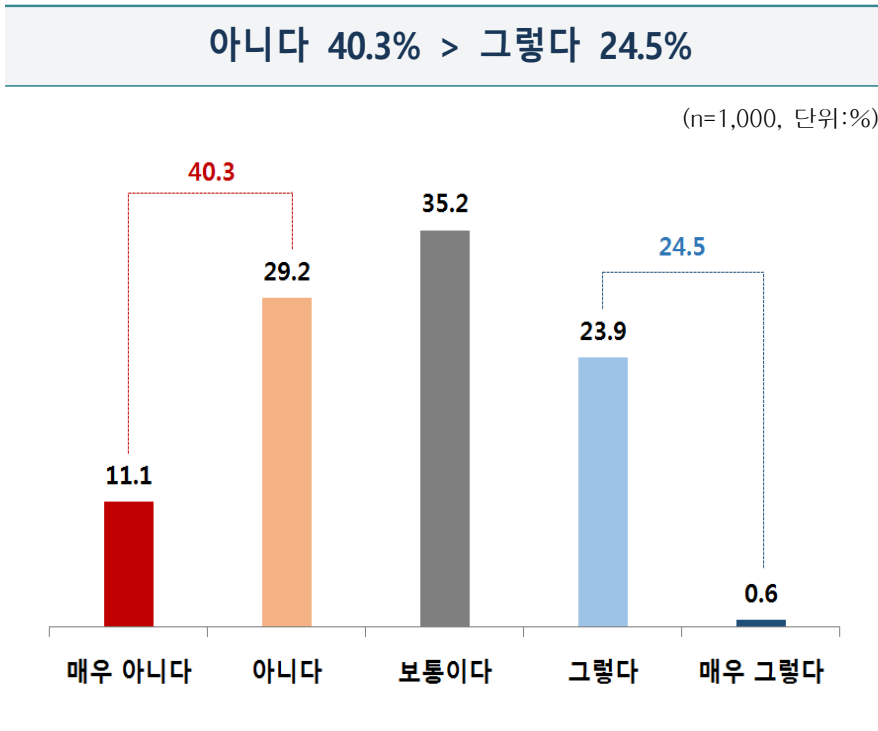
(n=1,000, 단위:%)



향후 소득과 부의 불평등 및 빈곤에 대해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65.4%인 반면, 8.8%만이 ‘개선될 것’이라고 응답해 한국사회의 양극화 문제가 단기간에 해소되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3040세대, 블루칼라, 개인 희망인식 부정층, 사회 희망인식 부정층, 진보층에서 더욱 높다.

11) [경제] 향후 근무시간 전망



시민들이 문화와 여가를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야근, 잔업 등의 근무시간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10명 중 4명은 부정적으로 응답했으나 24.5%는 ‘그렇다’라고 응답해, 경제 관련 전망 중 비교적 긍정적 전망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5060 고령층에 비해 40대 이하층에서 근무시간 축소에 대해 비관적 인식을 보이며, 특히 직장을 다니고 있는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 계층에서 비관적 응답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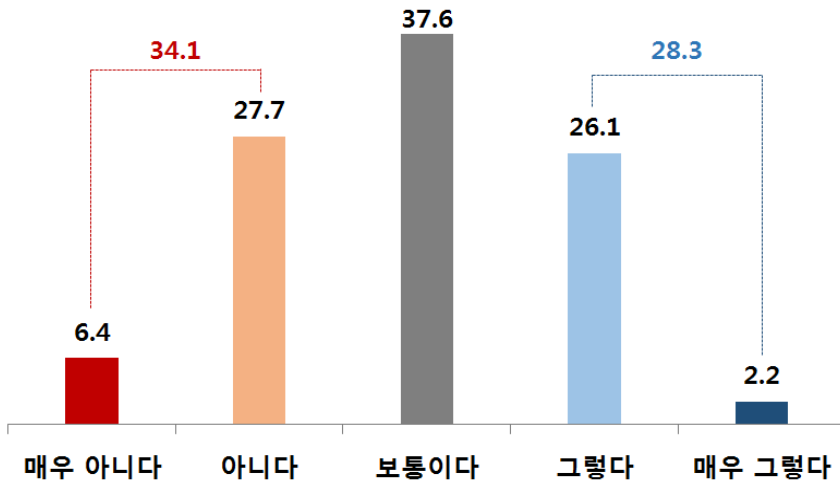
이념적 성향에 따른 차이도 보이는데, 보수층은 상대적으로 근무시간 단축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보인다.



12) [사회] 향후 기술발전이 인간의 삶에 미칠 영향 전망

아니다 34.1% > 그렇다 2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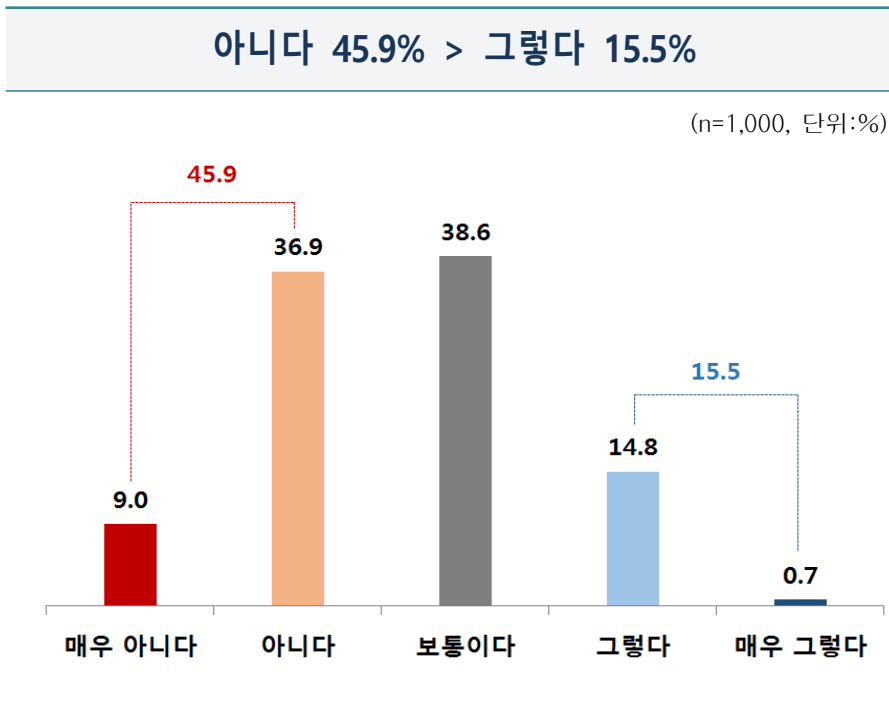
(n=1,000, 단위:%)



향후 기술발전과 인공지능 등장이 인간의 삶에 미칠 영향에 대해 긍정적 전망은 28.3%, 부정적 전망은 34.1%로 나타나, 시민들의 미래전망이 양분된 상황이다.

로봇과의 일자리 경쟁 위기에 처한 저소득 계층에서는 부정적 인식이 높은 반면, 기계의 발달로 혜택을 입을 가능성이 높은 고소득 계층에서는 긍정적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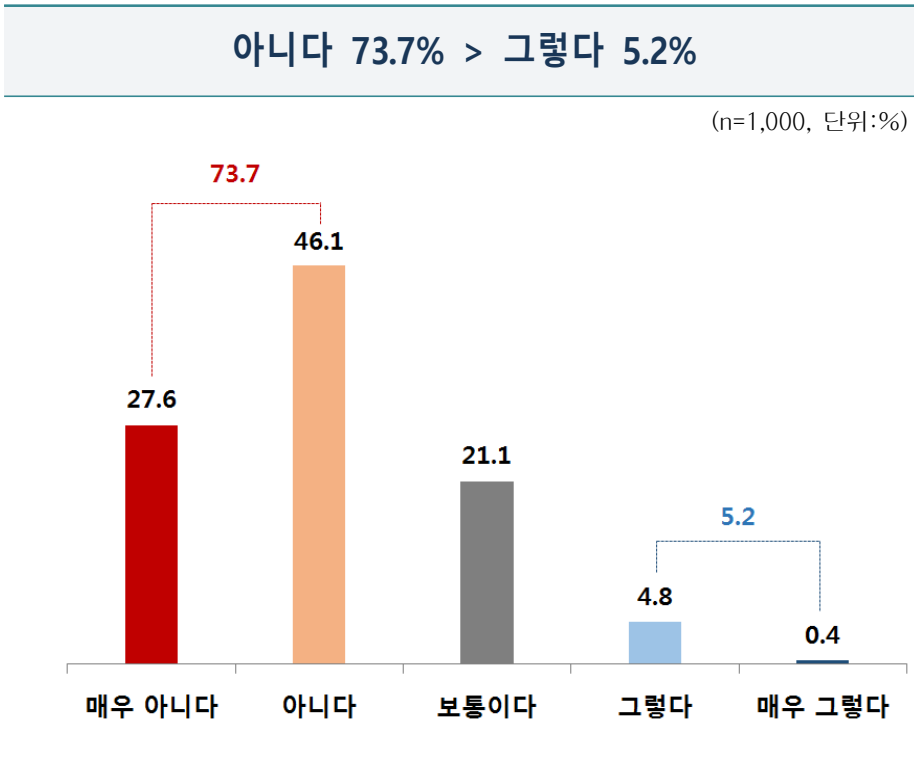
13) [사회] 향후 복지혜택 수준 전망



향후 우리 사회가 충분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될 것 같은가 라는 질문에 대해 '아니다'라는 부정 전망이 45.9%로 긍정 전망보다 높게 나타났다. 현재 복지 확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복지는 단기간에 이루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10~40대는 부정 의견이 과반으로 높고, 그 중에서도 학생, 진보층에서 부정 전망이 특히 높다.

14) [사회] 향후 출산율 수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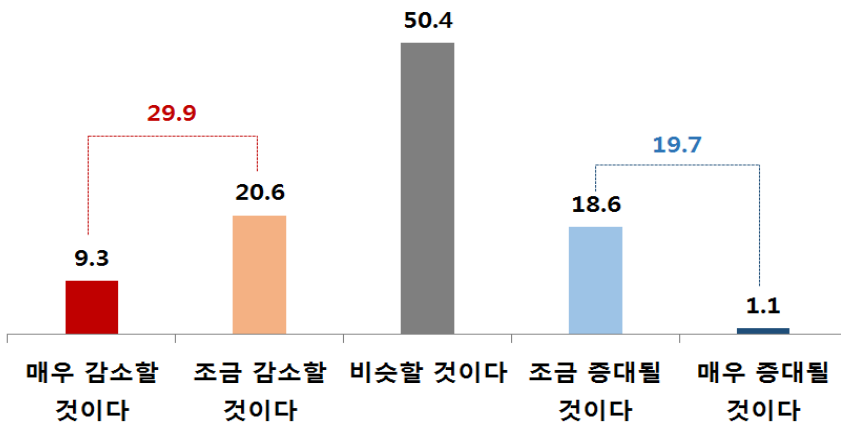
한국사회 출산율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차 낮아질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73.7%로 압도적인 수치를 보였다. 우리 사회에 대한 전망 문항 중 가장 비관적으로 나타났다.

‘아니다’라는 응답은 가임세대인 10대~30대에서 특히 높고, 현재의 삶 만족도가 낮고, 개인 희망인식과 사회 희망인식이 부정적인 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15) [사회] 향후 공교육의 중요성 전망

**감소할 것이다 29.9% > 증대할 것이다 19.7%**

(n=1,000,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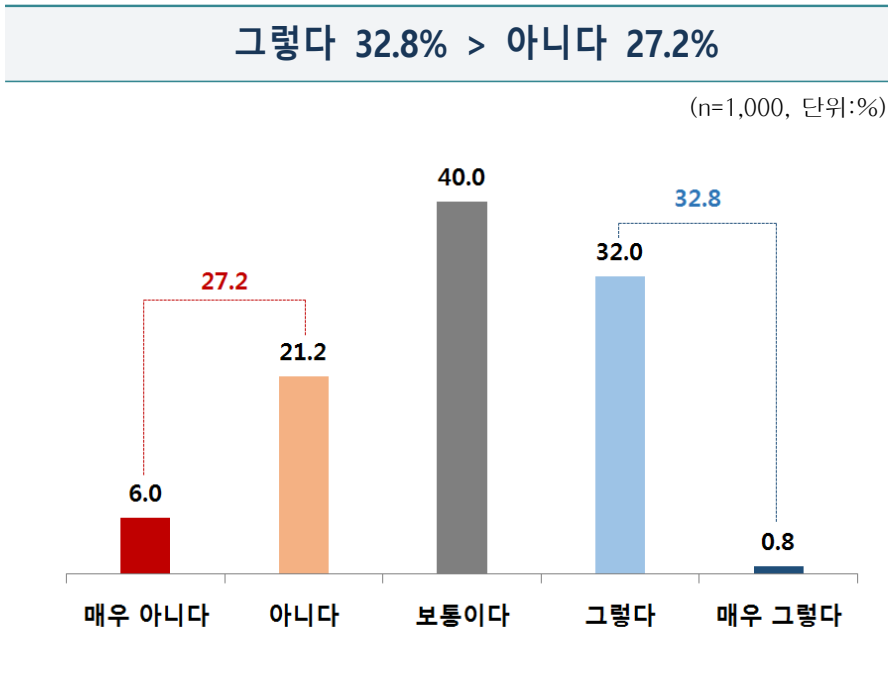


앞으로 사교육에 비해 공교육(학교교육)의 중요성이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이 30%로 '증대될 것'이라는 응답(19.7%)보다 다소 우세하고 응답자 절반은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학생 계층에 비해 주부 계층에서는 '증대될 것이다'라는 인식이 좀 더 높게 나타난다.

'감소할 것'이라는 인식은 정치이념 진보층, 정치 상황 전망 · 경제 상황 전망 · 사회 여건 전망 부정 인식층에서 특히 높게 나타난다.

16) [사회] 향후 다양성 중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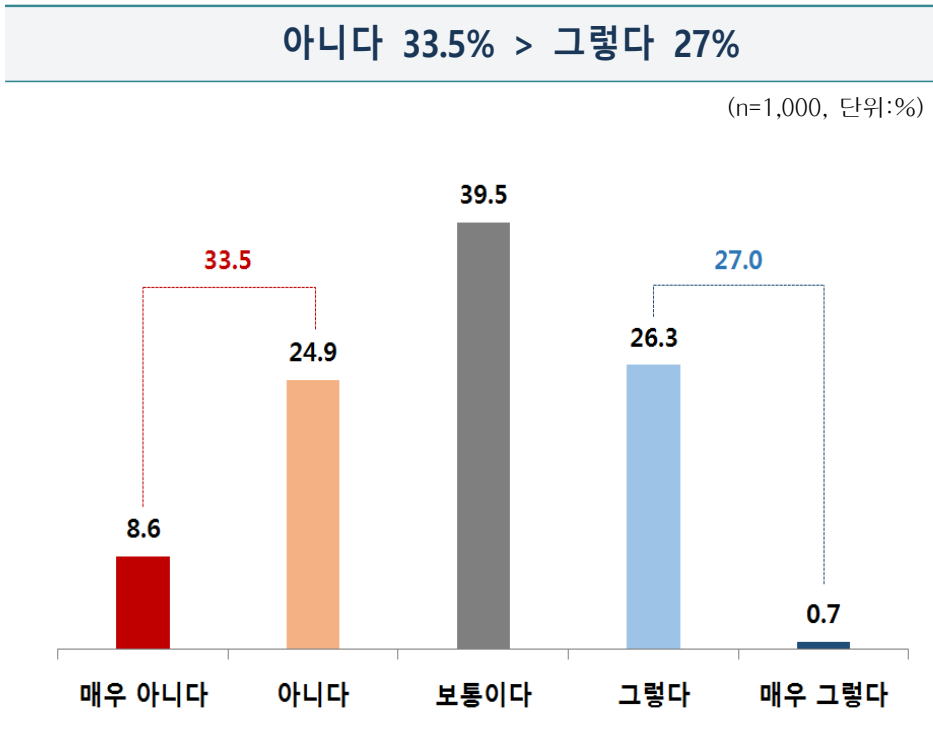


향후 우리 사회가 다양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 32.8%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답해 부정적 인식(27.2%)보다 다소 우세하나, 응답 격차는 크지 않다.

30대의 경우 우리 사회가 다양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41.8%로 높게 나타나, 이들 세대는 한국사회가 앞으로도 획일적 사회로 나아갈 것이라고 인식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비관적 인식은 정치이념 진보층에서도 높게 나타난다.

17) [사회] 향후 환경문제 개선 전망



향후 우리 사회가 환경문제를 개선하고, 살기에 적합하도록 변화할 것으로 보는가에 대해 ‘아니다’라는 응답이 33.5%로 ‘그렇다’(27.0%)라는 응답보다 조금 우세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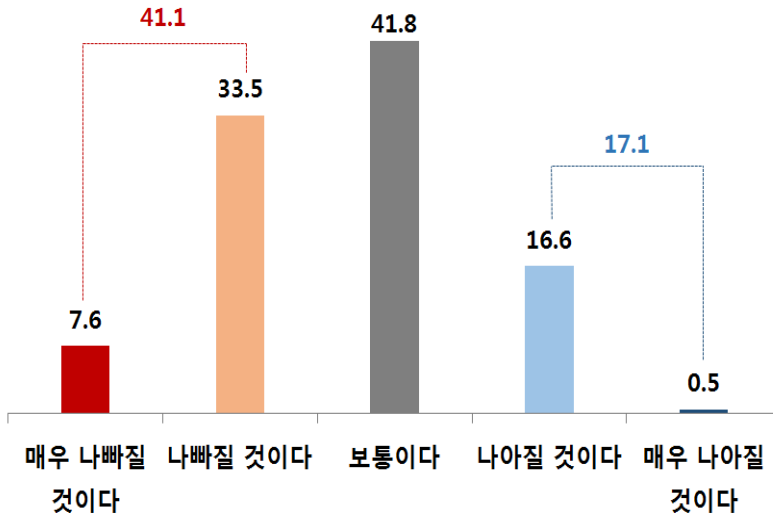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문제가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주변국들과 공조해야 하는 국제적 이슈임을 감안할 때 쉽게 해결될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27.0%의 긍정 전망층은 환경문제를 국가정책의 중심으로 우선시 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8) [사회] 향후 전반적 사회여건 전망

나빠질 것이다 41.1% > 나아질 것이다 17.1%

(n=1,000,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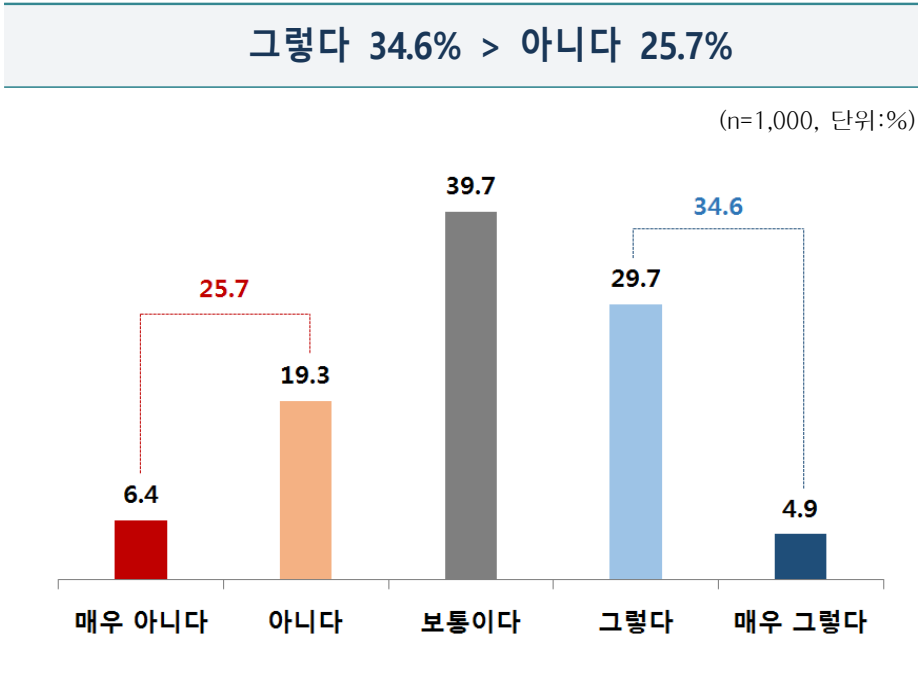


향후 한국의 전반적인 사회여건에 대해 10명 중 4명은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해 '나아질 것'이라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10~30대 젊은층, 개인 희망인식, 사회 희망인식 부정 인식층, 진보층, 현재의 삶 만족도 불만족층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한편, 가구소득별 응답 특징은 두드러지지 않는다.

### 19) 시민활동의 사회기여도



시민단체와 시민사회활동가들의 활동이 희망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한다는 응답이 34.6%로 부정적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

시민사회 활동의 기여도 부분에서는 특히 정치이념 성향의 차이를 크게 보였다. 정치적 진보층에서 긍정적 평가가 과반으로 높고, 보수층에서는 부정적 시각이 더 우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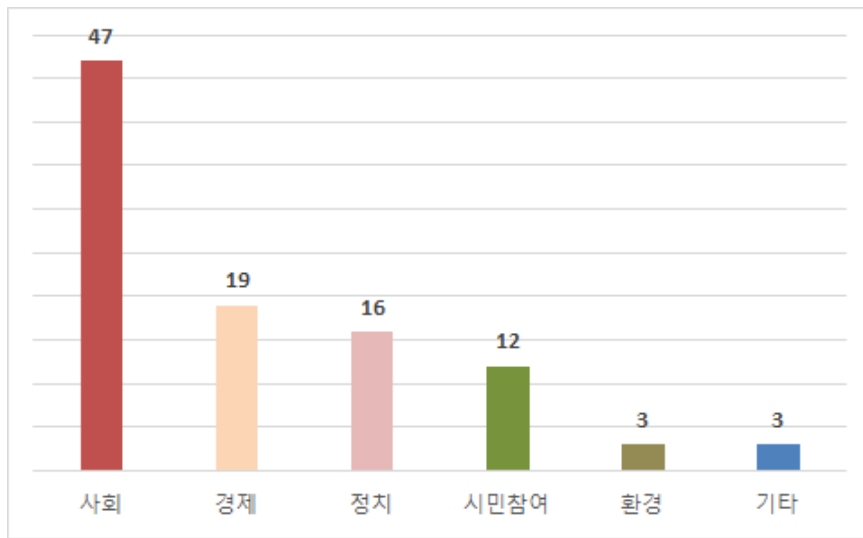
시민사회 활동의 긍정적 평가는 10대부터 40대까지 폭넓은 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났고, 광주·전라 지역과 같이 진보 성향이 강한 곳에서 높게 나타났다.



## 20) 희망제작소에 대한 희망사항

희망제작소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써야 할 활동  
사회 분야 47% > 경제 분야 19% > 정치 분야 16%

(단위:%)



희망제작소(시민참여 기반 민간싱크탱크)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써야 하는 활동에 대해 개방형으로 응답한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 분야 47%, 경제 분야 19%, 정치 분야 16% 등으로 나타났다.

사회 분야는 시민의식, 복지향상, 부정부패척결 · 투명성, 저출산 대책 등의 의제에 힘써야 한다고 응답했다. 경제 분야는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경제발전, 일자리 안정 등의 의제에 힘써야 한다고 응답했다. 정치 분야는 정치를 통한 변화, 정치인 부정부패 척결, 정치개혁 · 정권교체 등의 의제에 힘써야 한다고 응답했다.

## 4. 소결

### 1) 시민희망지수

#### ■ 개인 희망인식지수 (6.26점)

본 조사에서 개인 희망인식지수(10점 만점)는 보통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희망적'이라고 응답, 평균점수는 6.26점이다. 희망인식이 가장 낮은 층은 '3040세대', '수도권', '학생', '블루칼라'이다. 연령별로는, 현재의 만족도가 높은 5060세대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세대인 1020세대에서 높은 희망인식을 보인다.

반면에 사회,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는 3040세대의 희망인식은 낮은 편이다. 우리 사회 '허리'에 해당하는 3040세대에서 개인 희망지수가 가장 낮게 나온 것이 특징이다. 특히, 30대는 개인 희망지수와 사회 희망지수가 모두 최저치여서 가장 희망이 결핍된 세대로 조사되었다. 3040세대는 타기관의 다른 조사들에서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 피로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현실은 3040세대가 현실에 지쳐 별다른 기대나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한 다각도의 정책적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 희망지수가 향후 우리 사회 희망인식지수 보다 높게 나온 것은 절망적 사회 인식에 비해 개인의 삶에 대해서는 희망의 끈을 놓고 있지 않은 상황을 보여준다.

#### ■ 향후 우리 사회 희망인식지수 (4.37점)

본 조사에서 향후 우리 사회 희망인식지수(10점 만점)는 희망을 비교적 어둡게 인식하고 있으며, 점수로는 4.37점으로 나타났다. 사회 희망인식이 개인 희망인식에 비해 더 낮아 개인과 사회를 분리해서 사회를 더욱 비관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인다(개인: 6.26 > 사회: 4.37).

현 사회에 대한 진단에서 ‘사회 양극화’, ‘불공정 경쟁’, ‘사회 갈등’, ‘자유와 민주주의 억압’의 측면에서 모두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 향후 사회에 대한 전망에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대해서도 모두 부정적 인식이 높아 현재와 미래에 대해 암울한 인식이 팽배하다.

## ■ 소득 수준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 발생

조사 결과, 소득 수준에 따라 삶의 만족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 만족도를 비롯하여 5가지 차원(경제 상태, 사회적 지위, 가족·지인과의 정서적 교류, 사회적 기여와 주위평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삶)에서 소득이 낮을수록 낮은 만족도를,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만족도를 보인다.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정서적 교류 및 사회적 평가, 삶의 성취감 등 모든 부분에서 삶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 낮아지며 소득에 따라 삶 전반에 심리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이 적을수록 ‘현재 삶의 만족도’가 낮을 뿐 아니라 희망을 갖고, 희망을 위해 노력하려는 ‘희망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며 ‘삶에 대한 희망지수’도 낮다. 저소득 계층은 현재 삶에 낮은 만족감을 갖고, 이는 미래에 대해서도 ‘희망이 없다’고 연결되어 희망 결핍의 도미노현상에 노출된다.

반대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인생의 꿈이 더 많고,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더 크고, 이를 위한 노력도 더 적극적이며, 주변사람과도 더 많이 교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희망적 삶을 사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개인의 노력’보다 ‘부모의 경제력과 인맥’을 꼽은 조사결과와도 연결되어 있다. 희망적인 삶을 사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의 노력’보다 ‘집안 배경’이 더 영향이 크다는 의견이 많아 금수저사회에 대한 시민 인식이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현재의 경제적 결핍이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의 결핍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는 개인의 삶에서 ‘희망’을 갖는데 사회적 지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 ■ 연령에 따른 차이: 5060세대에 비해 2040세대 삶의 희망지수 낮아

50대 이상의 고령층과 40대 이하의 청장년층의 삶의 만족도에도 수준 격차가 발생한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고, 심리적으로도 안정된 세대인 고령층에서 만족도 수준이 증가하는 반면, 청장년층은 '보통' 수준의 만족도에 그친다.

또한 5060세대에 비해 2040세대가 삶의 희망지수가 낮다. 특히, 3040세대의 경우 삶의 만족도뿐 아니라 삶의 희망지수도 전체 세대 중 최저수준이다. 사회에 대한 희망지수도 30대가 가장 낮다. 30대의 경우, 우리 사회에 대한 분야별 인식에서도 전반적으로 가장 부정적 태도를 보여 가장 암울한 인식을 가진 세대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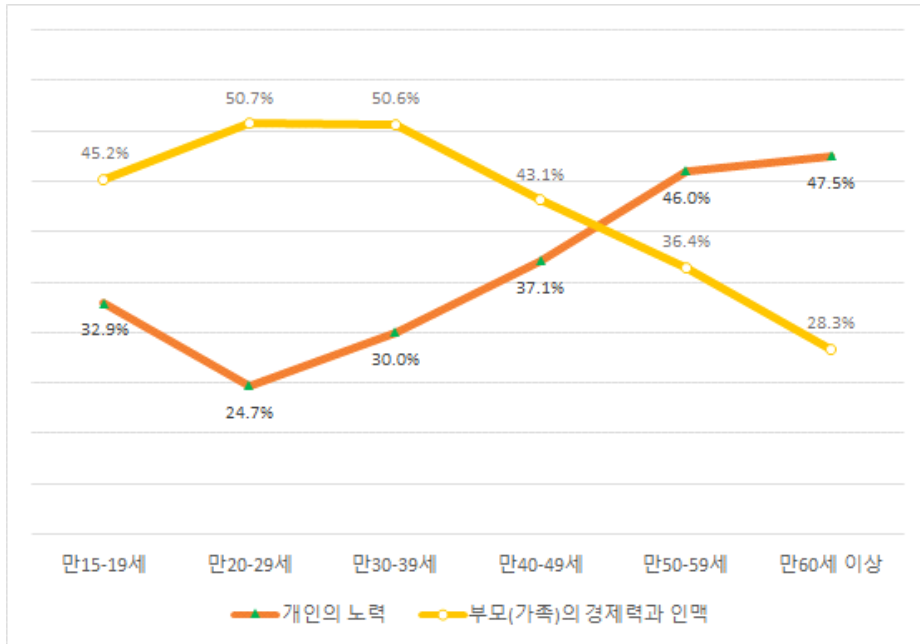
반면에 5060세대는 한국사회의 다이내믹한 변화를 직접 체험한 세대로 한강의 기적과 같은 경제발전을 경험한 세대답게 적극적인 삶의 태도와 희망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은 개인 삶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데 비해, '이념 성향'은 사회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다. 진보적일수록 현 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높고 사회 전망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고 보수적일수록 긍정적이다.

'시민참여활동'의 경우 참여적인 계층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고 개인의 삶과 사회에 대해 모두 희망적 인식을 한다는 특징이 있다. 우리 사회 정치 상황은 나빠질 것 이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앞으로 시민들이 사회적 이슈에 더욱 목소리를 내고 활발히 참여할 것이라는 것에는 50.5%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시민참여 수준'의 경우, 실질적인 행동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응답자의 39.7%로 나타나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았지만 '관심이 없다'는 응답은 10.8%에 불과하다. 대다수는 관심은 있지만 실천에 옮기지 못한다고 대답해 시민참여에 대한 인식 자체는 높게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시민참여활동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다종다양하게 만들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시민참여활동의 제공으로 세대 확장을 꾀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 연령에 따른 차이: 노오력의 세대 vs. 노력의 세대



[표 3-8] 연령에 따른 차이: 노오력의 세대 vs. 노력의 세대

희망적인 삶을 사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것은 '부모(가족)의 경제력과 인맥'과 '개인의 노력' 두 문항이었다. 어떤 요인을 선택했는지는 연령대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다.

만15~19세부터 만40~49세까지 40% 중반에서 50%에 이르는 이들이 희망적인 삶을 사는데 부모(가족)의 경제력과 인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선택했다. 그러나 만50~59세, 만60세 이상의 세대는 개인의 노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선택했다. 20~30대를 변곡점으로 부모의 경제력과 인맥을 선택한 이들과 개인의 노력을 선택한 이들의 증감이 교차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위 결과는 마치 「노오력의 배신」의 시대에 사는 청년세대들과 왜 노력하지 않느냐고 청년세대를 몰아붙여온 기성세대들 간의 서로 다른 가치관과 시대관을 보여주는 듯한 모습이다. 다소 특이한 것은 만15~19세에서 '개인의 노력'

을 선택한 비율이 비교적 높다는 것이다. 노력을 중시한 10대들의 선택은 상대적으로 20대와 30대의 선택보다 크다. 이는 노력이 여전히 직접적인 결과로 성과를 보일 수 있는 ‘학교’라는 울타리 안의 10대들과 노력해도 안 되기 때문에 N포세대가 되고, 포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노력할 이유가 없는 악순환의 고리 위에 놓인 20대 청년세대들의 사회구조적 차이일 수 있다. 또한 노동시장 내에 어느 정도 자리 잡고 나아가고 있는 30~40대 세대들과 노동시장으로의 진입 자체가 또 다른 포기로 이어지는 20대 청년세대들의 차이일 수 있다. 위 그림은 ‘희망’마저도 개인적 노오력의 몫(노오력의 배신, 2016:147)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 20대의 슬픈 현실을 반추하는 듯하다.

50~60대는 개인의 노력을 통해 사회적 성공이 가능한 시대를 살아왔다. 밑바닥에서 시작해 대한민국 성공신화를 써내려온 이들은 더 살기 좋은 현실에서 좀 더 열심히만 하면 되지 않느냐고 청년세대들을 재촉한다. 그러나 청년들 역시 노력이 기반이 되는 현실을 살아왔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한다는 어른들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한다는 어른들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도서관에서 학원에서 각종 스펙을 쌓기 위해 열을 올렸다. 그러나 그래도 안 되는 시대에 놓여있다는 점을 지금 이 시대의 청년이 아닌 한 완전히 이해하기는 힘들 것이다. 공식 실업률 3% 중반, 만15~29세 청년실업률 10%의 시대, 그러나 잠재경제활동인구를 반영한 고용보조지표에서 드러나는 청년실업률이 20%를 뛰어넘는 이 시대에 각자의 희망과 그 기저요인들의 실체를 이야기하지 않고는 개인의 희망은 사회의 희망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저 머무르고 말 것이다.

나의 노력과 너의 노력이 사회적으로 다른 결과로 나타나는 현실에서 우리는 어쩌면 일방의 시대에 가능했던 희망을 상대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위 그림에서 나타나는 세대 간 간극이 점차적으로 확대된다면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세대별 가치관과 시대관으로 분열되고 있음을 자인하고 방치하는 결과가 되고 말 것이다. 각자가 놓여있던 시대의 향수나 열패감을 잠시 내려놓고 금수저가 저만치 앞서가는 현실에서도 여전히 많은 이들이 희망적인 삶의 요인으로 말하는 노력은 무엇인가 이야기해보자. 세대 간의 노력에 대한

강요와도 노오력의 배신과도 다소 다른 희망의 기저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사회적 희망이 거의 절망에 가까운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이들, 그 배후를 꺼내어 이야기하고 서로의 살을 붙이고 곁을 맞춰나갈 때 비로소 세대 간 관점의 차이를 좁히고 사회적 희망의 잉태와 발현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희망해본다.

## ■ 시민단체와 시민사회활동가들의 기여 긍정 의견이 더 높아

우리 사회에 시민단체와 시민사회활동가들의 활동이 희망이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부정 의견(25.7%)보다 긍정 의견(34.6%)이 더 높아 시민운동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평가는 10~40대까지 폭넓은 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시민운동에 대한 긍정 평가층'에서 우리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높고 사회 희망인식도 더 높게 나타났다. 우리 사회에 대한 다른 문항의 조사결과와 비교해,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우리 사회 희망의 단초는 시민사회라는 인식이 있다는 것은 조금이나마 희망적인 결과이다.

## ■ 희망제작소에 대한 희망사항: 특히 '사회분야'에 힘을 써주길 바램

개방형 설문조사 결과 희망제작소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써야 할 활동으로는 사회 분야(47%), 경제 분야(19%), 정치 분야(16%), 시민참여 분야(12%), 환경 분야(3%), 기타(3%)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 분야는 시민의식, 복지향상, 부정부패 척결·투명성, 저출산 대책 등의 의제를, 경제 분야는 양극화해소, 일자리 창출, 경제발전, 일자리 안정 등의 의제를, 정치 분야는 정치를 통한 변화, 정치인 부정부패 척결, 정치개혁·정권교체 등의 의제에 힘써야 한다고 나타났다.

이는 2015년 '희망지수 시민자문단' 워크숍에서 각 영역별로 도출된 키워드와도 많은 부분 중첩된다. 시민들은 현실을 암울하게 인식하면서 현실의 문제점, 과제, 해결방향 또한 함께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시

민참여 기반 민간싱크탱크인 희망제작소를 중심으로 희망의 주체와 경로를 설정하여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시민희망지수도 개선될 것이다.



## IV. 결론: 우리시대 다시 희망찾기

우리시대 다시 희망찾기 (방향과 대안)

## IV. 결론: 우리시대 다시 희망찾기

‘시민희망지수’는 하나의 측정도구이다. 수치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삶과 시민의 ‘희망’에 대한 이야기이다. 한 개인의 희망과 사회의 희망은 분리될 수 없고, 우리시대의 희망은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본 연구의 결론이다.

2016년 11월 현재, 대한민국은 시민들의 희망마저 결핍되어 가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의 희망은 사라져 가고 있고, 소득이 낮은 계층부터 ‘삶’과 ‘희망’이 동시에 무너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지지가 절실하다. 연구진은 시민희망인식조사 결과와 더 나은 삶과 사회를 위해 지난 10년 동안 희망을 만들어온 희망제작소의 관점과 방향을 연결해 보고자 한다. 이에 최근 희망제작소에서 진행해온 주요 연구에서 언급되거나 제시된 ‘관점들’을 바탕으로 ‘우리시대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방향과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 1. 희망의 주체 발굴과 희망경로를 만드는 사회

#### ■ 30~40대들에게 ‘희망’을 묻고 ‘희망’을 충전하라

“생애주기상 30~40대는 취업-결혼-출산-노동(결혼 및 출산과 노동생활 병행) 등의 주요한 생애사건을 경험하는 시기다. (중략) 결국, 30~40대가 느끼는 삶의 부담은 부실한 ‘자기돌봄’으로 이어지고, 그 후유증은 30~40대의 건강과 안녕을 위협하게 된다. 실제로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 행복지수, 건강상태 등 대부분의 통계수치를 살펴보면 30~40대의 고달픈 현실을 짐작할 수 있다. (중략) 30~40대의 이러한 자기돌봄 공백 상황은 본인은 물론, 가족과 사회의 안녕까지 위협할 수 있다. 이들은 한국사회의 경제활동과 출산 및 양육의 주요 담당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30~40대의 자기돌봄 공백을 메우고

삶의 안녕을 회복할 방안을 찾는 것은 개인뿐 아니라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배영순, 2016).

## ■ 청년들의 상상으로 '희망'을 그려라!

소셜픽션 콘퍼런스에서 만난 20대들은 대학만 가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충실하게 학교 교육에 순응했다. 그러나 사회에 나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좌절하고, 최소한의 생계비 확보에도 허덕이고 있었다. 그들은 국민 개개인의 연령대와 특성에 맞는 기본 복지를 원했지만, 전적으로 국가에 의존하고 싶어 하지도 않았다. 다만, 자신의 발언이 가족과 사회에 전달되기를, 지역과 국가의 일에 당당하게 참여하기를 바랐다.

그들의 언어에는 그들의 희망이 담겨 있다. 그들은 '교육'이라는 단어를 앞에 두고 교사와 학교를 떠올리는 대신, 부모와 마을을 소환했다. 그들이 꿈꾸는 '일'에는 정당한 고용계약과 안정적인 급여보다는,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복지를 마을 이웃과 더불어 구축하고 싶어 했다. 투표 이전에 자신도 한 명의 주민이자 국민으로서, 알고 행동할 수 있도록 교육받고 싶어 했고, 자신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를 세우고 싶어 했다. 자신이 직접 지역과 국가의 일원으로 정치에 참여하고자 했다(유혜승 외, 2015).

## ■ 청소년은 우리시대의 희망주역, 민주시민이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문화제를 시작한 존재는 중고생들이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후에도 학생들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피켓과 함께 거리로 나왔다. 하지만 이들은 입시라는 일상으로 곧 돌아가야 하는 현실에 놓여있다. 사회혁신의 가장 강한 잠재력을 가진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은 정작 사회혁신에 참여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우리가 만난 청소년들은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가꾸어 가거나, 세월호 유족을 돕고, 청소년인권에 관심을 가지며 자신의 삶과 주변을 변화시키고 있었다. 그들은 입

시라는 굴레를 벗고 자신의 욕망과 장점을 찾아가며 사회적 존재로서 자신을 탐색하고 있었다(우성희 외, 2016).

## ■ 지역에서 참여와 공동체 연대를 통해 희망을 엮어라

지방자치 민선 5기, 6기 마을과 동네에서 참여를 기반으로 공동체가 형성되고 연대를 통해 공통의 문제를 발굴, 해결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지역과 농촌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서 이러한 로컬단위의 움직임은 국가정책을 선도할 정도로 지역혁신 사례가 되었다. 기존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다양한 시도로 마을만들기와 사회적경제, 마을기업, 소상공인들의 연대, 작은 단위의 공유경제, 주민참여, 주민자치, 마을민주주의가 실험되고 지역혁신의 자양분이 되고 있다. 도시에서도 아파트공동체 운동을 통해 이웃과 교류하면서 작고 소소한 모임들이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공동체들이 지역과 마을을 기반으로 살아난다면 개인의 희망 결핍 상태는 고립되거나 무너지지 않고 치유될 수 있다. 희망은 공동체를 통한 연대와 협력 위에서 이어질 때 비로소 변화의 에너지원이 된다(인은숙, 2016).

## 2. 다시 민주주의를 품는 사회

### ■ 시민의 힘으로 '다시, 민주주의'에 '희망'을 걸어라

“정규직 · 비정규직 문제처럼 사회의 내부자(insider)와 외부자(outsider)가 갈수록 구분되는 이중화는 외부자의 출산율을 낮추기 때문에 고령화를 심화시킵니다. 고령화로 세금 낼 사람이 적어지면 이중화는 더욱 심해집니다. 이중화는 대의(representation)의 불평등을 낳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훼손합니다. 현행 민주주의는 정치적 기득권 유지를 원하기 때문에 이중화를 개선할 생각이 없습니다. 고령화된 유권자들은 현행 민주주의의 개혁에 저항하는 경향이 강하고, 역으로 현행 민주주의는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고령화를 이용합니다.”(장덕진, ‘시대

정신' 인터뷰 중, 2016)

희망은 1%가 아닌 99%를 위한 것이다. 꺾을 대로 꺾어있던 부정부패라는 종기가 극적으로 터진 지금이야말로 시행착오와 오류, 자기성찰과 토론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한국사회에 뿌리내리게 하는 희망의 연대가 필요하다. 문제 의식을 가지고, 모순적이고 비상식적인 것에 대한 질문들을 인식하는 일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사회철학이 갖춰지게 하는 희망에 대한 연대는 바로 현실과 미래에 대한 대응이 된다. 그래서 희망제작소는 묵묵하게 '다시, 민주주의'를 외치며 시민과 함께 걷고자 한다. 사회적 가치를 고민하고 다양한 삶의 가능성을 꿈꾸는 개인들의 발전과 사회변화를 위해 함께 모일 수 있는 작은 장들을 마련하고 제공하며 아래로부터 작동하는 민주주의를 지향하며.

지속가능한 자치와 민주주의를 향해, 고령화사회와 불평등사회를 극복하는 새로운 대안과 새로운 사회동력 발굴이 될 수 있는 실천적 대안을 시민과 함께 실험하고 그러한 연구 성과를 어떻게 늘리고 강화시킬지 고민해야 한다. 그것이 지금 이 전환의 시대에 요구되는 우리 공동의 희망 패러다임이다. 지속불가능한 사회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로 변화할 때 한국사회에서 잊혀졌던 가치가 복원되고 과거의 구조적 문제점이 치유될 수 있다.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개인과 이웃의 삶을 재구성하기 위해 희망의 연대로 대안적인 사례를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시민이 힘이고 희망인 것이다. 시민이 만들고 구축하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모아져야 한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갈 내일의 시작과 같다. 희망은 결코 늦은 법이 없다.

# 에필로그

## 전환의 시대, 시민희망엔진을 켜라

“희망이라는 것이 제작할 수 있는 것인가? 희망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스스로 힘들고 고된 노력과 헌신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름을 잘못 지은 것은 틀림없지만 그래도 그 이름값을 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최선을 다할 것 입니다.”(박원순, 2006)

고백컨대 시민희망지수 연구도 ‘희망제작소’라는 이름만큼이나 어려운 과제였다. 공연히 연구를 시작했다는 탄식도 많았다. ‘시민희망지수’라는 이름값을 못 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시민들이 참여해서 출발했고, 과정 과정마다 시민들이 함께 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시민희망지수가 말해주는 우리들의 세계를 읽어가면서 내일도 미래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5년 10월의 마지막 날 ‘희망지수 시민자문단’ 워크숍 참가자들의 평가 설문 내용을 소개드린다.

“막연히 원하고 바라는 것을 희망이라 말하지 말고 현실은 이러하나 사회구석구석에 있는 작은 희망의 불씨를 찾고 그것을 발전시키는 방향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지수개발 이후에도 이 지수를 높여갈 수 있는 방안까지도 고려해주시고 그렇게 될 수 있게끔 활동 부탁드립니다.”

“뉴스나 언론을 통해 볼 수 있는 많은 사실들에 관하여 자유로운 의견 나눔이 있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계량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실 희망제작소 여러분께 미리 감사 말씀드립니다.”

“빅맥지수처럼 희망지수가 일상을 통해 우리 사회의 희망을 측정하는 좋은 지수가 되어, 정책이나 시민참여에 활용되면 좋겠습니다.”

힘든 과정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다. 다시 한 번 ‘희망지수 시민자문단’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절망의 어둠이 짙게 드리워진 2016년 대한민국에서 ‘희망’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매우 불편한 일이다. 그러나 어둠 속 빛이 선명하듯 무수한 ‘희망’에 대한 정리된 ‘언어’가 그러했듯이 희망은 절망 속에서 움트고 있다. 광장으로 시민들이 하나둘씩 나와 외치는 그 소리-“우리가 주인이다! 시민이 희망이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증명하고 있다.

비선실세 최순실 논란으로 온 국민의 분노가 집중되고 있던 2016년 11월 저녁, 제이티비시(JTBC) 보도프로그램 '뉴스룸'에서 앵커 손석희는 자살률 1위, 노인빈곤율 1위, 남녀 임금격차 1위, 출산율, 노동자 평균 근속기간, 사회적 관계 최하위 등의 수치를 언급하며 “좋은 건 빼두고 왜 나쁜 것만 내세우느냐 힐난할 수도 있겠지만, 좋은 것이 있어도 나쁜 것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근본적으로 훼손돼버린 우리의 민주주의에 대한 치유와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지금의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은 아니냐고 거리의 시민들이 외치고 있다”고 했다. 손석희가 앵커브리핑 마지막에 전한 말-“그래서 우리가 다시 희망을 걸 수밖에 없는 것은 민주주의다”-을 들으



며 희망제작소가 1년 동안 진행해온 ‘시민희망지수’를 떠올렸다. ‘시민’이 ‘힘’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해준 것이 시민희망지수 연구의 결과였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사회는 국가비상사태를 맞이했고, 회복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때이다. ‘불안’과 ‘절망’이라는 키워드가 재생산되고 모든 세대를 침범하며 ‘각자도생’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내고 있는 이 때, 2016년 11월 9일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다큐멘터리 감독 마이클 무어가 남긴 말은 한국사회에도 해당된다. “당신이 사는 나라는 기후변화가 존재하고, 여성이 남성과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하고, 빛을 지지 않아도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외국을 침략하지 말아야 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원하고, 진정한 보편적 국민건강보험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다수인 나라다.”

10년 전 선언된 희망제작소 창립선언문은 2016년의 우리가 보낸 시그널을 받아 작성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본다. 2016년 광장의 외침과 무수한 시국선언문이 어찌면 2026년 어느 날 보내는 시그널을 담은 것일 수도 있다.



# 부록

## 부록 1. 희망제작소 창립선언문

### 희망제작소 창립선언문 (2006.03)

희망은 절망의 끝자락에서 피어난다고 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하고 암울했던 시절에도 어머니의 대가없는 희생과 기다림처럼, 우리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절 우리의 삶을 지배했던 분단과 독재, 가난과 분열의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갈망과 열정, 헌신과 실천으로 희망의 씨앗을 잉태하고 키워왔습니다. 세계에서 자랑할 만한 민주화, 유례없는 고도 경제성장이 바로 그 희망의 성과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워진 우리 사회는 마치 길고 고통스러운 투병과 큰 수술을 거친 뒤의 후유증처럼 다시 절박한 과제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고도 압축성장이 빚어낸 양극화의 그늘은 깊고도 넓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균형감 잃은 사회발전은 경제성장과 사회 안정까지 위협합니다. 일상의 민주주의는 그동안 이룩한 민주주의의 진전이 무색할 만큼 정체되고, 불필요한 분열과 갈등, 미성숙한 시민의식에 가로막혀 한 걸음도 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지도층의 무능과 도덕적 해이, 경쟁과 부패로 인해 신뢰의 위기와 지역갈등, 비전 부재의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 도처의 배타성과 이기주의는 쉽게 풀릴 것 같지 않은 굵은 매듭과 병목이 되어 우리 모두를 옥죄고 있습니다.

갈 길은 멀게만 보입니다. 그러나 절망의 끝에서 희망은 시작됩니다. 희망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위로부터의 구호가 아니라 삶에 뿌리내린, 작지만 지혜로운 생각과 소망이 바로 희망의 원천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책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소수의 전문가들만이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도처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를 만들고 키우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분들이야말로 우

리의 소중한 자산이자 좋은 정책의 밑거름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회를 통찰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는 요구에 응답하고자 합니다. 박제된 이론과 추상적인 정책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으로 깊게 닿을 내리겠습니다. 그리하여 공공정신이 살아있는 정의로운 사회, 창의로운 문화와 예술, 생태주의 관점들이 구현되는 대안사회를 만들기 위해 좋은 지혜를 모아내고 공유하겠습니다. 신자유주의와 성장지상주의, 맹목적 애국주의가 빚어내는 절망과 갈등, 분노를 희망의 씨앗으로 바꾸어내겠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희망을 피우기 위하여 애써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희망의 씨앗들을 촘촘한 그물코로 엮어 내겠습니다. 18세기 명분과 관념에 사로잡힌 양반사회의 틈새에서 '실학'이라는 희망의 씨앗이 돌아났듯이 오늘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나갈 '21세기 실학운동'을 펼치려고 합니다. **희망은 결코 늦은 법이 없습니다. 이제 다시 희망을 노래합시다.**



본 연구에서는 희망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희망'을 "나 자신의 삶과 내가 속한 사회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힘과 변화에 대한 기대" 로 정의합니다.

2. 다음은 '희망'에 관해 어떻게 느끼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다음 문장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표시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①-----②-----③-----④-----⑤-> 매우 그렇다

- 1) 나는 내 꿈을 이루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
- 2) 나는 희망하는 꿈 상당수를 실제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3) 나는 희망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4) 나는 내 희망에 대해서 가까운 사람들과 이야기를 자주 나눈다

3. 귀하께서는 현재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항 목	① 매우 불만 족	② 비교 적 불만 족	③ 보통	④ 비교 적 만족	⑤ 매우 만족
1) 경제상태					
2) 사회적 지위					
3) 가족, 지인들과의 정서적 교류					
4) 사회적 기여와 주위의 평가					
5)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삶					

4. 귀하께서는 현재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 ② 비교적 불만족 ③ 보통 ④ 비교적 만족 ⑤ 매우 만족

5. 그렇다면 앞으로의 본인의 삶이 얼마나 희망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희망적인 경우'를 10점 '보통'을 5점 '매우 절망적인 경우'를 0점으로 했을 경우 현재 상태가 몇 점 정도인지 0점부터 10점 사이에서 응답해주세요. ( ) 점

6. 귀하께서는 다음의 항목들이 **희망적인 삶을 사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항 목	① 영향 없음	② 어느 정도 영향	③ 매우 큰 영향
① 타고난 재능			
② 개인의 노력			
③ 부모(가족)의 경제력과 인맥			
④ 사회제도, 정책			
⑤ 우연, 행운적 요소			

7. 그럼 아래의 항목 중 어떤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타고난 재능 ② 개인의 노력 ③ 부모(가족)의 경제력과 인맥  
④ 사회제도, 정책 ⑤ 우연, 행운적 요소

8. 귀하께서는 **시민참여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이십니까?

- ① 관심이 없다  
② 관심은 있지만,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③ 모금(후원)이나 봉사활동에 간헐적으로 참여한다  
④ 모금(후원)이나 봉사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편이다  
⑤ 모금(후원)이나 봉사 뿐 아니라 집회, 지역 및 공동체 활동 등에 기회 닿는 대로 참여하는 편이다

9. 귀하께서는 **이웃 주민과의 교류에 얼마나 적극적**이십니까?

- ① 전혀 안 한다  
② 필요한 일이 생겼을 때만 아는 척 하는 정도이다  
③ 서로 자주 인사하며 안부를 묻는 정도이다  
④ 자주 만나 이야기하고 식사나 정기적인 모임을 한다

10. 귀하께서는 스스로 어느 **사회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앞으로 우리 사회'에 대한 질문은 5~6년 후 미래를 기준으로 답해 주세요

○ 정치

14. 앞으로 5~6년간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이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나빠질 것이다 ② 나빠질 것이다 ③ 보통이다 ④ 나아질 것이다 ⑤ 매우 나아질 것이다

15. 귀하께서는 앞으로 **시민들이 사회적 이슈에 더욱 목소리를 내고 활발히 참여**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6. 귀하께서는 **정부(중앙 및 지방정부)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 효율성, 신뢰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7. 귀하께서는 향후 5~6년 이내에 **남북한 관계**가 크게 진전될 것으로 보십니까?

- ① 매우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경제

18. 앞으로 5~6년간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어떨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나빠질 것이다 ② 나빠질 것이다 ③ 보통이다 ④ 발전할 것이다 ⑤ 매우 발전할 것이다

19. 그렇다면 **일자리의 질**은 지금과 비교해 어떻게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나빠질 것이다 ② 나빠질 것이다 ③ 비슷할 것이다 ④ 좋아질 것이다 ⑤ 매우 좋아질 것이다

20. 앞으로 5~6년간 **소득과 부의 불평등 및 빈곤**이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악화될 것이다 ② 악화될 것이다 ③ 보통이다 ④ 개선될 것이다 ⑤ 매우 개선될 것이다

21. 앞으로 시민들이 문화와 여가를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야근, 잔업 등의 **근무**

시간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사회

22. 앞으로 **기술의 발달**과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 기계의 등장으로 인해 인간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 ① 매우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3. 앞으로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충분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4.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앞으로 점차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5. 앞으로 사교육에 비해 **공교육(학교교육)**의 중요성은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감소할 것이다 ② 조금 감소할 것이다 ③ 비슷할 것이다 ④ 조금 증대될 것이다  
⑤ 매우 증대될 것이다

26. 우리 사회가 **다양성**을 중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7. 우리 사회가 앞으로 미세먼지 등의 **환경문제**를 개선하고 살기에 적합하도록 변화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8. 앞으로 5~6년간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사회 여건**은 어떨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나빠질 것이다 ② 나빠질 것이다 ③ 보통이다 ④ 나아질 것이다 ⑤ 매우 나아질 것이다

29. 귀하께서는 우리 사회에 **시민단체**와 **시민사회활동가들**의 활동이 희망이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0. 귀하께서는 **희망제작소**(시민참여 기반 민간연구소)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떠한 활동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IV. 마지막으로 선생님의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DQ 1. 선생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만약 현재 학생이라면 재학 중인 학력)

- ① 중학교 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전문대/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 이상

**DQ 2. 귀하께서는 투표권이 생긴 이후 얼마나 투표하셨습니다-까?**

- ① 뺄셈없이 한다 ② 되도록 한다(한 적이 더 많다) ③ 가끔 한다(안 한 적이 더 많다)  
④ 한 적 없다/투표권 없다

**DQ 3. 귀하의 정치적 이념 성향은 아에 기갑습니까?**

- ① 매우 진보적 ② 진보적 ③ 중도 ④ 보수적 ⑤ 매우 보수적

**DQ 4.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                |          |           |         |
|----------------|----------|-----------|---------|
| ① 일반사무직        | ② 관리/전문직 | ③ 서비스/판매직 | ④ 단순노무직 |
| ⑤ 생산기술직        | ⑥ 자영업    | ⑦ 주부      | ⑧ 학생    |
| ⑨ 농업/어업/임업/축산업 | ⑩ 무직     | ⑪ 기타      |         |

**DQ 5. 귀하를 포함한 귀하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 |             |               |              |
|-------------|---------------|--------------|
| ① 200만원 이하  | ② 201~400만원   | ③ 401~600만원  |
| ④ 601~800만원 | ⑤ 801~1,000만원 | ⑥ 1,000만원 이상 |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참고문헌

## [국내문헌]

### Ⅰ 단행본

- 김용석(2005), 『두 글자의 철학: 혼합의 시대를 즐기는 인간의 조건』, 푸른숲. 83-84.
- Bloch, E.(1995), The principle of hope. Cambridge, MA: MIT Press.  
에른스트 블로흐, 2004, 『희망의 원리』, 박설호 역, 열린책들.
- 서울특별시(2013), 『서울사람들의 희망나침반 생활지표 100가지』, 서울특별시.
- 조한혜정의(2016), 『노오력의 배신』, 창비.
- 차동엽(2013), 『희망의 귀환』, 위즈앤비즈.
- 통계청(2014), 『한국의 사회지표』
- 희망제작소(2006), 『애뉴얼리포트』, 희망제작소.9-10.

### Ⅰ 논문

- 김달숙·문원희·안성윤·오현숙·권경희·박문경·최현숙·이미옥·김영주(2004), “희망과 설명 요인과의 함수적 관계에 대한 메타분석”, 『대한간호학회지』 제 34권,5호,673-684.
- 김홍중(2015), “꿈에 대한 사회학적 성찰”, 『경제와 사회』 106호,32-72.
- 박명호(2009), “스티글리츠 위원회와 경제사회 발전지표”, 한국EU학회, 『EU학 연구』 제14권,2호.
- 정미나·이창식(2011), “청소년의 희망에 관한 연구동향”, 『청소년학연구』 제 18권,3호,273.
- 최유희·이희경·이동귀(2008), “Snyder의 희망척도 한국 번역판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제22권,2호,2.
- 한준·강석훈·김석호·서은국·홍종호·이희길·심수진(2011), “국민 삶의 질 측정을 위한 분석틀”, 서울: 한국사회학회.

## Ⅰ 연구보고서

- 김승권외(2008),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배영순(2016), “30~40대 당신, 안녕한가요?”, 『희망이슈』 04호,2. 희망제작소.
- 우성희·허보나(2016), “청소년 사회혁신 프로젝트 00실험실 결과보고서”, 『희망리포트』 2016-04호,9. 희망제작소.
- 유경준(2007), “소득불평등 개념 인식의 국제비교와 실태”, 한국개발연구원
- 유혜승·김지현·이민영(2015), “청년이 제안하는 광복 100년 한국 사회”, 『희망리포트』 2016-02호,156. 희망제작소.
- 유혜승(2016), “넥스트 데모크라시, 모두 함께 디자인하다-희망제작소형 속의 방법론의 분석과 확장의 기회 탐색”, 『희망이슈』 11호,3. 희망제작소.
- 이상대 외(2014), “경기도 미래지표 개발과 활용방안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 지우석 외(2013), “희망프로젝트 2013”, 『이슈&진단』, 경기연구원.
- 행정안전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0), “2009년 정보문화지수 실태조사”.

## [외국문헌]

- UNDP(2014), 『Human Development Report 2014』, "Technical notes, calculating the human development indices"
- Joseph E. Stiglitz, Amartya Sen, Jean-Paul Fitoussi(2009), "Reported by the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 [기타]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국민 삶의 질 지표 <http://qol.kostat.go.kr/blife/main.do>

통계청 <http://kostat.go.kr>





**희망리포트 [2016-06]**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사회를 위한,

**2016 시민희망지수**

-시민희망인식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발행인 박재승

편 집 희망제작소 희망기획팀

디자인 안영삼

발행일 2016년 11월 21일

발행처 희망제작소

서울시 종로구 평창문화로 27 비전빌딩 2~4층

Tel 02.3210.0909 Fax 02.3210.1026

[www.makehope.org](http://www.makehope.org)

\*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이 희망리포트를 무단전재 또는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The Hope Institute

03008 서울시 종로구 평창문화로 27, 비전빌딩 2~4층

Tel 02.3210.0909 Fax 02.3210.0126

[www.makehope.org](http://www.makehope.org)

※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이 희망리포트를 무단전제 또는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